

연구보고 2010-07

한국아동패널 2010 사업보고서

이 정 립
이 정 원
김 진 경
송 신 영
왕 영 희
이 예 진
신 나 리
김 영 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리고 발달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하여 장기적인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국가 육아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다 과학적이고 설명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육아정책의 데이터뱅크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육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한국아동패널’은 출생부터의 성장 과정을 장기적으로 조사하여, 각 시기에 발생하는 요구와 양육실태, 아동의 발달 특성,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에 관한 국가수준의 종단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에는 향후 다년간 추진될 장기종단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한국아동패널’의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2007년도에 예비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2008년에는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을 구축하고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도에는 ‘한국아동패널’의 2차년도 조사와 더불어 일부 패널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올해 2010년도에는 3차년도 조사와 더불어, 부가적으로 금년 4~8월에 출생한 아동 1000명을 대상으로 횡단적인 자료를 구축하였다.

지난 10월에는 2008년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정책·학술적인 논문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학술대회에서는 관련학계 및 전문가들의 논문 31편과 대학원생들의 우수 논문 5편이 발표되었으며, 앞으로도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학술대회가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2011년도에는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많은 관련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해 주신 패널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연구가 아동 발달과 육아지원에 관한 종단연구의 모범적인 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동과 그를 둘러싼 복합적인 환경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연구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의 생애초기부터 수행하는 국가수준의 대규모 종단연구가 필수적임.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패널을 구축하여 매해 조사를 실시, 2008년과 2009년에 1, 2차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올해 3차년도 연구를 수행하였음.
- 한국아동패널은 단일 연령 집단의 횡단적인 자료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크게 세 가지 기대효과를 가짐.
 - 매년 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를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영유아 관련 국가 정책의 수립과 재정립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함.
 - 사회적·학술적 측면에서의 논의와 연구를 활성화시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가정의 원활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 수립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함.
 - 국가수준의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논문공모사업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연구와 논문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향후 한국의 육아정책 발전에 귀중한 초석을 마련함.

2. 한국아동패널 2010의 연구 내용

- 영유아 대상 관련 패널연구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 패널조사들에 대한 최근 동향을 분석을 위하여 관련 문헌 및 간행물을 고찰함.
- 3차년도(2010년) 일반조사 실시를 위해 2차년도(2009년) 일반조사 이후 기존 문항 중, 제외 또는 수정되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문항을 중심으로 질문지 내용을 확정하며 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CAPI) 프로그램을 개발함.

- 제1차 심층조사(2009년) 자료 및 1차년도 일반조사(2008년)를 연동한 자료를 분석하여 별도의 심층조사 보고서 출간함.
- 2010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동시에, 한국아동패널 일반조사에서 제외되었던 태내 환경과 태교에 대하여 조사함.

3. 한국아동패널 2010의 연구 방법

- 관련 국내의 문헌연구
 - 국내의 관련 패널 연구 문헌, 관련 웹사이트 및 간행물을 통해 패널 연구의 최근 연구경향을 분석함.
 - 제1차 심층조사 보고서의 소논문 작성을 위하여 2008년 1차년도 일반조사 변인들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고, 2009년에 완료된 심층조사를 통해 수집된 아동과 어머니 변인에 관한 문헌 연구를 실시함.
- 전문가 협의회 및 콜로키움 개최
 - 제1차 콜로키움: '한국노동패널 개요 및 한국아동패널에의 시사점'(2010. 3. 26)
 - 제2차 콜로키움: '경제성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분석'(2010. 5. 27)
- 설문조사
 - 3차년도 일반조사: CAPI를 이용하여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함.
 - 2010년 출생아 가구 부가 조사: 6개권역별 1,00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병원 방문 면접조사 및 전화조사를 실시함.
- 발달검사
 - 대상아동들의 발달을 파악하기 위해 선별검사인 K-ASQ(Korean-Age & Stage Questionnaire)와 한국형 덴버 II 검사를 가구방문을 통해 실시함.

□ 2차년도 일반조사 자료 처리 및 가중치 부여

- 자료의 결측치(missing data) 조정
- 1차년도 자료와의 일관성 등을 고려한 종단적 에디팅 실시
- 표본추출확률 계산 및 무응답자 조정을 통한 가중치 부여 및 자료 보완작업 실시

□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 2010년 10월 2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 2008년에 구축된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련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들이 31편의 논문과 대학원 학생 논문 5편 등 총 36편을 발표함.

4. 선행연구

□ 국외 아동관련 패널연구

- National Children's Study: 미국 전역에서 100,000명 이상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발달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탐색하는 대규모의 종단 연구임.
- The National Early Intervention Longitudinal Study(NEILS): 장애아 또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아동들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조기 개입의 시작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기까지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임.
- NLSY79 Children and Young Adults: 1957년부터 1964년 사이에 출생하고 1978년 12월 31일에 14-21세인 미국의 남녀 중, 12,686명을 미국 전역에서 표집하여 1979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다목적 패널조사임.
- Birth to Twenty (Bt20): 1989년에 남아프리카의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 종단적 연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시험 연구임.

□ 국내 아동관련 패널 및 종단 연구

- 한국 영아발달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전국적으로 1~36개월까지의 영아들을 각 개월별로 70~80명씩 모집하여 총 2,727명의 영아들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2003년 1월부터 시작한 연구임.

- 서울대학교 아동 심리발달 및 성장발육 사업: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인류학과에서 공동으로 우리나라 만 3~5세 아동의 심리발달 및 성장발육의 지표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서울아동패널(SPSC): 아동학대와 방임에 초점을 맞추어 2004년도에 서울지역의 한 자치구내의 전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아동 1,785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에서 2010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생, 중학교 1학년 각 2,200여명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2016년까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VII”를 실시할 예정임.

5. 한국아동패널 진행경과 및 현황

□ 전체 연구기간

- 2008~2020년(2015년까지는 매년 조사 이후 2017년, 2020년 조사 실시 계획)

□ 조사 대상

- 모집단은 2008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이며, 표본은 2008년 4~8월에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2,078명의 신생아 가구임.

□ 조사 진행 현황

- 2006년도: 한국아동패널 모형개발
- 2007년도: 예비조사 실시
- 2008년도: 1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 2009년도: 2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제1차 심층조사 실시
- 2010년도: 3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2010년 출생아 부가조사 실시

□ 조사 유형 및 시기

- 일반조사
 - 한국아동패널의 기본 조사임.

- 패널 아동이 0~7세까지 매년 1회 실시하고 이후에는 9세, 12세 때 각각 1회씩 실시 계획
- 심층조사
 - 한국아동패널에 참여한 아동 중 약 10%를 대상으로 전체 연구기간 내에 총 3회(대상아동이 1.5세, 4세, 초등학교 1학년 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함.
 - 2009년 제1차 심층조사 완료

□ 조사 내용

- 아동특성: 개별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특성, 발달 특성
- 부모특성: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 특성, 직업특성, 부부간의 특성, 부모됨의 특성 및 양육 특성
- 가족특성: 가족 내 역할 및 관계
-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육아지원기관 및 개인대리양육서비스와 각종 학원, 선교원 등 유사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 및 향후 이용계획
-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의 육아관련정책과 재원을 포함한 각종지원, 지역사회와 국가수준의 거시적인 체계
- 육아지원정책특성: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수요 및 만족도

6. 표본 구축

□ 표본추출 개요

-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함.
- 1단계 표본추출과정: 2006년 분만건수를 기준으로 6개 권역별 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30개 의료기관 추출함.
- 2단계 표본추출과정: 표본으로 추출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및 그의 부모(주양육자)를 대상으로 2,562가구의 예비표본을 추출함.
- 3단계 표본추출과정: 예비표본 명부에 포함된 2,562 가구 중, 본조사 참여 여부 확인하여 2,078가구의 신생아 가구로 패널을 구축함.
- 표본 구축현황: 2,078명의 조사가 완료, 최초 구축된 예비표본 2,562명 가운데 81.1%를 표본으로 구축함.

□ 표본 유지율

- 예비표본 2,562명 중 1차년도 조사 완료 패널 2,078명, 2차년도 조사 완료 패널 1,904명, 3차년도 조사 완료 패널 1,802명(3차년도 조사 결과 예비표본의 70.0%유지)

7. 가중치 작성 및 추정

- 추출확률에 따른 설계가중치를 기초로 무응답 조정 및 사후층화 조정 등을 고려한 1차년도 가중치를 산출하고 제시함.
- 2009년도 2차년도 조사가 수행됨에 따라, 2009년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를 추가로 제시함.

8. 한국아동패널1·2·3차년도 일반조사

□ 한국아동패널 일반조사의 내용

- 아동특성, 부모특성, 가족특성,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육아지원 정책 특성의 6가지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일반조사 내용이 구성됨.

□ 일반 조사 방법

- 조사 도구: 어머니 대상 질문지, 아버지 대상 질문지, 면접조사용 질문지, K-ASQ 및 한국형 덴버 II

□ 조사 방법

- 설문조사: 면접조사(CAPI 프로그램)와 우편조사 병행 실시함.
- 검사: K-ASQ, 한국형 덴버 II(CAPI 프로그램)를 실시함.

9. 2차년도 심층조사

□ 심층조사 내용

- 발달 전반: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 검사 제2판(Korean-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II: K-BSID II) 사용

- 애착: Q-set 사용
- 기질: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ECBQ) 사용
- 어머니 특성: 성격평가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사용

□ 심층조사 절차 및 방법

- 2009년 2차년도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완료한 패널 가구 중,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http://www.kicce.re.kr/panel>)를 통해 심층조사를 신청한 220명을 선정함.
- 심층조사 변인 및 도구 자문, 심층조사 수행 및 총괄, 검사자 모집·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함.
- 조사대상자인 아동과 주양육자(어머니)가 훈련을 받은 전문 검사자가 상주하는 권역별 지정 검사 장소로 내왕하여 검사를 받음.

10. 3차년도 2010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 제3차 일반조사 외에 2010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 1,000사례를 대상으로 횡단적인 자료를 구축함.

- ‘한국아동패널2008’에서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 밝혀진 아동의 특성 및 경향을 이후에 출생한 아동들의 특성 및 추이와 비교하고자 함.
- 2009년에 도입 또는 확대 실시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의 인식여부, 이용여부 및 도움 정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0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의 내용

- 신생아 특성: 출산예정일과 실제출산일, 아동성별, 출생시 몸무게와 키, 머리둘레, 출생서열 등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특성으로 구성됨.
- 어머니 특성: 인구학적 특성, 건강특성, 직업계획, 산전 정서 상태 등으로 구성됨.
- 임신 및 출산 특성: 임신관련특성과 출산관련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함.

□ 2010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의 방법

- 2010년 4~8월에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며 ‘한국아동패널 2008연구’에서 사용하였던 표집틀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을 표집함.
- 조사방법은 면접조사와 전화조사임.

11. 향후 추진 계획

□ 3차년도 자료 구축 및 기초 분석

□ 2차년도 자료 처리 및 1·2차년도 종단자료 처리

□ 1차년도 자료 공개

□ 4차년도 조사

□ 패널관리 및 추적

□ 국제학술대회 개최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한국아동패널 2010의 연구 내용	3
3. 한국아동패널 2010의 연구 방법	8
4. 선행연구	10
5. 보고서 구성	24
II. 한국아동패널 개요	26
1. 한국아동패널 진행경과 및 현황	26
2. 표본 구축	30
3. 가중치 작성 및 추정	38
III. 한국아동패널의 내용 및 조사방법	44
1. 1·2·3차년도 일반조사	44
2. 2차년도 심층조사	57
3. 3차년도 2010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65
IV. 향후 추진 계획	72
1. 2011년 주요 연구 내용 및 향후 계획	72
부록	77
부록 1. 한국아동패널 2010 브로슈어	79
부록 2. 2010년 부가조사 질문지	81
부록 3. 1차년도 일반조사 도구 프로파일	86

표 차 례

〈표 I-2-1〉 학술대회 세션 구성	5
〈표 I-2-2〉 1차 심층조사 및 1차년도 일반조사 활용 연구 주제	6
〈표 I-5-1〉 보고서 구성 및 내용	24
〈표 II-1-1〉 한국아동패널의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	27
〈표 II-1-2〉 한국아동패널의 연도별 조사 실시 계획	28
〈표 II-2-1〉 권역별 표본 배정	31
〈표 II-2-2〉 권역별 표본 구축 현황	34
〈표 II-2-3〉 조사방법별 표본 구축 현황	35
〈표 II-2-4〉 지역규모별 표본 구축 현황	35
〈표 II-2-5〉 패널 조사 거절 이유	36
〈표 II-2-6〉 1차년도 및 2·3차년도 패널의 표본 유지율	37
〈표 II-3-1〉 1차년도 최종 가중치 부여 결과(2008년 자료 기준)	40
〈표 II-3-2〉 2차년도 아동패널가구 응답여부 가구 분포	41
〈표 II-3-3〉 2차년도 최종 가중치 부여 결과 (2009년 자료 기준)	42
〈표 III-1-1〉 2008-2009 일반조사 문항의 변경사항	44
〈표 III-1-2〉 아동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	46
〈표 III-1-3〉 부모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	47
〈표 III-1-4〉 가족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	49
〈표 III-1-5〉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	52
〈표 III-1-6〉 지역사회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	53
〈표 III-1-7〉 육아지원정책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	53
〈표 III-1-8〉 한국아동패널 설문조사의 개요	56
〈표 III-2-1〉 제1차 심층조사 지역별 표본 배분	63
〈표 III-2-2〉 제1차 심층조사 전문가 네트워크	64
〈표 III-2-3〉 제1차 심층조사 도구 및 자료수집 방법	65
〈표 III-3-1〉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조사내용: 병원면접용	67
〈표 III-3-2〉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조사내용: 전화조사용	67
〈표 III-3-3〉 권역별 모집 가구 수와 협력연구진	68

〈표 III-3-4〉 부가조사 월별 진행 현황: 병원조사	70
〈표 III-3-5〉 부가조사 월별 진행 현황: 전화조사	71

그 립 차 례

[그림 I-2-1] 한국아동패널 2010의 연구 진행도	4
[그림 II-1-1]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영역	29
[그림 II-2-1] 권역별 표본 구축 현황	33
[그림 II-2-2] 권역별 참여율	34
[그림 II-2-3] 권역별 참여율	35
[그림 II-2-4] 연도별 참여패널 수 및 전년 대비 유지율	37
[그림 III-2-1] 한국아동패널 조사 운영 체계도	58
[그림 III-3-1] 권역별 부가조사(병원면접용) 성공률	7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아동이 출생 후 성장하면서 어떤 발달 특성을 보이는지, 가정에서의 양육과정, 기관에서의 형식적인 육아지원 및 비형식적인 개별 육아지원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와 정부로부터 수혜를 받는 것이 육아지원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해 보는 연구는 바람직한 양육 및 효과적인 육아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 조기교육 열풍 등,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정과 사회, 육아지원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저출산 현상이 시급한 국가 의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의 발달과 영향요인에 대한 역동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발달하는 아동에 대한 연구는 일정한 시점에서 제한된 변인들만을 고려한 횡단적·단편적인 정보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아동이 태어나 성장해 나가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복합적인 환경체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해 나가는지에 따라 발달과정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생태학적인 관점이 아동 발달을 설명하는 데 있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아동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같은 직접적인 환경요인만 주목받았던 것에 비해, 현재는 아동도 양육자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점차 기질과 같은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요인들이 아동 발달연구의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가족이나 보육시설, 유치원과 같은 미시체계 뿐만 아니라 미시체계간의 상호관계, 즉 부모와 교사간의 관계, 형제관계와 같은 중간체계나 정부기관, 사회복지기관, 대중매체와 같은 외체계, 아동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같은 거시체계, 그리고 전생애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역사적인 환경으로서의 시간체계와 같은, 보다 복합적인 환경 요인들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능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동과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생애초기부터 수행하는 다면적인

고 복합적인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한 국가수준의 대규모 종단연구가 필수적이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이들을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하고자 국가 수준의 신생아 패널을 구축하여 매해 조사를 실시, 아동의 성장·발달과 그들을 둘러싼 인적·물적 환경을 전국 단위로 추적 조사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 특성과 생활 특성, 각 시기에 발생하는 부모의 양육실태와 요구, 가정환경의 특징, 공식적·비공식적인 육아지원의 기능과 영향에 관한 횡단적·종단적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과 2009년, 두해에 걸쳐 1, 2차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올해 3차년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한국아동패널 2010 연구에서는 매해 이루어지는 2008년도 출생아동에 대한 추적 조사 외에 2010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2010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를 시행하여 횡단적인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2010년도에 출생한 아동의 특성 뿐 아니라 부모들의 특성과 인식, 특히 출산 및 임신과 관련한 부모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저출산 시대 부모들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더불어 2008년 제1차 일반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와 2010년 부가조사의 결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두 집단의 경향성 및 변화 양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현재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동일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추적하는 연구이므로, 동 시대의 사회적이며 역사적인 변화를 비슷하게 경험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동일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와 비교해보고, 그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 있는 연구라 사료되었다. 더 나아가 2009년도부터 실시되어 온 아동 양육비 지원 정책, 보육료 확대 지원 및 고운맘 카드 지원 등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생아 및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지원 노력들에 대한 인식여부, 이용여부 및 도움정도와 이러한 정책의 도입과 확대가 2010년에 출생한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에 실시된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는 주로 아동이 출생한 이후부터의 양육환경과 관련된 변인들을 검토하였고, 아동이 출생하기 이전의 환경인 태내환경이나 태교와 같은 요인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2010년에 출생한 아동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아동패널 일반조사에서 제외되었던 태내 환경을 포함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2010년에 출생한 1,0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횡단적인 자료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0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단일 연령 집단의 횡단적인 자료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크게 세 가지 기대효과를 가진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매년 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를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영유아 관련 국가 정책의 수립과

재정립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둘째, 궁극적으로는 사회적·학술적 측면에서의 논의와 연구를 활성화시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가정의 원활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 수립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준의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논문공모사업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연구와 논문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향후 한국의 육아정책 발전에 귀중한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 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긍정적인 발달로 연결될 것이라 사료된다.

2. 한국아동패널 2010의 연구 내용

한국아동패널 2010의 연구 내용은 크게 국내·외 패널 경향 조사, 1차년도 일반조사 자료의 활용, 2차년도 일반조사 자료의 구축, 1차 심층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실시, 3차년도 일반조사 실시의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그림 I-2-1 참조).

가. 국내외 패널 경향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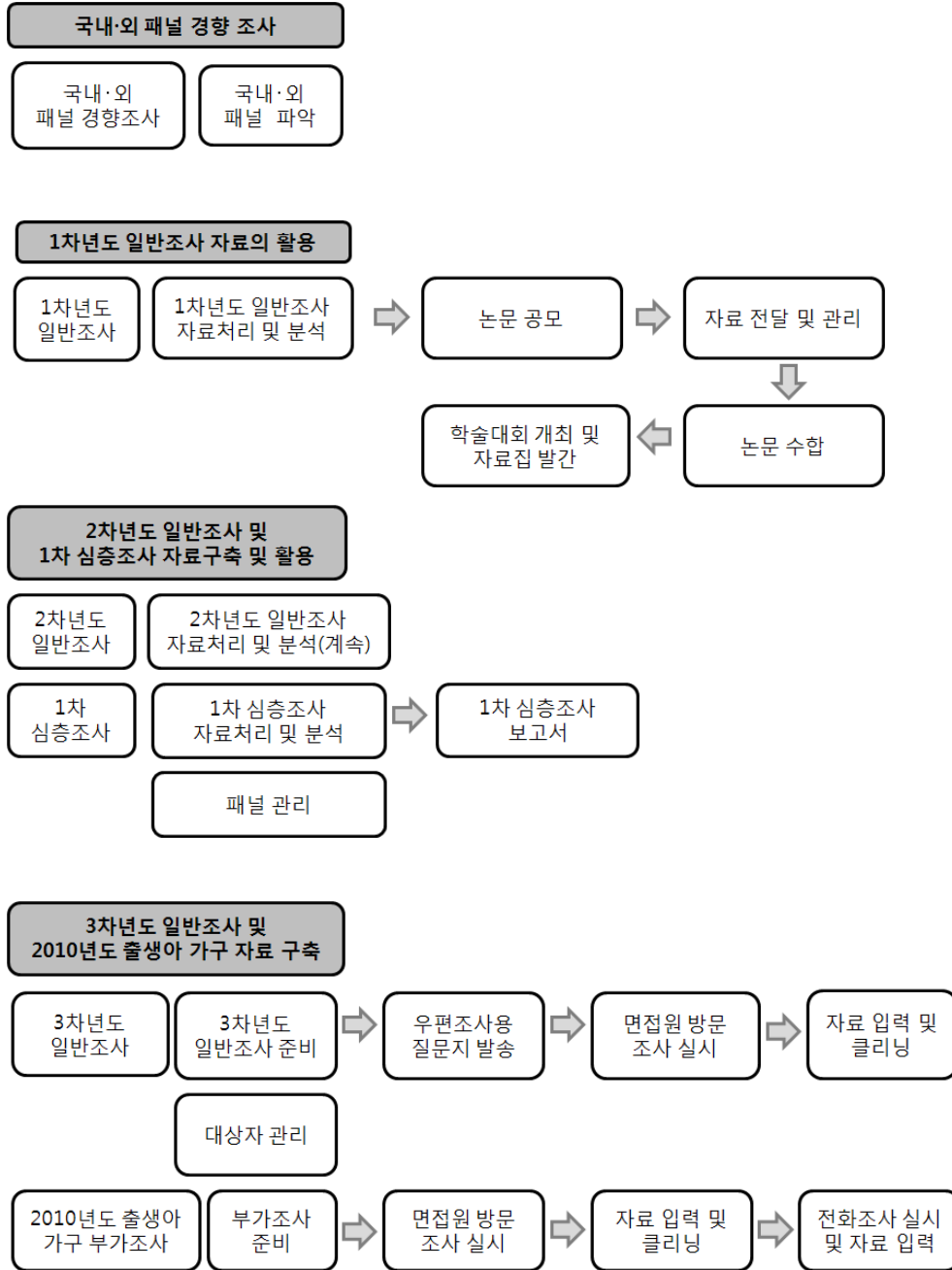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발달적 특성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한된 실정이다. 이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국내외 영유아 대상 관련 패널조사들에 대한 최근 동향을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구축·활용되고 있는 패널조사들에 대한 관련 문헌 및 간행물을 탐색함으로써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¹⁾.

나. 1차년도 일반조사 자료의 활용

2009년도에 구축된 1차년도 일반조사를 활용하여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국가수준의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구분은 <표 I-2-1>과 같다.

1) 본 보고서 I 장 4절 “선행연구”에 수록됨.



[그림 1-2-1] 한국아동패널 2010의 연구 진행도

〈표 1-2-1〉 학술대회 세션 구성

구분	주제	
Session 1	1 주제	육아정책과 만족도
	2 주제	자녀양육행동
	3 주제	기질과 영아발달
	4 주제	자녀 계획
Session 2	1 주제	어머니 변인 및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유형
	2 주제	자녀 양육 스트레스
	3 주제	영아 발달과 관련 변인
	4 주제	후속 출산 계획
Session 3	1 주제	어머니의 취업
	2 주제	부부관계
	3 주제	영아 발달 특성
	4 주제	대학원생 논문공모 수상작 발표

또한 향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1차년도 일반조사 원자료, 코드북 및 도구 프로파일의 활용 편리성을 점검, 구축된 자료를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다. 2차년도 일반조사 자료의 구축

2009년도에 실시된 2차년도 일반조사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자료의 결측치(missing data)나 항목 상호간의 비일관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 에디팅(data editing) 작업을 통한 자료 구축을 진행하였다. 또한, 표본추출확률 계산 및 무응답자 조정을 통한 가중치 부여 및 자료 보완작업을 완료하였다.

자료 공개와 함께 배포되어야 하는 한국아동패널의 사용자지침서, 코드북 및 도구 프로파일 등의 간행물 제작을 진행하였다.

라. 1차 심층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

심층조사는 전체 연구기간(2008~2020년)동안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조사 대상이 만1세가 되던 2009년에 실시한 제1차 심층조사에 참여한 206가구의 자료 에디팅 작업을 통한 자료 구축을 완료하였다.

심층조사 자료로서 구축된 아동특성(발달, 애착, 기질 변인)과 어머니 특성(성

격 변인), 대상자의 1차년도 일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의 심층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심층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의 주제 및 각 주제별 활용 자료 구성은 <표 I-2-2>와 같다.

〈표 I-2-2〉 1차 심층조사 및 1차년도 일반조사 활용 연구 주제

구분	주제	주 활용 자료
1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영아의 인지발달 간 구조모형 분석	심층조사
2	애착유형에 따른 영아의 인지발달	심층조사
3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영아의 애착안정성	심층조사, 일반조사
4	한국과 미국 영아의 기질 구조 비교: ECBQ 타당화를 중심으로	심층조사
5	영아의 기질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	심층조사
6	인생초기 경험과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 : 임신기 및 출산 시 변인을 중심으로	심층조사, 일반조사

마.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실시

1차년도 일반조사에서 제외되었던 태내 환경과 태교에 대한 부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에서는 1차년도에 시행되었던 아동 및 부모 특성, 출산 및 임신관련 특성에 관한 일부 문항을 재조사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더불어 2009년도부터 실시되어 온 아동 양육비 지원 정책, 보육료 확대 지원 및 고운맘 카드 지원 등 육아지원 정책 관련 내용들을 조사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시행이 현재의 임신 및 출산과 앞으로의 임신 및 출산계획에 어떤 효과를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 및 자료 분석은 2011년에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되어 출간될 예정이다.

바. 3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2009년도에 실시된 2차년도 조사 이후, 기존 문항 중 제외 또는 수정되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문항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3차년도 일반조사는 2차년도와 동일한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면접조사와 우편조사, 그리고 발달검사의 세 가지 방법을 주요 조사방법으로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CAPI)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이를 위한 설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패널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직업관련 문항 등은 CAPI상에서 지난해 자료를 연동하여 1, 2차년도 정보를 기본으로 확인·수정하는 형식으로 구현되도록 로직을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아동특성, 부모특성, 가족특성,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지역사회특성 및 육아지원정책특성이 포함되며, 2010년에는 지난 조사 이후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들에 관한 수혜경험 및 만족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부모들이 영아들과 상호작용하는 시간 및 사교육이나 특기활동 등에 관한 내용과 아동의 일과활동 특성을 추가하였다. 또한, 아동의 성장에 따른 발달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의 발달단계에 적합하도록 이전 문항들을 수정하였다.

사. 관련 홍보사업 수행

1) 홈페이지 관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일반조사 일정에 대한 안내, 발달검사 결과 공개, 1차 조사 참여에 대한 안내 및 감사인사 등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아동패널의 각종 발간물, 1차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공지 및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였다.

향후 자료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자료 이용자들을 위한 안내, 각종 발간물 및 원자료의 제공과 해당 패널 가구를 위한 발달 정보의 제공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2) 패널 유지를 위한 관리

패널 조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상자 유지를 위한 일환으로 3차년도 조사 시에는 3차년도 일반조사를 완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안내문과 더불어 발달검사 안내에 대한 리플릿²⁾을 가구방문조사에 앞서 발송된 우편조사용 질문지와 함께 발송하였다. 또한, 3차년도 일반조사 대상연령인 25개월 아동의 발달 브로슈어³⁾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발달 브로슈어에는 아동의 발달 특성 및 이에 따른 지도방법이 포함되었다.

2) 1, 2차년도 일반조사 시에 사용한 안내 리플릿과 동일함.

3) 부록 1로 수록함.

또한 1차 심층조사 이후,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달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개별 아동별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공하였다. 각 아동별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는 발달, 애착, 기질, 성격 검사의 각 결과와 부모 보고, 검사자에 의해 관찰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3. 한국아동패널 2010의 연구 방법

한국아동패널 2010의 연구방법은 첫째, 매해 진행되는 일반조사 진행과 관련된 내용, 둘째, 2차년도에 실시한 제1차 심층조사 자료를 활용한 보고서 발간과 관련된 내용, 셋째, 올해 새롭게 추가된 2010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에 관련된 내용 추진을 위하여 시행한 연구방법을 범주화하여 아래에서 소개하였다.

매해 실시되는 일반조사는 당해 연도의 우편용 질문지 및 CAPI를 활용한 가정방문 면접조사와 더불어 전년도 자료의 클리닝 및 에디팅이 동일한 해에 진행된다. 예를 들면, 2010년의 경우 3차년도 일반조사의 실시와 함께 2차년도 자료의 에디팅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는 하반기에 조사가 완료되고 자료 입력과 클리닝 및 에디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가.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국내외 관련 패널 연구 문헌이나 관련 웹사이트 및 간행물을 통해 패널 연구의 최근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와 별도로 발간되는 제1차 심층조사 보고서의 소논문 작성을 위해 2008년 1차년도 일반조사 변인들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고 2009년에 완료된 심층조사를 통해 수집된 아동과 어머니에 관한 변인(예;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애착, 기질, 어머니 성격)에 관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나. 전문가 협의회 및 콜로키움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부가조사 실사를 담당할 전문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부가조사 운영 방식에 관한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관련 학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패널 연구 수행 및 분석 방법, 조사 변인 선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였다.

제1차 콜로키움은 '한국노동패널 개요 및 한국아동패널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2010년 3월 26일에 개최되었으며, 제2차 콜로키움은 '경제성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분석'이라는 주제로 2010년 5월 27일에 개최되었다.

다. 설문조사

1) 3차년도 일반조사

예비표본 2,562명의 패널 중, 1,802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문항에 따라 신뢰로운 자료 수집을 위해 신생아의 부모 이외에 주양육자 및 기타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2) 2010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가) 병원방문 면접조사

2010년 출생아 부가조사 시에는 한국아동패널의 표본 구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2010년에 출생한 아동을 6개 권역(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별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협력연구진을 구성하여 1,00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을 구축한 후,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원이 병원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전화조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6개 권역별로 병원에서 구축된 1,000명의 신생아 표본가구 중, 병원방문 면접조사에서 4개월 후의 추후 조사에 응하겠다고 응답한 800여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발달검사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인 아동을 대상으로 선별검사인 K-ASQ(Korean-Age & Stage Questionnaire)와 한국형 덴버 II 검사를 가구방문을 통해 실시하였다.

마. 2차년도 일반조사 자료 처리 및 가중치 부여

2차년도(2009년) 일반조사 자료 구축을 위하여 자료 에디팅 작업으로 자료의 결측치(missing data) 조정을 실시하였다. 이때 2차년도 조사 항목 상호간의 비일관성 외에도 1차년도 자료와의 일관성 등을 고려한 종단적 에디팅도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표본추출확률 계산 및 무응답자 조정을 통한 가중치 부여 및 자료 보완작업을 실시하였다.

바. 학술대회 개최

학술대회 참가를 위한 연구계획서 공모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에 공지하였고, 관련 학회 협조를 통한 이메일 공지가 4월에 시행되었다. 5월에 연구계획서 제출이 마감되었으며, 학술대회를 위한 최종 논문 제출은 9월말에 종료되었다.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10월 2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는 2008년에 구축된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육아정책과 만족도,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 영아발달, 출산,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유형, 가족과 부부관계 등에 대한 주제로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3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논문이 5편이 발표되어 총 36편의 다양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4. 선행연구

한국아동패널조사의 모형을 개발하는 데 주로 참고한 네 개의 패널조사(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복지패널조사 및 미국의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와 네 개의 영유아 종단연구(한국아동의 종단적 연구,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Birth Cohort, 및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to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는 그 주요 내용이 시사점과 더불어 아동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장명림·신나리·박수연, 2006)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패널연구 및 종단연구를 중심으로 국외와 국내로 나누어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았다.

가. 국외 아동관련 패널연구

1) National Children's Study⁴⁾

가) 조사배경 및 목적

National Children's Study는 미국 전역에서 100,000명 이상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발달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탐색하는 대규모의 종단 연구이다. 연구 목적은 아동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는 것으로,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 방식 및 아동의 건강에 이익이 되거나 유해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성장과 발달의 여러 단계에 있는 아동들을 연구함으로써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들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조산 및 선천성 결함과 같은 임신 문제, 자폐 및 학습부진과 같은 발달 장애, 뇌손상과 같은 상해, 천식, 비만 및 당뇨와 같은 질병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차세대를 위한 아동 건강의 안내, 중재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 조사대상 및 기간

National Children's Study는 미국 전역에서 100,000명 이상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출생 전부터 21세까지 추적 조사한다. 2000년부터 기획을 시작한 이 연구는 2009년 1월에 예비 연구를 위해 처음으로 조사대상을 표집 하였다. 예비연구로부터 충분한 자료가 수집이 되고 분석이 이루어진 후, 수년 내에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2025년 이후까지 계속 될 예정이다.

다) 조사방법

National Children's Study는 관찰 연구로 연구 조사원이 가정이나 아이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 또는 지역아동센터(study center)를 방문하여 참여자에게 환경에 대해 질문을 하고 샘플을 채취할 예정이다. 연구는 미국 내 다양한 인종적, 경제적, 종교적, 지리적, 사회적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된 105개 지역에서 이루어질

4) <http://www.nationalchildrensstudy.gov/Pages/default.aspx>를 참고하였음.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임신을 하였거나 곧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며, 해당 지역의 의료진,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가정으로의 직접 연락 또는 지역병원을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라)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는 “환경”을 폭넓게 정의하여 공기, 물, 집안의 먼지와 같은 요인들, 아동들의 식습관, 보육 특성, 거주 지역의 안전, 병원에 가는 빈도 등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이와 관련된 생물학적, 유전적, 심리사회적 요인들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최초 조사 시점에서는 임신부의 식습관, 환경,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정서적 스트레스 등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아기의 출생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생물학적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샘플과 공기, 물, 먼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관한 샘플을 아기의 환경에서 채취한다.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의 가정에서 자연관찰과 임상 장면의 관찰을 수행하며, 자료 수집은 전화, 컴퓨터, 우편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마) 조사의 특징

National Children’s Study는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종단 연구 중 규모가 가장 큰 종단적 연구로서, 연방 정부, 주 정부, 지역 기관, 대학, 학회, 의료 기관, 지역사회, 산업체, 회사 및 다른 사설 기관들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력하여 실시된다. 이 협력기관들은 정확하고 공평하며 신뢰로운 연구결과를 위해 연구 설계에서 결론까지 연구의 여러 단계에 관여한다.

2) The National Early Intervention Longitudinal Study (이하 NEILS): A National Study of Infants, Toddlers, and Their Families Receiving Early Intervention Services⁵⁾

가) 조사배경 및 목적

NEILS은 장애아 또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아동들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조기 개입의 시작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기까지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대상 아동과 가족의 특성, 수혜 중인 서비스의 특성 및 서비스에 참여한 결과에 대한 정

5) <http://www.sri.com/neils/>를 참고하였음.

보를 제공한다.

나) 조사대상 및 기간

NEILS의 조사대상은 처음으로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는 3,338명의 아동과 그 가족으로, 1997년 9월부터 1998년 11월 사이에 모집되었다. 모집 당시 아동의 연령은 생후부터 31개월까지 분포한다.

다)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가족과의 전화 면접,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기록 조사, 서비스 제공자, 프로그램 디렉터, 유치원 교사에 대한 조사로 이루어진다.

우선, 가족과의 전화 면접은 아동과 가족 특성, 아동의 기능 및 가족이 조기 개입 서비스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였다. 전화면접은 아동이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기 시작할 때, 매해, 그리고 아동이 3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아동이 유치원에 입학할 때 이루어졌다.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기록 조사는 6개월마다 조기 개입 전문가가 NEILS 가족에게 제공되는 조기 개입 서비스에 관한 질문지를 응답하였다. 조기 개입 서비스로부터 유치원 입학으로의 전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해 총 6,809개의 기록이 작성되었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사는 조기 개입을 시작한 처음 6개월 동안, 대상 아동 및 가족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 개입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배경, 훈련 경험, 서비스 전달 방법 등에 관해 응답하였으며 우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사가 총 2,827개 회수되었다.

프로그램 디렉터에 대한 조사는 조기 개입을 시작한 처음 6개월 동안, 아동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디렉터가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수와 유형, 제공자가 사용하는 서비스,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 등과 같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의 특성에 관하여 우편 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디렉터에 대한 조사가 총 641개 회수되었다.

유치원 교사에 대한 조사는 아동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다음 해 봄(두 번째 학기)에 교사들에게 아동의 수행에 관한 질문지를 우송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아동의 교육적 진전, 사회적 능력, 문해 및 수학 지식, 부모 참여, 아동의 유치원으로의 전환 및 아동이 유아원 때 특수 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장애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장애 분류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

성에 관해 조사하였다. 지금까지 총 581개의 조사가 회수되었다.

라) 조사내용

조기 개입을 받는 아동과 가족의 특성, 받고 있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전달 경로, 비용, 참여 경험의 결과 및 그 결과와 아동과 가족 특성의 차이, 받은 서비스와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마) 조사의 특징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다른 패널조사와 달리, NEILS 패널은 대상 아동이 장애아 또는 고위험군 아동들이며, 그들이 받는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3) NLSY79 Children and Young Adults⁶⁾

가) 조사배경 및 목적

NLSY79는 1957년부터 1964년 사이에 출생하고 1978년 12월 31일에 14~21세인 미국의 남녀 중, 12,686명을 미국 전역에서 표집 하여 1979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다목적 패널조사이다. NLSY79 아동들(Children of the NLSY79)은 NLSY79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로, 1986년부터 NLSY79 아동 조사가 시작되었다. 1994년부터는 15세를 기준으로 0~14세까지의 어린 아동과 15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본 절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연령이 포함된 younger children(0~14세)을 중심으로 기술 하겠다.

나) 조사대상 및 기간

NLSY79의 조사대상은 NLSY79 여성 응답자가 낳은 아동 모두이다. NLSY79 어머니에게 태어난 아동의 수는 조사가 시작된 첫 해인 1986년에는 총 5,255명이었고, 2002년에는 총 8,323명으로 증가하였다. 1986년에는 4,970명의 아동들이 조사되었다. 1988년부터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아동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6년에는 총 1,972명의 0~14세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6) <http://www.bls.gov/nls/nlsy79ch.htm>, <http://www.bls.gov/nls/handbook/2005/nlshc4.pdf>, <http://www.nlsinfo.org/pub/usersvc/Child-Young-Adult/2006ChildYA-DataUsersGuide.pdf>를 참고하였음.

다) 조사방법

1986년에 시작하여 NLSY79 여성 응답자들의 자녀들을 2년마다 별도로 추적하였고, 면접과 측정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경험이 많고 특별히 훈련받은 면접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직접 측정하였고, 엄마로부터 추가 자료를 얻었으며 면접을 실시하였다. 1992년까지는 지필식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1994년부터 주요(일차) 조사는 컴퓨터 면접방식(CAPI)으로 이루어졌고, 2000년부터는 모든 조사를 컴퓨터로 하였다. 1992년까지는 면접원들이 지필식(PAPI)으로 직접 아동 조사를 실시하였고, 1994년 면접부터 CAPI로 대체되었다. 어머니-아동 측정은 일반적으로 각 어머니의 주요 NLSY79 면접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실사에는 대략 6개월이 소요되었다.

라) 조사내용

아동의 인지 능력, 기질, 운동과 사회성 발달, 행동 문제, 자아 능력감과 더불어 가정환경의 질을 측정하였다. 아동의 연령이 10세가 넘어가는 1988년부터는 학교, 가족, 또래 관계 및 다양한 태도와 행동에 대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여성 응답자들의 생물학적 아이들의 가족 배경, 경험 및 발달, 출산 기록, 건강, 학교 경험, 가족 배경, 태도 및 가정환경의 질에 관해 자세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 조사의 특징

NLSY79 아동 및 청소년 데이터 파일을 이용하여 한 연령 집단이 수천 명에 달하는 표본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7세 아동들의 숫자 외우기 능력과 다른 요인과의 상관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조사 첫 해부터 현재 조사년도까지 약 3,800명의 7세 아동 표집을 누적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NLSY79를 위한 표본 선정 시 선정된 가구에 살고 있는 개인들 중에서 1978년 12월 31일 현재 14~21세인 모든 사람들을 선정하였으므로, 형제자매들이 원 표본에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다. 아동 편에서 보자면 이모의 자녀들, 즉 사촌들이 NLSY79 아동 및 청소년 표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여성 응답자들이 낳은 자녀의 형제 표본 사례를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6년에 인터뷰에 응답한 여성들 중, 대부분이 하나 이상의 자녀를 두었고 많은 응답자들이 3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다. 다중 출산뿐만 아니라 자녀 간의 터울이 많이 나는 가구들이 있으므로, 어머니의 생애 주기

에서 다른 단계에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아동양육방식과 그 영향을 탐색해 볼 수 있다.

4) Birth to Twenty (Bt20)⁷⁾

가) 조사배경 및 목적

Bt20은 1989년에 남아프리카의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 종단적 연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시험 연구를 하였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대규모 종단적 연구들 중 하나인 Bt20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새로이 출현한 체제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라나는 도시 아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추적하는 출생 코호트 연구이다. Bt20의 가장 중요한 비전은 Johannesburg-Soweto 지역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을 전인적으로 결정하는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복잡한 연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견해에 끊임없이 도전을 주고, 차이를 만들어내는 학문적 태도에 기여한다. 이 연구는 남아프리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과도기적 현상들 - 사회-경제적, 사회-정치적, 인구학 및 영양적으로 과도기적 현상 - 과 그것이 아동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고 탐색한다.

나) 조사대상 및 기간

학제 간 코호트 연구에 등록된 어머니들 중, 1990년 2월부터 7주 동안 Soweto-Johannesburg 지역에서 자녀(쌍생아 제외)를 출생한 3,273명의 여성들 모두가 조사대상이다. 이 코호트에서 자료를 17번 수집하였고, 2009년 현재 18차년도 조사가 완료되었다.

다) 조사방법

전화, 우편 또는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 대상 아이를 데리고 병원이나 클리닉에 와서 인터뷰하도록 하였다. 병원이나 클리닉에 오는 것이 불편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가구는 저녁이나 주말에 가정으로 방문하여 검사와 측정을 하고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라) 조사내용

영아,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가정, 학교 및 가정환경의 아동에 대한

7) Barbarin과 Richter (2001)의 'Mandela's children: Growing up in post-apartheid South Africa'과 <http://web.wits.ac.za/Academic/Health/Research/BirthTo20/Home.htm>를 참조하였음.

영향, 청소년기에 출현하는 성적 행동 및 다른 위험 행동들, 신체 구성, 비만 및 출현하는 비전염성의 질병의 위험,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통한 영양 및 골격 건강, 아동 및 청소년 연구에 관한 방법론적 문제들을 조사하였다.

마) 조사의 특징

Bt20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막 태동한 민주주의로 인한 사회적인 격변기와 스트레스 속에서 자라게 될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패널과 구별된다. 이 패널연구는 처음에 Birth to Ten으로 시작하였으나 2000년에 10년의 연구를 마치면서 20세까지 연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Bt20에는 임신 전에 표집된 엄마들이 낳은 아이들 1,594명에 관한 출산 전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Bt20의 조사결과는 아동들의 출생에 관한 일반적 데이터를 병원과 클리닉에서 수집하는 방식, 입학 연령, 담배의 대중 광고 금지 및 아동에게 담배 판매 금지와 같은 담배에 관한 법률제정, 연료 배출에 관련된 환경적 납 배출의 감소 등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나. 국내 아동관련 패널 및 종단 연구

1) 한국 영아발달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발달지표, 보호요인, 위험요인 탐색에 의한 조기발달 중재모델 개발⁸⁾

가) 조사배경 및 목적

0~3세의 영아들을 종단적으로 추적하는 ‘한국 영아발달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는 학문적 기여, 사회적 기여, 인력 양성, 교육적 활용 등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전체 대상 영아들의 발달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0~3세의 영아들의 일반적인 발달지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일부 영아를 대상으로 발달지연이나 발달장애와 관련이 있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밝힘으로써 부적응이나 발달지연을 중재하고, 경계선에 있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발달촉진 프로그램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 두 번째 연구에 참여한 영아 중에서 발달수준이 하위 30%에 해당하는 영아들을 선발하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한 발달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8) 박금주·성현란·장유경·심희옥·이지연·김수정·배기조(2005)의 ‘한국영아발달연구’와 http://ckid.snu.ac.kr/sub_01.php를 참고하였음.

나) 조사대상 및 기간

2003년 1월부터 시작된 ‘한국 영아발달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는 전국적으로 1~36개월까지의 영아들을 각 개월별로 70~80명씩 모집하여 총 2,727명의 영아들과 그들의 부모가 대상이다. 연구대상자의 표집은 산부인과, 소아과, 산후조리원의 기관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영아발달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1개월의 영아 450명을 대상으로 영아의 발달 상태를 1달에 1번씩, 3년간 추적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영아 중에서 발달수준이 하위 30%에 해당하는 영아 200명을 선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한 발달중재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24회기 실시하고 발달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다) 조사방법

각 월령에 따른 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훈련받은 검사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관찰을 실시하였다. 영아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서 간단한 검사들을 수행하고,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라) 조사내용

만 3세까지의 영아발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반적 발달과 특정 영역 발달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특정 발달은 반사와 운동 및 근육발달,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 언어 발달의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마) 조사의 특징

‘한국 영아발달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는 0~3세 영아의 일반적인 발달지표 제공,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탐색 및 조기발달 중재모델 개발이라는 목적상 종단적 연구와 실험 연구가 연계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서울대학교 아동 심리발달 및 성장발육 사업⁹⁾

가) 조사배경 및 목적

‘서울대학교 아동 심리발달 및 성장발육 사업’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인류학과

9) <http://snuchild.or.kr/>를 참고하였음.

에서 공동으로 아동기의 성장 및 심리발달에 미치는 개인적, 심리적 및 환경적 변인을 비교 분석하며, 우리나라 만 3~5세 아동의 심리발달 및 성장발육의 지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3월 사이에 출생하여 2006년에 만 3세가 된 아동이며, 만 6세가 되는 2008년까지 3년 동안 추적 연구하였다.

다) 조사방법

조사내용에 따라 질문지, 측정, 면접, 관찰 등의 다양한 조사방법이 사용되었다.

라) 조사내용

아동의 심리발달 특성, 부모 변인, 가족 변인 등을 질문지로 조사하였고, 성장발육을 측정하고,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 행동 특성을 평가하였다. 아동 초기 발달 과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해, 참여 아동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와 아동 간의 놀이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마) 조사의 특징

아동의 심리발달 특성 뿐 아니라 성장발육을 상세히 조사하고 있다. 성장발육 측정을 위해 아동용 체성분 분석기를 이용하여 아동의 신체 크기, 영양상태, 체지방 등을 측정하였다.

3) 서울아동패널(SPSC)¹⁰⁾

가) 조사배경 및 목적

‘서울아동패널’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연구이다.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판정된 사례는 2001년에 약 2,000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4,600여건으로 약 2.5배 증가를 보였다. 18세 미만 아동인구 만 명당 아

10) 이봉주·김광혁 (2007)의 ‘가족빈곤과 가족구조가 아동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영향과 이봉주 (2008).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본 빈곤의 영향. 아동기를 중심으로.
http://css.snu.ac.kr/bbs/view.php?id=db_col&page=1&sn1=&divpage=1&category=4&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5를 참고하였음.

동학대율도 2001년에는 1.8명에서 2005년에 약 130%가 증가한 4.2명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급속히 증가하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위험요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하여, 지역사회 전체 아동을 대표하는 표본에 기초한 개인적 수준의 종단적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 조사대상 및 기간

SPSC는 2004년도에 서울지역의 한 자치구내의 전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아동 1,785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11개 초등학교를 저소득지역 학교와 비저소득지역 학교로 층화하여 저소득지역 학교를 과대표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자치구의 조사된 초등학교는 총 11개교이며, 8개 저소득지역 학교의 1,102명이 조사되었고 3개의 비저소득지역 학교 638명이 조사되었다. 아동이 5학년이 된 2005년에는 1,677사례가 조사되었다.

다) 조사방법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분야의 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이 교실에서 실시하는 집단 교육 및 개별 면접을 통해 조사를 하였다. 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을 통해 전달된 질문지에 부모가 자기 기입하고 밀봉하여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전 학한 학생들의 경우, 해당 가구에 대한 가구 추적조사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조사내용

SPSC의 주요 조사내용은 학업성취, 사회, 정서적 발달 비행, 아동학대, 건강 등의 아동발달지표, 부모의 교육수준 및 고용상태, 가족구조, 가족소득 등의 가족배경변수,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가족 내 물리적 및 심리적 환경, 지역사회 환경 등의 가족환경변수, 그리고 학교생활, 친구관계, 방과 후 생활, 아르바이트 등의 아동생활변수이다.

마) 조사의 특징

SPSC는 아동학대와 방임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자신 및 환경 변인들을 중심으로 개념적인 틀을 모형화한 후, 관련된 내용을 종단적으로 조사하였다.

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11) 12) 13)

가) 조사배경 및 목적

2008년도에 6년간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완성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발달 및 성장과정, 변화양상과 변화의 요인들을 횡단적 실태로서 또 종단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각적으로 포착하여 아동·청소년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기초정보를 제공하며, 누적적으로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아동·청소년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사회의 동력으로 양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여건의 조성, 관련정책 수립에 있어 실효성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VII”을 전개할 예정이다. 올해는 그 기초연구를 실시하며 1차 패널자료를 구축하려고 한다.

나) 조사대상 및 기간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생 2,200여명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전국 중학교 1학년생 2,200여명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7회에 걸쳐 2016년까지 실시할 것이다.

다)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초중학교 학생들에게는 PAPI를 이용한 학급단위의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부모에게는 집단면접 조사당일 학생들로부터 전달받은 부모용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고 응답 완료된 질문지는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후 면접조사원이 수거한다. 이러한 부모 대상 유치조사를 마친 후, 응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항들은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응답 내용을 완성한다.

-
- 11) 김지경·안선영·이계오·이미리·김성식·김명희·박일혁(2009)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VII: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를 참고하였음.
 - 12) 현재 이 패널연구는 기초연구와 예비조사 수행의 기획단계에 있으므로 연구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음.
 - 13) 김지경·안선영·이계오·이미리·김성식·김명희·박일혁(2009)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 (KYPS) VII: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와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2010) <http://www.nypi.re.kr/>를 참고하였음.

라) 조사내용

개인발달영역인 신체발달, 지적발달, 사회·정서발달과 발달환경영역인 가정, 또래, 교육, 지역사회와 매체환경에 관해 조사하되 모든 문항을 매년 조사하기에는 그 양이 방대하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정도가 크다고 가정되는 발달영역은 핵심문항으로 매년 측정하고, 변화의 폭이 적은 영역은 2~3년에 한 번씩 발달과정에 따라 측정하고자 한다.

마) 조사의 특징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단기종단조사 모형을 설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다. 패널조사연구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외 아동관련 패널연구와 종단적 연구들은 현재 본 연구소에서 수행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연구 뿐만 아니라, 추후에 실시될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패널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조사범위와 내용의 확대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을 시간의 흐름선상에서 관찰, 측정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연령별 발달과업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패널조사의 범위를 넘어, 주된 주제나 이슈들 - 건강과 질병에 대한 환경의 영향, 사회의 과도기적 현상들과 그것이 아동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 등 - 을 중심으로 패널조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조사기간의 확대

아동패널의 연구가 초기 20년 동안 실시되거나 한 세대 전부터 - 아동이 출생하기 전 어머니가 10대였을 때부터 - 시작하는, 보다 장기적인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처음에 Birth to Ten으로 시작한 Bt20는 2000년에 10년의 연구를 마치면서 대상 아동이 20세까지 연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1986년에 시작된 NLSY79 아동 패널의 경우 2006년까지 20년 동안의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NCS도 출생부터 21세까지

추적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3) 표본크기의 확대

연구기간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의 크기도 대규모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정시기에 특정지역에서 출생한 아동을 모두 표집하기도 하고(Bt20), 십만 명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NCS).

4) 조사방법의 확대

조사자가 아동패널의 가정을 방문하여 면접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함께 대상자가 연구센터나 사이트를 방문하여 조사가 실시되기도 한다.

5) 조사대상의 확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위험군 집단을 대상으로 패널연구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위험군 집단을 심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그 집단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까지 시도하기도 한다.

6) 다학문적 연구 및 연구 파트너십의 확대

위의 시사점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내용에 출생 전 환경 특성, 생물학적 샘플 채취, 식습관 등이 포함되면서 의학, 생물학, 영양학 등과의 다학문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유관 기관들이 동반자의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올해로 3차년도에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연구는 임신 전 환경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추가로 2010년에 출생한 신생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2010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임신 중 태내 환경을 관찰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내용을 어머니가 회상하여 대답하는 질문을 이용한 조사방법이라는 제한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생물학적, 환경적 샘플의 채취 등과 같은 요인을 포함하여 조사함으로써 아동의 성장과 발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을 밝히려는 시도가 본 아동패널조사에서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한국아동패널연구의 기간을 연장하여 전 생애를 포함하는 패널연구로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점이라고 사료된다.

5. 보고서 구성

2010년에 발간되는 한국아동패널 관련 보고서는 총 3종으로, 한국아동패널2010 사업보고서, 한국아동패널 2009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아동패널 제1차 심층조사보고서이다.

사업보고서와 기초분석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에디팅에 소요되는 1여년 정도의 시간으로 인하여 당해년도 조사내용 및 조사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와 당해 연도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이 동일한 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보고서에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와 전년도의 기초분석보고서가 같이 수록되기에는 내용파악에 혼돈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데이터의 방대함에 따른 기초분석보고 내용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와 전년도 기초분석보고서를 분리해서 발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협의되었다. 다음으로 한국아동패널 제1차 심층조사보고서는 전년도 12월에 조사가 완료되었고, 그 내용은 일반조사와는 다른 내용과 절차들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별개의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아동패널 관련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 <표 I-5-1>와 같다.

<표 I-5-1> 보고서 구성 및 내용

보고서	구성 및 내용
사업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장으로 구성. - 1장.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아동패널 2010의 연구 내용 및 방법, 선행연구, 보고서 구성 - 2장. 한국아동패널의 개요로서 진행 경과 및 현황, 표본 구축, 가중치 작성 및 추정 - 3장. 한국아동패널 내용 및 조사방법 - 4장. 향후 추진 계획 - 5장. 부록(한국아동패널 2010 브로슈어, 2010년 부가조사 질문지, 1차년도 일반조사 도구 프로파일)
기초분석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장으로 구성. - 1장. 2차년도 일반조사 자료의 분석 개요로서, 분석주제별 변인 구성과 표본특성 - 2장. 2차년도 일반조사 자료의 기초분석 내용 (일반적 특성, 아동 발달 특성, 부모됨의 특성, 육아지원 관련 특성) - 3장. 부록(2차년도 기초분석 질문지)

보고서	구성 및 내용
심층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부로 구성. - 1부. 심층조사의 실시 방법과 현황, 일반 조사대상과 심층 조사 대상의 특성 비교. - 2부. 심층조사에서 수집된 변인과 1차년도 일반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연동 데이터를 통한 소논문 6편. - 3부. 부록(심층조사 대상자 신청화면, 부모 안내문(심층조사), 심층 조사 결과 보고서)

II. 한국아동패널 개요

1. 한국아동패널 진행경과 및 현황

가. 전체 연구기간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2006년 모형개발, 2007년 예비조사를 거쳐 2008년부터 1차년도 조사가 실시되었다. 전체 조사기간은 2008년에서 2020년이며 2015년까지는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는 2017년과 2020년에 각각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나. 조사 대상

모집단은 2008년에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제주도 제외)이며, 표본은 2008년 4월부터 8월 중에 전국에서 표집된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2,078명의 신생아 가구이다.

표본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추출하였다. 전국 의료기관 중 연간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의료기관을 1차 추출단위로 활용하였으며, 2006년도 분만 건수를 기준으로 전국을 6개 권역별(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로 층을 나누어 권역별 표본수를 비례배정하였다.¹⁴⁾

다. 조사 진행 현황

한국아동패널은 2006년도부터 기초적인 준비를 통해 2008년도에 표본을 구축하였다. 2006년에는 향후 다년간 추진될 장기종단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한국아동패널의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모형에서 계획된 표본설계와 조사방법을 확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2008년에는 1차년도 일반조사를 시작하여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을 구축하였다.

2009년도에는 2차년도 일반조사와 더불어 일부 패널을 대상으로 제1차 심층조사

14)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설계는 한국조사연구학회에 용역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이후 2007년도 예비조사를 거쳐 확정된 것임.

를 실시하였다. 2차년도 일반조사는 총 1,904명의 패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심층조사는 전체 표본의 약 10%인 200명을 목표로 220명을 심층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총 206명을 완료하였다.

2010년도 현재 3차년도 일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2010년에 출생한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은 아래 <표 II-1-1>과 같다.

<표 II-1-1> 한국아동패널의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

연도	주요 사업	주요 내용
2006	• 한국아동패널 모형 개발	- 아동패널조사 모형 개발의 기초 탐색 - 조사설계 - 표본설계 - 조사영역 및 항목 1차 선정
2007	• 예비조사 실시	- 한국아동패널 표본설계 확정 - 1차년도 조사내용 및 도구 확정 - 1차년도 연구방법 확정
2008	• 1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 표본구축 (2,078 신생아 및 가구) - 1차년도 일반조사 질문지 확정 및 CAPI 프로그램 개발 - 1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 1차년도 자료구축 사전 작업 - 2차년도 조사 준비
2009	• 2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 제1차 심층조사 실시	- 1차년도 자료 처리 및 기초분석 - 2차년도 일반조사 질문지 확정 및 CAPI 프로그램 개발 - 2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 제1차 심층조사 대상자 모집 - 제1차 심층조사 실시
2010	• 3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 2010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실시	- 2차년도 자료 처리 및 기초분석 - 3차년도 일반조사 질문지 확정 및 CAPI 프로그램 개발 - 3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 2010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질문지 확정 - 2010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조사원 교육 - 2010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실시

라. 조사 유형 및 시기

조사 유형은 크게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된다. 일반조사는 한국아동패널의 기본 조사로서 패널 아동이 0세부터 7세까지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9세와

12세 때 각각 1회씩 실시하게 된다. 일반조사에는 이동을 둘러싼 주요 환경에 대한 조사 외에 아동의 발달 결과를 측정하는 검사(항목)가 포함되며, 이러한 검사 문항들은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관련 문항들이 매년 수정될 예정이다.

심층조사는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실시하는데, 전체 연구기간 내 총 3회(대상아동이 15세, 4세, 초등학교 1학년 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심층조사는 표집 대상의 약 10%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심층적 자료 수집을 위해 관찰, 검사, 면담 등 폭넓은 조사방법이 이용될 예정이며, 1차 심층조사가 2009년에 실시되어 완료되었다.

〈표 II-1-2〉 한국아동패널의 연도별 조사 실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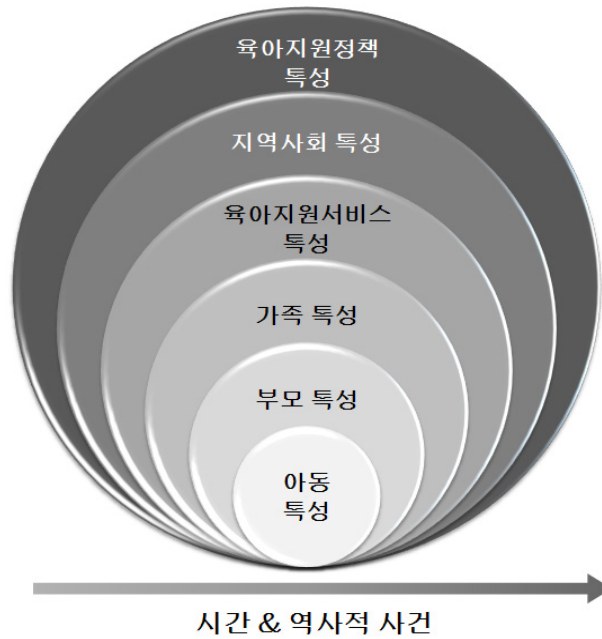
	일반조사										심층조사	비고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초등1)	9세 (초등3)	12세 (초등6)			
2008년	1차												조사 완료
2009년		2차										1차	
2010년			3차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2011년				4차									
2012년					5차								2차
2013년						6차							
2014년							7차						
2015년								8차					3차
2017년									9차				
2020년											10차		

마. 조사 내용

한국아동패널은 Bronfenbrenner(1979, 1989)의 생태학이론과 Elder(1998, 2006)의 생애이론을 이론적인 틀로 삼아, 발달하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으로 유목화하여 조사 영역을 조직하였다.

조사 영역은 출생 후 지속되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발달영역별 아동특성과 아동

을 둘러싼 주요 환경으로 밝혀진 부모, 가족 및 육아지원 서비스의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또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위해 각 아동과 가족이 속한 지역사회와 국가수준의 거시적인 체계를 연구의 영역으로 포함하였다(그림 II-1-1 참조).



[그림 II-1-1]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영역

바. 조사 방법

일반조사의 경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와 아동에 대한 발달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설문조사는 질문지를 이용한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한다. 가구방문 면접조사는 CAPI 방식으로 조사 대상 아동의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 주양육자에 해당하는 어머니 외의 다른 성인 가구원이 응답할 수 있으나, 대상 아동과 동일 가구 거주자이더라도 비혈연 관계(예: 유급 비혈연 육아 도우미 등)인 가구원은 응답자에서 제외된다. 우편조사는 가구방문 면접조사에 앞서 각 가구에 우편 발송한 후, 조사원이 면접조사를 위해 각 가구를 방문할 때 취합하는 유치조사 방식을 활용한다.

위의 두 가지 연구방법을 기본으로 조사 대상 또는 조사 변인 등에 따라 전화조사 등을 병행한다. 대상 아동의 발달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는 가구방문 시 면접 조사와 함께 실시한다. 심층조사의 경우 표본의 10%에 해당하는 아동의 여러 발달 영역 및 주요 환경 특성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2. 표본 구축

가. 표본추출 개요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표본이 추출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신생아 분만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을 추출하였다.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인 의료기관 추출을 위해 2006년도 연간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의료기관 명부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였다. 2006년 분만건수를 기준으로 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의 6개 권역별로 층을 나누었으며 각 층 내에서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 계통추출(systematic sampling)법을 적용하여 30개 의료기관을 추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표본으로 추출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및 그의 부모(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예비표본을 추출하였다. 2차 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에 해당하는 신생아 가구를 추출하기 위해 표본으로 추출된 30개 의료기관을 2008년 4~8월 중 해당 기관 모두 3개월 동안 방문하였으며, 의료기관 방문 시 산모를 대상으로 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 참여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 2,562가구로 예비표본을 구축하였다¹⁵⁾.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작성된 예비표본 명부에 포함된 2,562가구 중 본 조사 참여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최종 2,078가구의 신생아가구로 최종 패널을 구축하였다.

15) 병원 모집기간 내 구축된 예비표본은 2,561가구였으나, 본조사 기간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모집 기간 내 출생한 패널이 추가됨에 따라 최종 예비표본 2,562가구로 수정되었음.

1) 1단계 표본추출과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 명부를 활용하여 연간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틀을 작성한 결과, 서울권 49개, 경인권 74개, 충청/강원권 32개, 경북권 28개, 경남권 46개, 전라권 31개로 총 260개 의료기관이 표본 추출틀에 포함되었다.

표본크기는 2006년 연간 분만건수를 근거로 3개월간 방문 시 예상되는 분만건수를 추정하였고, 이 수치를 기초로 권역별로 최종 추출해야 하는 예비표본 가구 수와 표본 가구 수를 배정하였다(표 II-2-1 참조).

권역별 표본배분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우선 2006년도 전체 분만건수 대비 권역별 연간 분만건수를 최종 목표 표본 가구 수인 2,000가구를 기준으로 권역별로 비례 배정하고, 최종 목표 표본 가구 수인 2,000가구를 50% 초과하는 3,000명의 신생아 가구를 예비표본으로 구축하였다. 표본의 각 의료기관을 3개월 동안 매주 2회 방문 시, 전체 산모 중 60%정도를 접촉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 중 약 55%를 최종 표본으로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비표본 가구 수를 산출하고, 목표 예비표본 가구 수와 병원 당 예상 참여 가구 수를 기준으로 표본 의료기관수를 총 30개원으로 결정하였다. 의료기관 표본은 표본 추출틀인 의료기관 명부에서 30개 의료기관을 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하였다.

〈표 II-2-1〉 권역별 표본 배정

단위: 개원, 건, 가구

권역	해당 의료기관 수	연간 분만건수	3개월간 예상 분만건수	목표 표본 가구 수	목표 예비표본 가구 수	의료기관당 3개월간 예상 분만건수	의료기관당 예상 참여 가구 수	표본 의료기관 수
서울권	49	71,301	17,825	450	674	364	120	6
경인권	74	95,065	23,766	599	899	321	106	8
충청/강원권	32	30,933	7,733	195	293	242	80	4
경북권	28	34,868	8,717	220	330	311	103	3
경남권	46	50,682	12,671	320	479	275	91	5
전라권	31	34,318	8,580	216	325	277	91	4
계	260	317,167	79,292	2,000	3,000	1,790	591	30

주: 2006년 연간 분만건수 기준 자료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2) 2단계 표본추출 과정

의료기관 방문조사는 조사원이 각 의료기관별로 4~8월 중 3개월간 주당 2회, 총 24회를 방문하여 예비표본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예비표본에 해당하는 가구는 '병원용 질문지'를 이용한 간략한 구조화된 면접조사를 완료한 가구이다.

한편 의료기관에서 신생아가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조사 참여를 거부한 가구 및 다음의 특성에 해당하는 가구는 예비표본 명부에서 제외하였다.

- 산모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 산모가 한국어로 의사소통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산후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경우
- 신생아가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산모가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신생아가 입양 예정인 경우
- 신생아가 다태아인 경우

의료기관 방문조사를 통해 구축된 예비표본 가구 수는 총 2,574가구였으나, 1개월 후 전화조사에서 13사례가 탈락하여 예비표본에서 제외되고 1가구가 추가됨에 따라 최종 2,562가구가 예비표본으로 구축되었다. 참고로 제외된 사례의 이유로는 아기의 사망, 입양, 모자 건강상의 이유, 가족 이민 등이 보고되었다.

이는 당초 목표로 한 3,000가구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예비표본은 표본 2,000가구를 추출하기 위해 준비과정이란 점을 고려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2단계 표본추출과정을 종료하였다.

3) 3단계 표본추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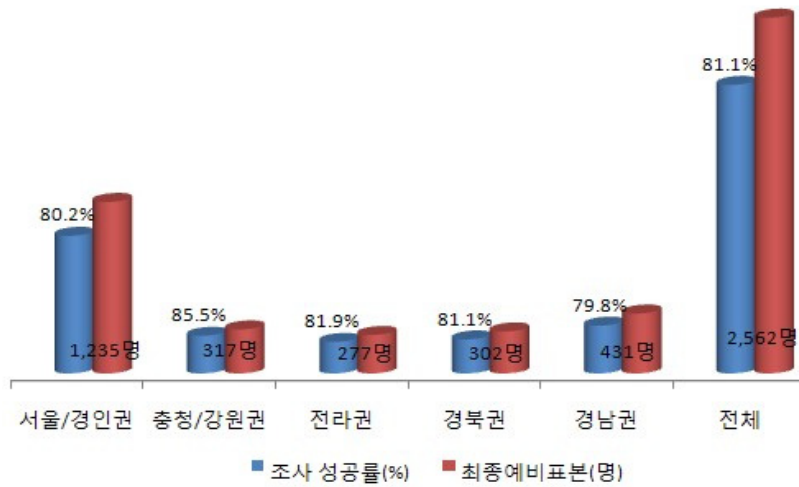
구축된 예비표본 2,562명을 대상으로 2008년 8월 25일부터 가구방문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진행과정 중 예비표본의 거절률이 매우 높고, 예비표본의 추적률은 매우 낮으며, 표본 사정에 의한 가구방문 일정의 지연¹⁶⁾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예정된 12월말까지 2,000가구의 패널 구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기간을 목표 표본인 2,000가구를 달성할 때까지

16) 조사 대상 아동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아픈 경우, 아동의 어머니가 가구방문 일정을 잇는 경우 등이 주요 이유임.

로 연장하고, 강력 방문 거절 가구를 대상으로는 '거부가구용 질문지'¹⁷⁾를 우편발송하는 것으로 조사 설계상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나중에 조사가 이루어진 패널의 경우, 원래 예정보다 조사대상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발달검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원 훈련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발달검사를 시행한 시점이 아동마다 차이가 생겼다.

4) 표본 구축 현황

표본에 해당하는 가구는 1차년도 조사에서 사용된 8종의 질문지 중 면접용 질문지 또는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중 하나를 응답하고, 2종의 발달검사 중 하나를 완료한 가구이다. 표본 구축은 목표표본인 2,000가구를 달성하기 위해 2009년 2월 말까지 지속되었으며, 최종 2,078명의 조사가 완료되어 최초 구축된 예비표본 2,562명 가운데 81.1%가 표본으로 구축되었다(그림 II-2-1 참조).



[그림 II-2-1] 권역별 표본 구축 현황

17) 거부가구용 질문지는 방문조사를 강력히 거절하는 가구 대상 우편조사를 위해 면접용 질문지, 가구원대상 질문지, 위탁가구원대상 질문지의 주요 문항들을 통합하여 재구성한 것임. 따라서 일반조사 문항의 간략본 형태라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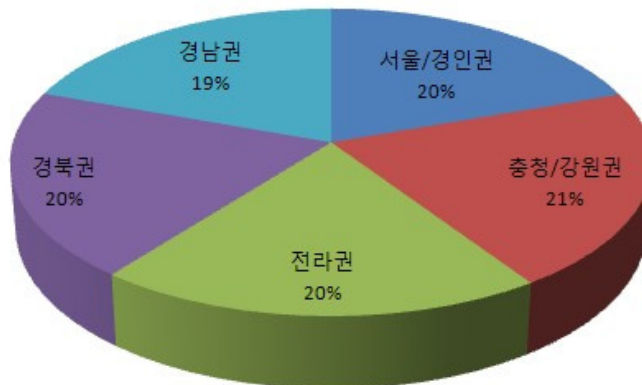
〈표 II-2-2〉 권역별 표본 구축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서울/경인권	충청/강원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계
전체 패널	1,235	317	277	302	431	2,562
조사 성공	991	271	227	245	344	2,078
진행률	80.2	85.5	81.9	81.1	79.8	81.1
비율	20	21	20	20	19	100.0

주: 서울/경인권의 경우 의료기관 표본은 서울권과 경인권이 분리되어 배정되었으나 실사과정에서 통합되어 진행되었음.

표본을 권역별로 보면 경남권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며(79.8%), 충청/강원권(85.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80% 이상 완료되었다(그림 II-2-2 참조).



[그림 II-2-2] 권역별 참여율

조사방법별로는 원래 조사 설계상 계획되었던 CAPI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표본이 89.7%이며, 우편 또는 전화조사를 통해 구축된 표본이 10.3%이었다.¹⁸⁾

18) 우편 및 전화조사에 의한 가구로는 거부가구대상 질문지에 응답한 가구에 해당함. 단, 이들 가구도 병원용 질문지와 전화조사용 질문지는 그 외 가구와 동일하게 응답하였음.

〈표 II-2-3〉 조사방법별 표본 구축 현황

단위: 명, %

조사방법	서울/경인권	충청/강원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계	
전체	991	271	227	245	344	2,078	
CAPI	빈도	871	265	195	233	300	1,864
	비율	87.9	97.8	85.9	95.1	87.2	89.7
우편 (전화포함)	빈도	120	6	32	12	44	214
	비율	12.1	2.2	14.1	4.9	12.8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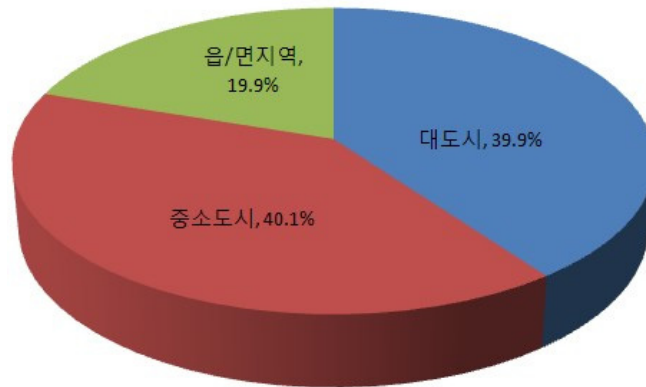
주: 서울/경인권의 경우 의료기관 표본은 서울권과 경인권이 분리되어 배정되었으나 실사과정에서 통합되어 진행되었음.

지역규모별로는 구축된 패널의 39.9%가 대도시, 41.1%가 중소도시, 19.9%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 조사 진행률은 대도시 77.4%, 중소도시 84.8%, 읍면 지역이 81.7%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지역의 참여율이 가장 낮았다.

〈표 II-2-4〉 지역규모별 표본 구축 현황

단위: 명,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계
전체 패널	1,072	983	507	2,562
조사 성공	830	834	414	2,078
진행률	77.4	84.8	81.7	81.1
비율	39.9	40.1	19.9	100.0



[그림 II-2-3] 권역별 참여율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설계 당시 분만건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형병원을 예비표본 모집 기관으로 선정함에 따라 표본의 대표성 중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또는 읍면지역 거주 가구의 비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했으나, 전체 패널의 60%가 중소도시 또는 읍면지역 거주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패널의 대도시 편중현상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전국의 157개 시군¹⁹⁾ 중 107개 시군에서 표본이 추출되어, 표본이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표본 유지율

1) 조사 성공률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2,078명 중 3차년도 조사를 완료한 패널 수는 총 1,802명이며, 이 중 발달검사는 덴버 II는 1,688명, K-ASQ는 1,707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2차년도 대비 3차년도 조사 성공률은 약 94.6%로, 1차년도 대비 2차년도 조사 성공률 91.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1차년도 대비 3차년도 조사 성공률 86.2%였다. 예비표본 대비 3차년도 조사 성공률은 86.7%이다.

〈표 II-2-5〉 패널 조사 거절 이유

단위: %(명)

조사 거절이유	2차년도	3차년도
그냥 귀찮아서	49.2(217)	37.6(164)
조사에 응할 시간이 없어서	17.2(76)	34.6(151)
매년 이렇게 연락오는 것이 싫어서(지겨워서)	8.8(39)	13.8(60)
조사(또는 조사원)에 대해 믿을 수가 없어서	0.2(1)	0.5(2)
남편, 시부모님 등 가족들이 싫어해서	2.0(9)	3.2(14)
아동의 컨디션(건강)이 나빠서	0.5(2)	0.7(3)
집안 상황이 좋지 않아서	0.9(4)	2.3(10)
기타(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외국 체류 등)	21.1(93)	7.3(32)
계	100.0(441)	100.0(436)

조사에 응하지 않은 패널을 대상으로 거절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냥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2차년도에 49.2%, 3차년도에 37.6%로 가장 많았지만, '조사에 응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의 비율은 2차년도 조사에 비해 3차년도 조사에서 34.6%로

19) 표본설계에서 제외된 제주도의 시군은 제외된 개수임.

높게 나타났다(표 II-2-5 참조).

2) 표본 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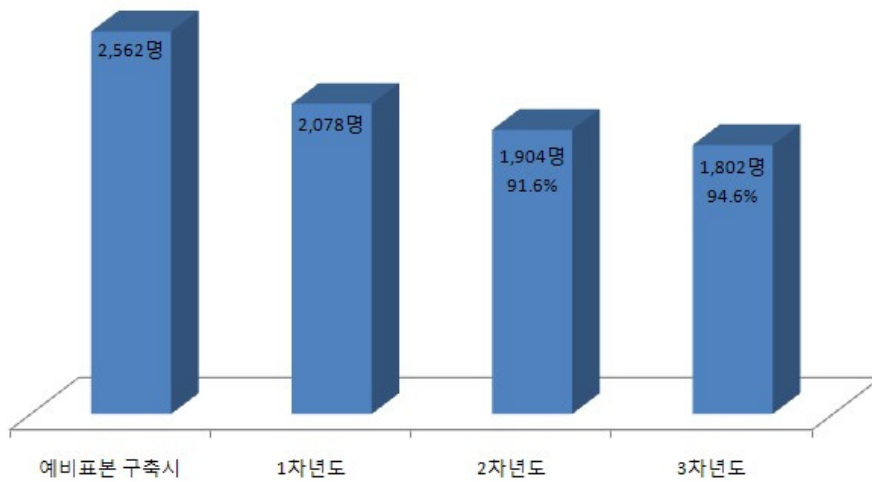
병원조사 시 구축했던 예비표본 2,562명 중 1차년도 조사를 완료한 패널은 2,078명, 2차년도 조사를 완료한 패널은 1,904명, 3차년도 조사를 완료한 패널은 1,802명으로 예비표본의 70.0%가 3차년도 조사 결과 유지되었다(표 II-2-6 참조).

〈표 II-2-6〉 1차년도 및 2·3차년도 패널의 표본 유지율

단위: 명, %

조사년도	참여패널 수	예비표본 대비 유지율	전년 대비 유지율
예비표본 구축 시	2,562	-	-
1차년도	2,078	81.1	-
2차년도	1,904	74.3	91.6
3차년도	1,802	70.0	94.6

주: 예비표본 중 2차년도에 52가구 3차년도에 20가구가 포함됨.



[그림 II-2-4] 연도별 참여패널 수 및 전년 대비 유지율

3. 가중치 작성 및 추정

가. 가중치 부여방법

한국아동패널의 경우 의료기관을 집락으로 사용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에 의해 표본이 구축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에서 얻어진 표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산출된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과정을 통해 적절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복합표본 설계된 조사의 가중치는 ① 설계 가중치, ② 무응답에 따른 가중치 조정, ③ 사후층화에 의한 가중치 보정 등 세 가지 요인을 종합하여 산정된다. 특히 아동패널과 같이 매년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패널조사(panel survey)에서는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 중 2차 웨이브(wave) 이후에 무응답이 발생하거나 패널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표본이 마모(sample attrition)됨으로써 표본 구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연구대상 모집단에도 매년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패널조사 자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무응답 조정 및 사후층화를 통한 가중치 보정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도 추출확률에 따른 설계가중치를 기초로 무응답 조정 및 사후층화 조정 등을 고려한 1차년도 가중치를 산출하여 이미 제공하였으며, 2009년도 2차년도 조사가 수행됨에 따라 2009년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추가로 작성되었다.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가 매년 수행됨에 따라 각 웨이브(wave)별로 가중치 보정 과정을 통해 이론적으로 타당한 가중치를 작성해 자료 분석에 적용하는 것을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1) 설계가중치 산출

추출단위인 신생아 가구에 대한 설계가중치는 표본설계에서 1차 추출단위인 의료기관 추출확률과 표본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가구 추출에 따른 추출확률을 종합하여 산출하였다. 결과적으로 1차년도 조사에서 h 층의 i 번째 의료기관에서 추출된 j 번째 표본 신생아(가구)에 대한 설계가중치(w_{hij})는 다음과 같다.

$$w_{hij} = \frac{N_h}{n_h} \times \frac{M_{hi}}{m_{hi}}$$

- N_h : h번째 층의 모집단 의료기관 수
 M_{hi} : h번째 층 j번째 의료기관에서 (모집기간 중) 총 신생아 분만건수
 n_h : h번째 층의 표본 의료기관 수
 m_{hi} : h번째 층 j번째 의료기관에서 추출된 표본 신생아가구 수

위 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계가중치의 계산을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별로 모집기간 중 태어난 신생아 분만건수를 파악해야 한다. 한국아동패널의 예비표본은 2008년 4~8월 중에 태어난 신생아들로 구축되었으나, 본 패널의 모집단은 2008년에 태어난 신생아 전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의료기관별 2008년 분만건수를 기준으로 설계가중치를 산출했다.

단, 원래 표본으로 추출된 의료기관들 중 3개 의료기관은 산모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비협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사 도중에 인근 유사 의료기관으로 대체되었고, 이 경우 원래 추출된 의료기관에서 모집된 산모도 대체된 의료기관에서 모집된 것으로 간주하여 추출확률에 따른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조사가 중단된 의료기관에서 구축된 패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 추출확률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지나치게 작아짐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에서 모집된 산모의 경우 '1/병원 내 추출확률'로 부여되는 가중치가 극단적인 값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때, 대체된 의료기관은 같은 지역 내 위치한 유사한 성격의 의료기관이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가중치를 산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아동패널의 경우 1차년도 표본에서 조사가 완료된 표본 신생아가구 수와 모집단 분만 건수를 기준으로 제시된 방식으로 계산한 가중치를 사용했다. 표본 신생아가구 추출과정에서는 원래 표본설계에서 의도한 병원별 표본 신생아 수 등이 실사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일부 변경되었고, 패널구축과정에서는 무응답의 경우 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 패널가구에 대해서는 설계가중치를 산출하면서 실사과정에서 발생한 응답거절 등에 따른 가중치 조정(weight adjustment)이 이미 설계가중치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1차년도 가중치 작성

제시된 설계가중치는 각 표본 의료기관에서 패널 모집기간 동안의 신생아만을 대상으로 표본 신생아 추출확률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표본 자료를 기초로 각종 평균 추정에 있어서는 제시된 가중치 적용에 문제가 없지만, 모집단 총계 추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시된 가중치를 일부 조정(연간 분만건수를 반영한 상수를 산출하여 곱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의 2008년도 출생아수 지역별 확정자료를 기준으로 해당년도 전체 출생아의 지역별·성별 구성비를 반영한 가중치를 산출하여 사후추정(post-stratification) 방식에 의한 가중치 보정과정을 적용하였다.

전국의 지역별 출생아수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별로 사용되었으며, 패널 아동의 출생 당시 거주지는 패널 모집기간에 의료기관에서 받은 패널의 집주소를 기준으로 하였다. 출생 당시 집주소가 누락된 일부 사례는 병원 주소를 기준으로 출생 당시 거주지로 간주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추출확률에 따른 설계가중치에 지역별·성별 구성비를 고려한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제시한 방식에 따라 산출된 2008년도 가중치를 요약하면 <표 II-3-1>과 같다. 2008년 최종 가중치의 평균은 211.87, 표준편차는 121.22이고 최소값은 37.71, 최대값은 819.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 1차년도 최종 가중치 부여 결과(2008년 자료 기준)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최소값	최대값
사례별 가중치	211.87	121.22	2078	37.71	819.14

3) 2차년도 가중치 보정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 주기(wave)가 진행되면서 표본 마모가 누적되는 동시에 무응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결함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2차년도부터는 무응답 및 표본마모(sampling attrition) 등에 따른 편향(bias)을 보정할 수 있는 무응답 보정 및 사후가중치 조정 방법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2009년) 조사결과 패널 가구 응답여부에 따른 분포는 <표 II-3-2>와 같다. 1차년도 원 패널 2,078가구 중에서 2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1,852가구로 1차년도 패널 기준 원 패널 표본 유지율은 89.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널 구축 당시 예비 표본 중 1차년도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2차년도에 새로 52가구가 한국아동패널에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2차년도에는 최종적으로 1,904가구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다. 1차년도와 2차년도 응답 현황을 비교해 보면, 권역별로는 서울, 부산/울산/경남, 경기/인천 순서로 표본 탈락률이 높았으며, 어머니가 취업(또는 학업) 중인 경우 표본 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원 표본 패널 유지율, 권역별 패널 유실률 및 지역규모별 패널 유실률은 <표 II-2-6>, <표 II-2-7>, <표 II-2-8>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II-3-2> 2차년도 아동패널가구 응답여부 가구 분포

구분	2009년 참여 여부	2010년 참여 여부	가구수	비율(%)
원패널-조사성공	○	○	1,852	86.95
원패널-탈락가구	○	X	226	10.61
2차년도 신규참여	-	○	52	2.44
합 계	-	-	2,130	100.00

2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작업은 2차년도에 조사가 완료된 원 패널 표본 조사 성공 가구 1,852가구와 2차년도 신규 참여 가구 52가구를 포함한 전체 1904가구가 우리나라 2008년 신생아 가구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최종 가중치는 1차년도 패널 중 2차년도 무응답(226가구)에 따른 무응답 가중치 보정 후, 통계청의 2009년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벤치마킹하는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과정을 통해 최종 가중치를 하였다.

우선 1차년도 패널 가구의 조사누락으로 인한 편향(bias)을 줄이기 위한 무응답 가중치 보정을 위해, 조사 자료에 나타난 가구/어머니 특성을 고려한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을 구성해 무응답에 따른 가중치 보정 작업을 수행했다. 한국아동패널의 경우 패널 크기가 크지 않아 응답률 예측모형을 직접 사용하는 무응답 가중치 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모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응답 조정 계급을 이용한 무응답 가중치 보정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가구/어머니 특성에 따른 응답률 분석을 위해 2차년도(2009년) 응답여부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2008년 조사 변수들 중 가구 및 조사대상자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거주지, 성별, 어머니 취업여부, 아동출생순위, 어머니 최종학력, 어머니 연령, 월 평균가구소득)을 독립 변수로 사용한 로지스틱모형을 기초로 응답률에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를 통계적인 변수선택방법을 통해 추출했다. 모형 적합을 위해서는 2차년도 응답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8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로지스틱 분석결과 거주지, 출생순위, 어머니 취업여부 등이 패널 가구의 응답률에 영향을 많이 주는 유의적인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은 거주지를 나타내는 5개 권역, 출생순위를 나타내는 2개 범주(첫째 아동 & 둘째이상 아동), 어머니 취업여부를 나타내는 2개 범주를 기준으로 20개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고 각 계급 내에서 가중응답률(weighted response rate)을 산출한 후, 이 값의 역수를 무응답 조정 상수로 사용하여 해당 계급내의 응답 가구 가구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무응답 가중치 조정 작업을 수행했다. 참고로 무응답 조정 계급 구성 과정에서 거주지를 권역으로 묶고, 출생순위를 세분화하지 않은 것은 안정적인 무응답 가중치 조정을 위해 각 계급에 포함되는 가구의 수를 최소한 30가구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응답에 따른 가중치 조정 후, 한국아동패널의 최종 가중치는 통계청의 2009년 주민등록인구 자료에서 권역별로 1세 남/여 아동수와 한국아동패널의 해당 범주별 표본 가중치의 합이 일치하도록 벤치마킹하는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가중치 보정 과정을 통해 최종 2009년 횡단면 가중치를 산출했다.

제시한 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산출된 2009년 한국아동패널 가중치 현황을 요약해 보면 <표 II-3-3>과 같다. 최종 가중치의 평균은 240.92, 표준편차는 134.83, 최소값은 29.71, 최대값은 774.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3> 2차년도 최종 가중치 부여 결과 (2009년 자료 기준)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최소값	최대값
사례별 가중치	240.92	134.83	1904	29.71	774.49

나. 모수추정

한국아동패널에서 각종 모집단에 대한 평균(또는 비율)은 표본가중평균(標本加重平均)을 이용하여 추정하며, 표본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y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w \dots}$$

w_{hij} : 각 표본 신생아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

y_{hij} : 각 조사대상 가구에서 얻은 각종 조사 변수에 대한 관측치들

$w \dots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모든 표본 가구에 대한 가중치의 합

패널조사의 경우 횡단면(cross-sectional) 가중치와 함께 종단면 분석(longitudinal analysis)을 위한 가중치가 별도로 필요하지만, 한국아동패널의 경우 아직 종단면 분석을 할 수준으로 연도별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 분석용 자료에는 2008년, 2009년 횡단면 가중치만을 조사자료와 함께 제공하기로 한다.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2008년 조사가 완료된 2,078가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2008년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해야 하고, 2009년 조사 완료된 1,904가구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2009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신생아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통계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Ⅲ. 한국아동패널의 내용 및 조사방법

1. 1·2·3차년도 일반조사

가. 한국아동패널 일반조사의 내용

1) 개요

한국아동패널의 조사영역은 아동특성, 부모특성, 가족특성,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육아지원정책 특성의 6가지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일반조사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1차년도 조사를 위해 구성된 설문 내용을 기초로 1년 단위로 조사가 거듭될 때마다 패널인 대상 아동의 연령 증가, 아동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 등 변화 요인을 참작하여 부적절한 설문 항목의 삭제 및 필요한 문항의 추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병원 조사가 실시되었던 1차년도 조사에서는 임신·출산 관련 특성이 포함되었으나 2차년도 조사에서는 이러한 문항은 삭제되었고,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에 관한 특성과 육아지원 정책에 관한 문항들은 추가되었다. 2010년도에 실시된 3차년도 조사에서는 아동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교육 관련 문항, 육아지원 정책 관련 문항들이 추가되었다. 또한, 아동에 대한 발달검사인 K-ASQ와 한국형 덴버Ⅱ, 기질 및 기초생활습관 등의 척도들은 매년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적절한 문항으로 교체되었다.

1차년도 대비 2, 3차년도에 걸쳐 문항의 조사 변인 변경에 따른 개요를 다음 <표 Ⅲ-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Ⅲ-1-1> 2008-2009 일반조사 문항의 변경사항

영역	2차년도(2009년도) 문항 변경	3차년도(2010년도) 문항변경
아동특성	병력, 장애,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유전병 추가 / 산모신장, 체중, 재태기간, 분만형태, 출산 후 접촉 삭제	아동의 놀이와 사회적 활동, 낮잠·밤잠 습관, 아동의 하루 중 많이 하는 활동 추가 / 아동의 두위 삭제

영역	2차년도(2009년도) 문항 변경	3차년도(2010년도) 문항변경
부모특성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 사람 추가 / 임신 및 출산관련 느낌 현재 임신의 계획 여부, 부모교육 (교육여부, 교육내용, 교육기관) 삭제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시간, 취업모의 휴직사유, 취업모의 휴직시기, 재직 중인 취업모의 지난 1년간 휴직여부, 재직 중인 취업모의 지난 1년간 휴직사유, 재직 중인 취업모의 지난 1년간 휴직기간, 재학 중인 학업모의 지난 1년간 휴학여부, 재학 중인 학업모의 지난 1년간 휴학 이유, 재학 중인 학업모의 지난 1년간 휴학기간 추가 / 어머니의 출산 후 근로복귀시기, 재학 중인 어머니의 학업 복귀시기 삭제
가족특성	가구원의 소득활동 여부, 양육에 대한 비대가성 지원 자원 추가 / 가구원 특성 일부 (국적, 귀화여부, 결혼상태 및 동거여부, 직업, 지위, 근로시간, 종교) 삭제	-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대리양육자 교체횟수, 향후 기관/시설 이용 계획 추가	기관 이용 만족도, 이용하는 보육시설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선택여부, 비용지불여부, 강사, 비용, 이용시간, 특별활동에 대한 만족도, 가정에서 이용하는 영어 학습 자료, 자료의 최초 이용 시기, 영어 학습을 돕는 사람, 자료 구입 또는 이용비용, 자료 이용 시간 추가 / 보육시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삭제
육아지원 정책	유치원/보육시설 무상이용에 따른 향후 자녀출산계획, 양육비용 보조에 따른 향후 자녀출산계획 및 적정 지원 금액 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필요성, 보육시설, 유치원 외 양육에 도움이 되는 지원 수혜 경험(수혜경험 여부, 현금지원 액수, 현물지원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 이용 만족도) 추가

2) 아동 특성

개별 아동 특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 출생순위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의 주요 지표인 체중, 신장 등과 함께 병력, 장애진단 여부, 예방접종 여부 및 횟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표 III-1-2 참조).

또한 연령에 적합한 기초습관과 모유수유 실태, 기질 등의 특성을 조사하는데, 이

들 변인은 1·2차년도에 포함되었으나 3차년도에는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문항이 연령에 적합하도록 수정되었다. 놀이와 사회적 활동에 관한 변인이 3차년도에 추가되었다.

아동 발달 전반에 대한 특성은 표준화된 검사인 한국형 덴버II와 K-ASQ를 사용하여 조사되었다.

〈표 III-1-2〉 아동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

영역	변인	항목	도구명	비고
개인 특성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출생순위		
	건강 특성	체중, 신장, 두위		두위 삭제
		예방접종	국가필수 예방접종표 (보건복지부, 2007)	연령에 맞게 추가됨
		모유수유		전년도 조사 시 모유수유 중으로 응답한 가구 대상
발달 특성	발달 전반 I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K-ASQ ¹⁾	연령에 맞게 문항이 수정됨
	발달 전반II	개인사회성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한국형 덴버 II	
	기질	정서성, 활동성	EAS Temperament Survey ²⁾ (Buss et al., 1984)	
일과 활동 특성	기초 습관	수면, 수유(식습관), 배변/씻기	Developmental Profiles: Daily Routines (Allen et al., 2003)	연령에 맞게 문항이 수정됨
		수면	자체 제작	2010년 낮잠, 밤잠 습관에 대한 구체적 문항 추가
	놀이와 사회적 활동	놀이, 사회적 활동	Developmental Profiles: Daily Routines (Allen et al., 2003)	2010년 추가 문항
	일과	하루 중 많이 하는 활동	하루 중 많이 하는 활동 ³⁾	2010년 추가 문항

주: 1) K-ASQ: Korean-Age & Stage Questionnaire.

2) EAS: Emotionality, Activity & Sociability

3) 출처: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2009). 장명림 외

3) 부모 특성

아동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 할 수 있는 부모의 특성 중 직업 변인(취업/취학 상태, 직종, 직위 등)을 포함한 인구학적 변인과 건강 특성(음주, 흡연), 부부 관계 변인(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 양육특성 변인 중 일부(양육신념, 자녀기대 등)는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부모 모두에게 묻는 공통변인 외에 어머니에게만 조사된 어머니의 특성은 개인 심리 특성(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우울)과 향후 출산계획, 추가적인 직업 관련 변인 및 양육특성 변인(양육지식, 양육실제, 양육스트레스 등)이 포함되었고, 아버지 특성은 근로시간 및 양육 참여 정도를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양육특성 변인은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되었다.

2차년도에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고, 아버지 특성에 관한 질문에서 아버지의 출퇴근시간을 묻는 통근시간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3차년도에는 2차년도와 비교해 어머니가 재직 중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라도 지난 1년간의 휴직·휴학 경험에 관한 문항이 추가되었다. 3차년도에는 부모 모두에게 자녀 양육 참여 시간을 묻는 문항도 추가되었다.

변인별 조사항목 및 도구는 <표 III-1-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II-1-3> 부모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

영역	변인	항목	도구명	비고
개인 특성	인구학적 특성	생년월일		부모 모두 응답
		직업, 직위		
		종교, 국적, 귀화 여부		
		결혼상태, 결혼시기		
	건강 특성	음주	보건복지부(2005)	부모 모두 응답
		흡연	FND Test ¹⁾ (Fagerstrom et al., 1991)	
부모됨	향후 출산계획	기대자녀수, 이상자녀수	이삼식 외(2005)	2009년도 추가문항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친 사람		
	부모됨의 태도	자녀 가치	이삼식 외(2005)	부모 모두 응답

영역	변인	항목	도구명	비고	
양육 특성	양육실제	양육스타일	PSQ ²⁾ (Bornstein et al., 1996)		
	양육지식	양육지식	KIDI ³⁾ (MacPhee, 2002)		
	양육신념	양육신념	EVS Foundation(2008) ⁴⁾	부모 모두 응답	
	자녀기대	자녀기대	NWEC(2007) ⁵⁾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김기현 외(1997)		
아버지 특성	자녀양육 참여	양육 참여 시간		부모 모두 응답/ 2010년도 추가문항	
	근로시간	아버지 근로시간			
	통근시간	아버지 통근시간		2009년도 추가문항	
어머니 특성	자녀양육 참여	아버지 양육 참여 정도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Pearlin Self-Efficacy Scale (Pearlin et al., 1981)		
	자이존중감	자이존중감	Rosenberg Self-Esteem Scale (Rosenberg, 1986)		
	우울	우울	K6 (Kessler et al., 2002)		
	직업계획	출산 시 직업·학업 계획			
		출산 후 직업·학업 상태			
	직업특성	휴직여부, 휴직사유, 휴직시기, 재직 중인 취업모의 지난 1년간 휴직여부, 재직 중인 취업모의 지난 1년간 휴직사유, 재직 중인 취업모의 지난 1년간 휴직기간, 근로중단이유, 근로시간, 통근시간, 직업/직무만족도, 향후 직업계획			취업모용, 재직모의 휴직 특성, 휴직모의 휴직 특성 분리, 일부 문항 2010년도 추가
		재학 중인 학업모의 지난 1년간 휴학여부, 재학 중인 학업모의 지난 1년간 휴학이유, 재학 중인 학업모의 지난 1년간 휴학기간, 휴학여부, 휴학시기, 휴학이유, 학업시간, 향후 학업계획, 학업 중단 이유			학업모용, 재학모의 휴학 특성, 휴학모의 휴학 특성 분리, 일부 문항 2010년도 추가
		취업·학업 경험 여부, 중단시기, 중단이유, 향후 직업·학업계획			미학업· 미취업모용

영역	변인	항목	도구명	비고
부부 관계	결혼 만족도	결혼만족도	RKMSS ⁶⁾ (Chung, 2004)	부모 모두 응답
	부부갈등	부부갈등	부부갈등 척도 (Markman et al. 1994)	부모 모두 응답
기타	조사대상 오염	검사결과보고서 조회 여부		조사 후 코딩

- 주: 1) FND test: Fagerstrom's Nicotine Dependence test
 2) PSQ: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3) KIDI: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4) EVS Foundation: European Values Study Foundation
 5) NWECC: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
 6) RKMSS: 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4) 가족 특성

가족특성에는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소득활동 여부, 학력 등이 조사항목에 포함되었으며(표 III-1-4 참조), 특히 대상 아동이 위탁가구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 위탁가구의 가구원에 관한 인구학적 특성도 포함한다. 부모를 제외한 가구원의 종교 및 국적은 1차년도에는 포함되었으나 2차년도 조사부터 제외하였다.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해당하는 소득, 소비, 자산, 부채, 기초생활수급여부 등도 조사항목에 포함되었고, 이밖에 물리적 환경에 해당하는 주택유형 및 소유형태 등도 조사되었다.

가족의 기타 특성에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가족생활사건 등이 포함되었다.

〈표 III-1-4〉 가족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

영역	변인	항목	도구명	비고
개인 특성	가구원별 인구학적 특성	가구구성원 수	김미곤 외(2006)	2010년 가구원 변동 세분화
		가구원 변동 및 사유	서문희 외(2005)	
		성별, 연령, 학년	유한구 외(2005)	
		소득활동 여부	유한구 외(2006)	
		학력	이경상 외(2006)	
		건강특성	이삼식 외(2005)	
		대상아동과의 관계	통계청(2007)	
경제적 특성	가계 경제요소	소득	유한구 외(2006) 통계청(2000, 2006)	
		지출		
		자산		
		부채		

영역	변인	항목	도구명	비고
역사적 특성	가족 생활사건	규범적 사건	FILE ¹⁾ (McCubbin et al., 1982)	
		비규범적 사건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	도구적, 정서적, 여가적, 정보적		
	양육지원	아동양육에 대한 비대가성 지원 자원유무		부모가 주양육자인 경우에 한함.
물리적 환경	주거 특성	주택 유형	서문희 외(2005)	
	주거 안정성	주택 소유형태		
사회보장지원	기초생활수급	기초생활 수급 여부		

주: 1)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5)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에 있어서는 아동의 대리양육 이용과 관련된 제반 특성을 조사하였다(표 III-1-5 참조). 대리양육은 낮 시간 동안 부모 대신 타인이 아동을 주로 돌보는 것으로, 대리양육자는 주중의 낮 시간 동안 부모 대신 아동을 가장 오랜 시간 돌보는 주된 양육자로 정의되었고, 이에 따라 조부모, 기타 친인척의 혈연관계 외에도, 유급·무급 도우미, 보육시설 등의 교사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 특히 보육시설과 같은 기관의 경우는 주중에 해당하는 3일 동안 반나절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만 대리양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포함하였다.

아동의 출생 후 조사 시점까지 이루어졌던 월별 개인대리양육 및 보육시설 이용 현황, 대리양육을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 이유, 이용 중인 대리양육의 유형, 대리양육자(보육시설 포함) 교체 횟수 등을 조사하였다.

개인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는 현재 이용 중인 개인 대리양육자 특성(인구학적 특성, 관계, 알게 된 경로, 거주지 등) 및 대리양육 서비스 특성(이용 기간, 이용시간, 비용, 동거여부, 이용만족도)을 조사하였다.

육아지원기관특성에 관한 내용에서 보육시설 특성에 해당하는 변인들은 주양육자로부터 해당 아동이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이름과 주소에 관한 정보만을 받아서 그것으로부터 보육시설 설립유형, 대상별 유형, 평가인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추적 조사 한 후, 사후코딩을 통해 해당 변인이 생성되었다. 3차년도에는 서울에 위치하는 보육시설의 경우, 서울형 어린이집 여부를 사후에 조사하여 변인으로 생성하도록 하

였다.

육아지원기관 이용 특성에 관하여 2차년도까지는 주 3일 이상 이용 가능한 기관/시설의 경우를 보육시설에만 한정해서 질문하였다. 그러나 3차년도 조사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만 2세 정도의 아동이 주 3일 이상 이용 가능한 기관/시설에 보육시설 외에도 영유아 대상 학원 등이 추가되므로, 보육시설을 포함해 이용 중인 기관의 특성(기관 유형, 입지조건)과 기관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특성(최초 이용 시기, 이용기간, 이용시간, 비용, 등하원 시간, 이용만족도 등)에 관한 내용을 영유아 대상 학원 및 선교원 등을 포함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3차년도에는 육아지원기관에서 이용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선택여부, 비용지불여부, 강사, 비용, 이용시간, 특별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이밖에 대리양육 외의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였다. 대리양육 외의 기타 서비스는 주기적 이용 여부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단, 단위 프로그램 또는 기관을 주 3회 만나질 이상 이용하는 경우는 대리양육으로 간주되므로, 기타 서비스는 주 2회 이하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하였다.²⁰⁾

기타 서비스의 경우 이용 프로그램명과 내용, 장소, 진행 방식,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 기간, 이용비용 및 학습지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3차년도 조사에서는 이와 함께 또한 영유아의 조기 영어 학습 경향을 반영하여 '영어 학습'에 대한 문항이 추가되었다. 학원이나 외부 프로그램 이용을 제외하고 가정에서 하는 영어학습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문항으로서 가정에서 이용하는 영어 학습 자료, 자료의 최초 이용 시기, 영어 학습을 돕는 사람, 자료 구입 또는 이용비용, 자료 이용 시간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기관/시설의 향후 이용계획에 대한 문항을 2차년도 부터 포함하여, 조사시점부터 취학 전까지 향후 육아지원기관을 포함한 각종 기관 및 시설 이용계획을 월별로 답변하도록 하였다. 향후 이용할 계획이 있는 기관/시설의 종류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외에도 유아대상 영어 학원, 놀이학교, 선교원, 예체능 학원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다.

20) 예를 들어 한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로 다른 3개 프로그램을 주 1회씩 이용하는 경우 이용 프로그램은 3개로 코딩되어 기타 서비스에 해당함. 그러나 놀이학교를 주 3회 이용하는 경우는 대리양육에 포함된다.

〈표 III-1-5〉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

영역	변인	항목	비고
주 양육자	육아지원 이용 여부	주양육자	
	육아지원 이용 이유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이유	
		육아지원 서비스별 이용 이유	
개인 대리 양육	개인 대리양육자 특성	인구학적 특성	
		관계, 알게 된 경로	
	개인 대리양육 서비스 특성	이용기간, 이용시간, 바뀐 횟수 이용비용, 동거여부	
		개인대리양육 이용 만족도	
육아지원 기관	보육시설 특성	보육시설 설립유형, 대상별 유형, 평가인증 여부	조사 후 코딩, 2010년 서울형 어린이집 여부 추가
		보육시설 입지조건	
	육아지원기관 이용 특성	이용기간, 이용시간, 바뀐 횟수 이용비용, 등하원 시간, 이용하는 기관(보육시설, 만일체 이상 학원 등)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선택여부, 비용지불여부, 강사, 비용, 이용시간, 특별활동에 대한 만족도	2010년 보육시설 특별활동 프로그램 관련 문항 추가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육아지원기관 외 서비스 유형	이용 프로그램 유형	
	육아지원기관 외 서비스 특성	프로그램명, 진행방식, 프로그램 내용, 장소,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비용, 참여기간	
	가정 내 영어 학습	가정에서 이용하는 영어 학습 자료, 자료의 최초 이용 시기, 영어 학습을 돕는 사람, 자료 구입 또는 이용비용, 자료 이용 시간	2010년도 추가문항임.
기관/시설 이용 계획	향후 이용계획	향후 이용계획	2009년도 추가문항임. 유아대상 영어 학원, 놀이학교, 선교원, 예체능 학원 등 포함.

6) 지역사회 특성

여기서는 가구가 속한 지역사회의 일반적 특성(행정구역, 도시규모, 거주기간), 물

리적 특성(동네 주변환경) 및 육아관련 특성(지역사회에서 양육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역사회 내의 가용 육아지원기관 등)을 살펴보았다(표 III-1-6 참조).

〈표 III-1-6〉 지역사회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

영역	변인	항목	비고
일반적 특성	가구 소재지	시·도	조사 후 코딩
		도시규모	
	거주 기간	주양육자의 현거주지 전입 시기	
물리적 특성	지역사회의 입지적 특성	동네 주변특성	위탁가구대상 질문지에 포함
육아 관련 특성	지역사회 내 가용 육아지원기관	유치원, 보육시설, 기타 기관	
	지역사회의 양육적절성	여가시설, 문화시설, 치안, 안전	

7) 육아지원정책 특성

아동패널에서는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육아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패널가구의 의견을 조사에 포함하였다(표 III-1-7 참조)는데 특히 3차년도 조사에 육아지원 정책 관련 문항이 다수 추가되었다. 3차년도 조사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이 추가되는 정책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수혜가 가능한 정책들이 질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 문항이 추가되었고, 만 2세 아동이 그동안 수혜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 및 제도를 현금 지원/현물지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표 III-1-7〉 육아지원정책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

영역	변인	항목	비고
육아 지원 정책	정책의 방향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2010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필요성 추가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휴가 및 휴직	
		보육지원	
		모성보호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대리 양육 시 가장 중요한 점		

영역	변인	항목	비고
	육아지원 서비스 정책	육아지원 서비스 정책의 방향	취업모용 2010년 전반적 양육지원 경험 (현금지원, 현물지원) 문항 추가
		육아 관련 재정 지원 여부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휴가 및 휴직	
		보육지원	
		모성보호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재정 지원 관련 정책	유치원/보육시설 무상이용에 따른 향후 자녀 출산 계획	
		양육비용 보조에 따른 향후 자녀출산계획 및 적정 지원금액	
		2009년도 추가문항임	

나. 일반 조사 방법

1) 조사 도구

가) 어머니 대상 질문지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대상 아동의 양육 경험,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서 겪는 경험, 인식, 태도 등 어머니 자신만이 응답할 수 있는 내용과 지난 1년 동안 경험했던 사건 등 면접 상황에서 조사원에게 응답하는 것을 꺼릴만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혼, 사별 등으로 새어머니가 주양육자인 경우 새어머니가 응답자가 된 반면, 이혼, 사별 이후 어머니가 가구 내에 없는 경우 아버지 또는 주양육자가 응답 가능하도록 하였다. 단, 주양육자에 해당하는 응답자에 육아도우미 등의 비혈연 피고용인은 제외되었다.

아버지 또는 주양육자가 응답하는 경우, 어머니의 심리특성 등 어머니로서 응답해야 하는 문항은 건너뛰고 주로 아동의 양육 경험 위주로 해당문항만을 응답하도록 질문지를 설계하였다.

나) 아버지 대상 질문지

아버지의 습관 관련 변인과 아버지만의 태도 또는 지각 등이 요구되는 양육관련

변인 및 결혼만족도 변인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 면접조사용 질문지

1차년도 수행 결과 가구원대상 질문지와 위탁가구원대상 질문지²¹⁾는 별도의 질문지로 제작하여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2차년도 면접조사용 질문지부터 1차년도 가구원대상 질문지와 위탁가구원대상 질문지 문항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 아동의 대리양육 이용여부의 핵심 요인이 되는 어머니 취업 또는 학업과 관련된 제반 실태를 파악하는 문항과 각 가구원 및 위탁가구원의 인구학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라) K-ASQ

K-ASQ는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의 5개 영역에 걸쳐 각각 6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한국형 덴버 II

한국형 덴버 II 검사는 개인-사회성 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의 4개 영역에 걸친 문항에 대해 적목, 컵, 공 등의 표준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이상의 조사도구 중 어머니 대상 질문지, 아버지 대상 질문지 및 면접조사용 질문지는 부록 2의 도구프로파일에 수록되어 있다. 부록2에 수록된 도구프로파일은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 보고서인 <한국아동패널 2009>에서 21~22쪽의 일반조사영역에 따라 순서화되어 있다.

2) 조사 방법

가)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면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된다. 면접조사는 조사원이 가구방문을 약속한 시간에 각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용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대

21) 어머니의 취업이나 학업,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대상 아동을 조부모 등의 친지에게 위탁 양육하는 경우, 위탁된 가구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작된 질문지이다.

상 아동의 어머니 또는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CAPI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편조사는 어머니대상 질문지와 아버지대상 질문지를 조사원의 가구방문에 앞서 각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한 후 조사원이 가구 방문일에 수거하는 유치조사방식을 활용하여 수거 한다²²⁾.

우편용 질문지 발송과 함께 한국아동패널 대상 아동의 해당 개월인 25개월 이후 아동의 발달과 그에 적합한 양육 방식을 소개하는 발달 브로슈어(부록 참조)와 한국 아동패널 1차년도 자료 분석 결과가 보도된 신문 보도자료, 3차년도 일반조사를 완수한 패널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경품안내(노트북, 진드기청소기, 아이팟, 자유놀이 이용권, 문화상품권 등으로 구성)에 관한 인쇄물이 발송되었다.

1·2·3차년도에 실시된 설문조사방법의 개요 및 특징을 기 실시된 설문조사방법과 대비하여 살펴 보면 다음의 <표 III-1-8>과 같다. 1차년도에는 병원용 질문지와 전화조사용 질문지가 포함되지만 2차년도부터는 병원방문과 전화조사가 들어가지 않는다.

<표 III-1-8> 한국아동패널 설문조사의 개요

질문지 유형	주응답자	주요 자료 수집 방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고
병원용 질문지	어머니	병원방문 면접조사	✓			
전화조사용 질문지	어머니	전화조사	✓			
어머니대상 질문지	어머니	우편조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 사별 등으로 새어머니가 주양육자인 경우 새어머니가 응답자임. 이혼, 사별 등으로 어머니가 가구 내에 없는 경우 아버지 또는 혈연관계의 주양육자 응답자임.
아버지대상 질문지	아버지	우편조사	✓	✓	✓	
면접조사용 질문지	어머니	가구방문 면접조사	✓	✓	✓	
가구원대상 질문지	어머니	가구방문 면접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조사용 질문지에 포함하여 실시함.

22) 아버지대상 질문지의 경우 1차년도 조사에서는 수거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한 방식의 수거를 허용하였으나, 실제로 어머니대상 질문지 수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부분 수거되었으므로, 기타에서 제외되었음.

질문지 유형	주응답자	주요 자료 수집 방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고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어머니	가구방문 면접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조사용 질문지에 포함하여 실시함. • 대상 아동이 타 가구에 위탁된 경우만 실시함.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어머니	우편/유치/전화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 조사결과, 자료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응답패널의 면접조사 거부 등이 우려되어 2차년도부터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함.

나) 검사

한국아동패널 일반조사에서는 각 년도 조사에서 아동 연령에 맞는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발달 검사가 실시된다. 현재 1·2·3차에 걸쳐 K-ASQ와 한국형 덴버 II의 선별검사 2종이 실시되었고,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검사문항은 해당 연령에 맞게 새롭게 구성되었다.

- K-ASQ: 어머니 또는 주양육자의 자기보고식 응답을 면접용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와 동일하게 조사원이 CAPI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였다.
- 한국형 덴버 II: 훈련된 조사원이 검사지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 아동의 집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종료 후 그 결과를 CAPI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검사 실시 후 3주 내에 각 아동의 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발달검사보고서가 웹 보고서의 형태로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2. 2차년도 심층조사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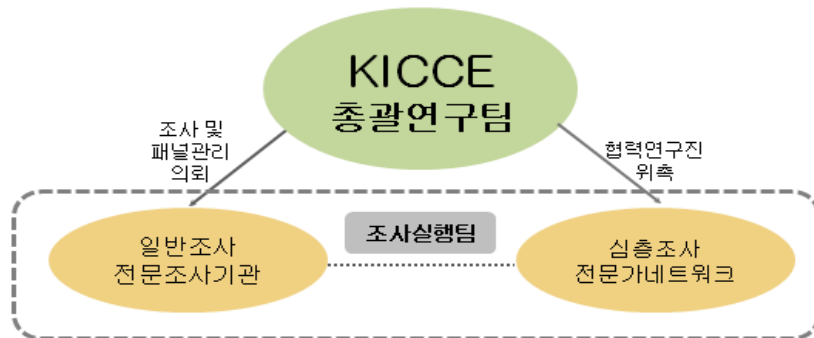
2차년도 조사가 실시되었던 2009년에는 전체 패널 중 일부 사례를 추출하여 아동의 발달에 대해 심층적인 내용을 조사하는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2009년, 2012년, 2015년의 3차례에 걸쳐 심층조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2009년도에는 2차년도 일반조사와 함께 제 1차 심층조사가 실시되었다.

1) 심층조사의 필요성

영아기는 신체 및 운동, 언어, 인지, 사회·정서 등 모든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1년에 한 차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패널 조사로 아동의 발달결과를 포착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다. 따라서 패널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기 위해 동 기간 동안 아동의 발달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한 번 더 추가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체 패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전문성이 보장되는 조사원을 활용한 심층조사 수행을 통해 아동의 발달 상태 및 주변 인적환경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2) 심층조사의 운영 체계

심층조사는 아동의 발달 상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조사와는 달리 전문성을 갖춘 전공자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심층조사를 위해 전국의 주요 권역별로 거점대학의 관련 학과 교수들을 협력연구진으로 위촉하여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거점대학의 전문가 또는 대학원생을 조사원으로 활용하여 수행하였다(그림 III-2-1 참조).



[그림 III-2-1] 한국아동패널 조사 운영 체계도

나. 심층조사 내용

1) 발달 전반

가) 변인 선정 이유

전반적인 발달 수준에 대한 정보를 단일 도구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2차 자료로서의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패널조사의 특성상 필수적이다. 특히 선별검사보다는 진단평가검사에 속하는 도구로, 검사결과 상 발달지수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아동의 발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변인이 요구된다.

나) 선정 도구 및 선정 이유

전반적인 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영아의 각 발달영역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 검사 제2판(Korean-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II: K-BSID II)을 사용하였다.

K-BSID II는 다수의 발달검사 중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검사로서, 한국형으로도 최근 표준화되어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공하는 도구이며, 또한 K-BSID II는 잠재적인 위험군 집단을 발견해주는 선별적인 기능 이외에 개별 아동의 발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 평가 도구이다. 즉, 검사결과 상 발달지수를 제공함으로써 2차 자료의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도구 특성

K-BSID II는 3가지 척도, 즉 인지척도, 동작척도, 행동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척도와 동작척도는 영아의 인지발달, 언어발달, 개인·사회성 발달, 대·소근육 운동발달 수준을 평가하며 행동평정척도는 검사과정 동안 아이의 행동을 평가하여 인지척도와 동작척도의 해석을 용이하게 한다.

2) 애착

가) 변인 선정 이유

애착은 영아기에 중요한 변인 가운데 하나로서, 이후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의 기

저가 된다. 이러한 영아기 애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일반조사에서는 제외되었고, 따라서 심층조사를 통해서 조사되는 것이 요구되었다.

나) 선정 도구 및 선정 이유

개인차를 볼 수 있는 Q-set으로 대표되는 애착유형분류가 Waters와 Deane(1985)에 의해 개발된 이후 낯선 상황 실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 특히 Q-set는 낯선 상황실험과 같이 영아의 애착 안정성에 대한 질적 분류보다는 양적인 개인차를 알고자 하는 상황에 주로 사용되므로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도구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되었다.

다) 도구 특성

Waters(1987)에 의해 개정된 Q-set는 9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해 1점부터 9점까지 분류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각 항목은 특정 영역의 성격, 태도, 행동을 묘사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맥락에서의 행동이나 특정한 행동들을 다루고 있다.

3) 기질

가) 변인 선정 이유

영유아의 기질은 개인의 발달에서 환경과의 적합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특히 영아기는 기질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영아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이 이후 발달 경로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

나) 선정 도구 및 선정 이유

최근 기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Rothbart는 새로운 기질 척도를 고안하였는데, 발달 단계별로 영아기(Infant Behavior Questionnaire: IBQ), 유아기(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ECBQ), 아동기(Children Behavior Questionnaire: CBQ), 성인기(Adult Temperament Questionnaire: ATQ)에 걸친 기질 척도를 개발한 바 있다.

상기 도구 중 IBQ 또는 IBQ-R은 3~12개월 영아에게 사용가능한 것으로 제안되고 있고 ECBQ의 경우는 18~36개월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작된 도구이며,

Rothbart(2006)는 양 도구의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12~18개월 영아의 경우는 ECBQ 사용을 권하고 있다.

본 심층조사의 대상은 2008년 4~8월에 출생한 아동으로 심층조사 시기인 2009년 10월경에는 최소한 12개월이 지난 상태이므로, ECBQ가 사용되었다.

ECBQ는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질 척도라는 점 외에 동일 저자에 의한 척도가 아동기/청소년기/성인기까지 존재하므로 한국아동패널의 아동기 때 이루어질 심층조사 결과에서 기질의 연속성/비연속성을 탐색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선정되었다.

다) 도구 특성

ECBQ는 Putnam, Garstein 및 Rothbart(2006)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질 도구로서 18개의 척도로 구성된 201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18개의 척도는 활동수준(Activity Level/Energy), 주의집중(Attentional Focusing), 주의전환(Attentional Shifting), 밀착성(Cuddliness), 불편감(Discomfort), 두려움(Fear), 분노 좌절(Frustration), 강한 기쁨(High-intensity Pleasure), 충동성(Impulsivity), 억제 통제력(Inhibitory Control), 낮은 기쁨(Low-intensity Pleasure), 활동성(Motor Activation), 지각 민감성(Perceptual Sensitivity), 접근 기대(Positive Anticipation), 슬픔(Sadness), 부끄러움(Shyness), 사회성(Sociability), 반응진정성(Soothability)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어머니 특성

가) 변인 선정 이유

심층조사의 변인으로서 아동의 발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영아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요인으로 어머니 특성이 포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영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데,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특성이 반영되며, 어머니는 영아기에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양육자의 특성이라 여겨지는 성격과 정신병리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검사 내용이 조사에 포함되었다.

나) 선정 도구 및 선정 이유

어머니 특성 중 어머니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성격평가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를 사용하였다. PAI는 Morey(1991)가 제작한 객관형 성격검사로서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총 34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에서는 김영환·김지혜·오상우·임영란·홍상황(2001)에 의해 표준화되었다. 일반적인 성격검사들이 정신 병리를 진단하는 데 유용하고 정상인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는 다소 제한적인 반면 PAI는 두 장면에서 모두 유용하다. 임상장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격검사인 MMPI는 검사가 개발된 지 오래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단체계에 적합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임상적 문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반면, PAI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다) 도구 특성

PAI는 4개의 타당성척도(비일관성척도, 저빈도척도, 부정적 인상척도, 긍정적 인상척도), 11개의 임상척도(신체적 호소, 불안, 불안관련 장애, 우울, 조증, 망상, 정신분열병, 경계선적 특징, 반사회적 특징, 알코올문제, 약물문제 척도), 5개의 치료고려척도(공격성, 자살, 스트레스, 비지지, 치료거부 척도), 2개의 대인관계척도(지배성, 온정성 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다. 심층조사 절차 및 방법

1) 심층조사 대상 선정

심층조사 대상은 2009년 2차년도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완료한 패널 가구 중 200가구로 제한하며, 중도 탈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220명을 선정하였다.

원활한 심층조사 계획을 위하여 200가구를 권역별로 배정하는 심층조사 대상 표본의 수는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2,078가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1차년도에 시행한 K-ASQ와 덴버 II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검사에서 모두 위험군으로 선별된 아동을 심층조사에 우선 참여시키고자 해당 가구에 심층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편지를 보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차 심층조사 수행을 위한 지역별 표본 배분은 다음 <표 III-2-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III-2-1〉 제1차 심층조사 지역별 표본 배분

단위: 명

권역	시/도	1차년도 표본		제1차 심층조사 표본	
수도권	서울	331	993	32	95
	경기	605		58	
	인천	57		5	
충청/강원권	충남	103	240	10	23
	충북	63		6	
	대전	74		7	
	강원	31	31	3	3
경북권	경북	95	240	9	23
	대구	145		14	
경남권	경남	116	348	11	34
	부산	132		13	
	울산	100		10	
전라권	전남	107	226	10	22
	전북	51		5	
	광주	68		7	
계		2,078		200	

심층조사 대상 선정은 2차년도 가구방문조사 완료 가구만을 대상으로 9월 중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http://www.kicce.re.kr/panel>)를 통해 심층조사 신청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이에 앞서 신청 대상자들에게 홈페이지 공지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신청 접수 일정을 공지하였다.

2)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5개 시도 중 심층조사 대상 수 대비 협력연구진에 해당하는 거점대학 수를 확정 후 해당 권역 내 전문가를 확정하였다. 네트워크 구성 전문가는 심층조사 변인 및 도구 자문, 해당학과/센터 내에서의 심층조사 수행 총괄, 해당학과/센터 내에서의 검사자 확정 및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제1차 심층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네트워크로 구성된 지역별 전문가는 다음의 <표 III-2-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III-2-2〉 제1차 심층조사 전문가 네트워크

권역	학교/학과	지역 전문가	비고
서울/경인권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이경옥	
	이화여대 심리학전공	박성연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이완정/양성은	
	충신대학교 유아교육과	허계형	
충청권	한남대 아동복지학과	나중혜	공동연구진
	호서대 유아교육과	조성연	
경북권	경북대 아동가족학과	김춘경	
경남권	부산대 유아교육과	정계숙	
	울산대 아동가정복지전공	박혜원	공동연구진
전라권	전남대 생활환경복지학과	이 숙	공동연구진
	전북대 아동학과	이영환	

주: 강원도는 지역전문가가 지정되지 않음.

3) 심층조사 방법

가) 도구

제1차 심층조사에서는 한국 베일리 영유아발달검사 제2판(Korean-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II: 이하 K-BSID II), 애착 Q-set, ECBQ(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성격평가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이하 PAI)의 네 개 도구를 활용하였다.

나) 자료수집 방법

K-BSID II를 이용한 심층조사는 전문조사원들의 가구방문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사대상자인 아동과 주양육자(어머니)가 검사자 훈련을 거친 전문조사원들이 상주하는 권역별 지정 검사 장소로 내왕하여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단, 권역별 심층조사 대상 배정 시 그 수가 너무 적었던 강원권의 세 가구는 해당 지역이 아닌 전국의 검사 장소 중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선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가구 방문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표 III-2-3〉 제1차 심층조사 도구 및 자료수집 방법

변인	도구	자료수집 방법	비고
발달 전반	K-BSID II	아동 검사	검사실에서 실시
애착	애착 Q-set	어머니 면접	검사실에서 실시
기질	ECBQ	자기보고식 설문	유치조사로 실시
어머니 성격특성	PAI	자기보고식 설문	유치조사로 실시

이와 함께 K-BSID II를 1:1로 검사하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애착 Q-Set를 실시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ECBQ와 PAI는 설문 형식의 검사 방법으로서, 사전에 질문지를 각 심층조사 대상 가구에 발송하여 미리 응답하게 한 후, 검사 당일엔 검사 장소로 올 때 조사대상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유치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3. 3차년도 2010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한국아동패널이 3차년도에 들어서는 2010년도에는 제 3차 일반조사 외에 2010년에 출생한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1회성의 횡단 자료 구축이 추가적으로 계획되었다. 1회성의 횡단 자료 구축이라 함은 이 조사가 한국 아동패널 일반조사의 대체 표본을 구축하기 위한 조사가 아님을 의미한다. 목적과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한 2010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개요

2010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 1,000사례를 대상으로 횡단적인 자료를 구축한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부가조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조사는 출생 시기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 발달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흐름과 부모의 특성 및 태내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횡단적 자료를 구축하여, 2008년도 제 1차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분석된 주요 내용들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한국아동패널 2008’에서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 밝혀진 아동의 특성 및 경향이 이후에 출생한 아동들의 특성 및 추이와 비슷

한지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2009년에 도입 또는 확대 실시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의 인식여부, 이용여부 및 도움 정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도부터 실시되어 온 아동 양육비 지원 정책, 보육료 확대 지원 및 고운맘 카드 지원 등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생아 및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지원 노력들이 2010년에 출생한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탐색한다.

이와 같은 목적 하에 아동의 출생전후 환경, 즉 임신 중 어머니의 신체적·정서적·심리적 특성과 자녀에 대한 태도, 출산 및 임신과 관련한 부모 특성과 인식, 아동의 출생 및 양육에 관련된 사회 정책적 지원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출생 시기에 따른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 발달의 변화의 흐름을 알아보며, 2009년부터 실시되어온 육아지원 정책의 시행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추후의 육아 정책 수립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절한 육아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들의 태내 환경을 조사함으로써 건강한 임신부 지원 방안 모색에 기여하며, 기존 한국아동패널에서 분석된 주요 결과들과 그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아동의 발달과 환경의 변화에 대한 폭넓은 자료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 2010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의 내용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조사에서 수집되는 조사내용은 신생아 특성, 어머니 특성, 임신 및 출산 3영역으로 나누었다. 신생아 특성으로는 출산예정일과 실제출산일, 아동성별, 출생 시 몸무게와 키, 머리둘레, 출생서열 등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특성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임신 및 출산 영역으로 임신계획 여부, 임신에 대한 느낌, 임신을 위해 보조생식술의 도움 여부, 분만 형태 및 과정, 분만 교육 참여 여부 및 교육이수 방법 등 임신관련특성과 출산관련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태교 필요성 인식 여부, 태교 경험 및 태교방법, 태교에 대한 정보 제공, 태교시작 시기, 태교받지 않은 이유 등 태교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임신부들이 생각하고 경험했던 태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임신부의 태내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임신 중 영양 상태, 음주·흡연·출혈·약복용·질병·본인의 입원·환경오염물질에의 노출 등 임신 중 산모의 신체적 건강상태 및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임신부의 정신적 스트레스 경험 여부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고려하여 배우자와의 갈등, 시댁 또는 친

정과의 갈등, 이혼, 실직, 가족의 죽음, 사고, 경제적 어려움 등 임신 중 겪은 사건이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느꼈던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산 후 산모(어머니)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인구학적 특성, 건강특성, 직업계획, 산전 정서 상태에 대해 조사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산모의 출산 직전 한 달 동안 어떤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산전 정서 상태가 대체로 어떠한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산모와 남편이 원했던 아이의 성별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 2008년도 한국아동패널 자료 분석 결과 ‘여아를 남아보다 더 선호한다.’로 보도되었던 내용이 자신의 자녀성별 선호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알아보았다. 또한 추가 자녀출산 계획여부와 추가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이상적인 자녀수,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산모의 건강특성과 함께, 향후 1년 내에 직장 또는 학업에 복귀하거나 시작할 계획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표 III-3-1〉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조사내용: 병원면접용

영역	변인
신생아 특성	인구학적 특성, 건강 특성
임신 및 출산	임신 관련 특성, 출산 관련 특성, 태내 환경, 태교
어머니 특성	인구학적 특성, 건강 특성, 직업계획, 산전 정서 상태

〈표 III-3-2〉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조사내용: 전화조사용

영역	변인
아동 특성	인구학적 특성, 건강 특성, 기질
임신 및 출산	태교, 후속 출산 계획
어머니 특성	인구학적 특성, 부모됨, 양육 효능감, 남편의 양육참여, 우울, 직업계획,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육아지원정책

다. 2010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의 방법

1) 조사대상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조사의 연구 모집단은 2010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출생하는 신생아 가구가 해당된다. 표집은 ‘한국아동패널 2008연구’에서 무선 표집되었던 병원들 중 표집사례수가 15명 미만이었거나 비협조적이었던

기관을 제외하고 '한국아동패널 2008연구'에서 사용하였던 표집 틀을 이용하여 28개의 병원을 선정하였다. 병원별 표본 수는 2008년 구축 예비표본 가구 수의 비율에 의거하여 선정하였다. 해당 병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6개 권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교수진을 협력 연구진으로 섭외하여 해당권역 병원 신생아 산모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표 III-3-3〉 권역별 모집 가구 수와 협력연구진

권역	소재지	명칭	담당자	모집 인원	소계
서울권	광진구	최차혜병원	박성연 (이화여대)	17	160
	양천구	기쁜소식산부인과		15	
	송파구	고은빛 산부인과		22	
	강동구	미즈여성병원		67	
	은평구	인정병원		39	
경인권	시흥시	중앙산부인과의원	신유림 (가톨릭대)	22	125
	인천 남구	삼성산부인과		33	
	이천시	마리나산부인과의원		40	
	성남분당구	분당차여성병원		30	
경인권 (계속)	안양만안구	필산부인과의원	황혜정 (경기대)	17	183
	수원팔달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22	
	의정부	신여성병원		75	
	고양일산동구	동원산부인과의원		69	
충청/ 강원권	대전	가양산부인과	나종혜 (한남대)	46	126
	청주시	모태안여성병원		30	
	천안시	이화여성병원		37	
	강릉시	강릉아산병원	곽혜경 (한중대)	13	
경북권	대구남구	대구가톨릭대학병원	김춘경 (경북대)	20	137
	대구달서구	미즈맘여성병원		82	
	구미시	에바마레산부인과		35	
경남권	부산동구	좋은문화병원	박혜원 (울산대)	27	173
	부산사하구	그레이스여성병원		48	
	진주시	보람산부인과의원		29	
	진주시	가야자모병원		14	
	울산시	인석의료재단보람병원		55	
전라권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이 숙 (전남대)	15	96
	전주완산구	미르산부인과의원		30	
	순천시	현대병원		51	

2) 조사방법

2010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면접조사는 조사원이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을 방문하여, 조사 대상인 신생아 가구의 산모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행하였다. 이 조사는 면접원을 통해 이뤄진 면접조사이므로 면접원간 조사절차 및 조사내용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 4월 23일과 5월 1일에 면접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가 출산 후 입원하여 산후조리 중인 산모이므로 산모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면접절차를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하였다. 면접원은 병원별 담당자와 미리 협의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도록 하였으며, 면접조사이므로 산모나 간호사가 작성하지 않도록 하였다. 단, 조사 참여 거부의를 밝힌 산모에게 조사 진행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함께 입원중인 산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였다. 또한 면접 질문지에 대한 내용과 응답 코딩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면접 후 2일 내에 담당 연구진에게 면접 결과를 코딩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면접 소요시간 또한 함께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4개월 이후 전화조사에 응답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당부하였다.

조사원 교육실시 후, 협력 교수진이 해당권역 병원에 사전 방문하여 협조 요청을 하였다. 그 이후, 4월 말과 8월 초 사이에 면접원이 출산 후 병원에 입원 중인 산모 또는 병원 부속 산후조리원에서 조리 중인 산모를 대상으로 접촉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조사기간은 면접원이 2010년 4월과 8월 사이에 주 2회 병원을 방문하여 조사기간 동안에 출산한 모든 산모를 접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응답기록 방법은 출산한 산모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산모가 직접 기입하지 않도록 했으며, 면접원이 질문지를 읽어주면서 설명해주고 해당되는 답을 면접원이 직접 기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면접 장소는 해당병원의 입원실 또는 산후조리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소요시간은 일인당 약 20~30분이 소요되었다.

두 번째 조사로 면접조사 실시 4개월 후인 9월부터 본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가구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병원에서의 면접조사 실시 후 전화조사를 실시하기 전 4개월 동안 퇴원 축하 메시지를 포함하여 매월 1회 문자를 발송하여 표본 유지율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전화조사를 통해 조사한 문항은 정책내용 인지여부와 수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육아정책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제시한 <표 III-3-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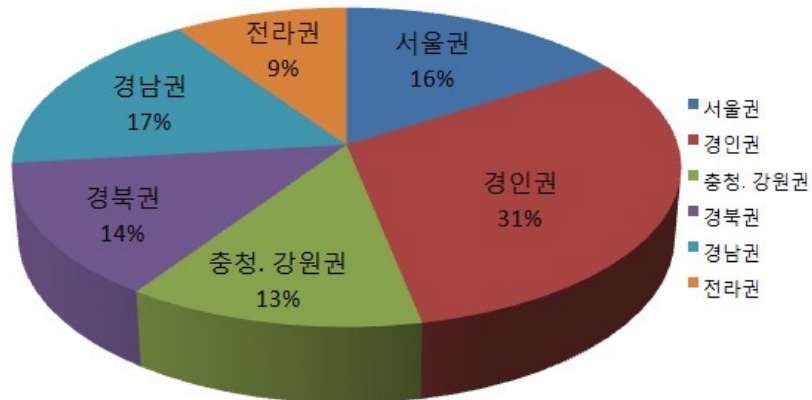
3) 조사현황

2010년 4월부터 8월 초까지 전국 28개 병원의 총 1,000가구의 병원방문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면접 질문지가 모두 수거된 이후, 연구소에서 편칭에러를 검토하였고 병원방문 면접조사 데이터가 구축되었다. 각 권역별 병원방문 면접조사의 월별 조사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III-3-4 참조).

〈표 III-3-4〉 부가조사 월별 진행 현황: 병원조사

단위: 명, %

구분	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	전체	월별 누적 진행률
4, 5월	61	81	45	51	97	20	355	35.5
6월	83	131	49	80	70	66	479	83.4
7월	16	93	25	6	6	10	156	99.0
8월	-	3	7	-	-	-	10	100.0
계	160	308	126	137	173	96	1,000	100.0
표본수	160	308	126	137	173	96	1,000	-
성공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그림 III-3-1] 권역별 부가조사(병원면접용) 성공률

병원조사 시 4개월 이후 실시되는 전화조사에 응해주겠다고 했던 794가구를 위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²³⁾, 총 731명(92.1%)이 조사가 완료되었고, 12월까지 전화조사를 완료하였다(표 III-3-5 참조).

〈표 III-3-5〉 부가조사 월별 진행 현황: 전화조사

단위: 명, %

구분	서울권	경인권	충청/ 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	전체	월별 누적 진행률
9월	17	51	14	21	49	2	154	19.4
10월	12	72	20	19	1	0	124	34.9
11월	58	75	30	19	53	41	276	69.6
12월	40	44	24	15	29	25	177	91.9
계	127	242	88	74	132	68	731	-
표본수	138	282	98	66	137	74	795	-
성공률	92.0	85.8	89.8	112.1	97.1	91.9	91.9	-

23) 병원조사 시 전화조사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에는 전화조사를 시도하였으며, 이에 응하여 조사가 진행된 사례가 일부 포함되었음.

IV. 향후 추진 계획

1. 2011년 주요 연구 내용 및 향후 계획

가. 3차년도 자료 구축 및 기초 분석

2010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3차년도 일반조사가 완료되었다. CAPI로 진행된 본 조사와 달리 사전 우편 발송 후 본조사시 수거했던 어머니용 조사표와 아버지용 조사표에 대한 코딩(사후 코딩) 및 편청과 함께 자료 클리닝 및 에디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3차년도 자료를 구축한다.

또한 3차년도 조사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만 2세 아동의 성장과 발달, 부모, 가족,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및 관련 정책 수혜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 2차년도 자료 처리 및 1·2차년도 종단자료 처리

1) 2차년도 자료 처리

2차년도 자료는 자료 수집이 진행되었던 2009년도에 1차적으로 클리닝을 마쳤으며 2010년도 올해 연구내용 중 하나인 기초분석을 통해 에디팅을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대중에게 공개되는 시점인 2011년까지 2차년도 자료에 대한 보다 더 정교한 에디팅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한편 2차년도 자료는 자료의 무응답 및 표본 마모(sampling attrition) 등에 따른 편향을 보정할 수 있는 무응답 보정 및 사후가중치 조정 방법을 개발하여 2차년도 횡단 가중치 값을 산출하였다.

2) 1·2차년도 종단자료 처리

2011년도의 국제학술대회 및 일반인 공개를 위해 1차년도와 2차년도를 합친 종단 자료에 대한 클리닝 및 에디팅을 실시하였고, 이후 더 정교한 데이터 산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다. 1차년도 자료 공개

2010년도 10월에 개최한 제1차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자를 대상으로 1차로 공개되었던 조사 데이터는 학술대회를 위한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검토를 마치고 코드북, 사용자지침서, 도구 프로파일을 작성하여 2011년 3월 2일경에 일반 사용자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자료 공개는 홈페이지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연구목적으로 사용 시에만 공개된다.

라. 4차년도 조사

3차년도 조사결과 검토 및 아동의 발달단계와 가구구성의 변화를 고려하여 4차년도 질문지 문항을 개발한다. 4차년도는 패널의 대상 아동이 유아기에 진입함에 따라 유치원 입학이 가능해지고, 육아지원기관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더욱 세분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이외에 육아지원기관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내용과 방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기존에 발달검사용으로 사용하였던 K-ASQ와 덴버 II 검사 대신 상대적인 발달 준거를 알 수 있는 유아용 발달도구 실시를 위해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마. 패널관리 및 추적

패널조사의 경우 차수가 거듭될수록 패널의 응답거절 및 추적실패로 인해 패널이 탈락하게 되는 표본마모가 발생하게 된다. 초기 구축된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패널탈락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패널관리 및 추적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사 등으로 연락처가 바뀐 패널이 자발적으로 연락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사례품(아동용 동화책)을 증정하였으며, 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한다. 특히 2010년에는 경품 추첨을 통해 노트북, 진드기청소기, 로봇청소기, 자유놀이 이용권, 상품권 등의 경품이 10월 말경에 전달되었는데, 이후 경품 추첨은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

매년 말에는 연하장 발송과 설 연휴 시점에서 패널 전체에 대한 감사 인사와 4차년도 패널조사에 대한 안내를 담은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이다. 우편물 발송 패널에 대해 전화로 접촉하여 변경된 주소 정보를 갱신할 예정이다.

바.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1년 8월에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히 2011년 8월 10에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미국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교수이며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신 헤크먼 교수님이 기조강연자로 초청될 예정이다.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 2인이 2010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헤크먼 교수님이 주관하는 학회(The Spencer Foundation Conference Series on Individual Differences and Economic Behavior)에 참석하였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 유지율 등에 관한 전반적인 한국아동패널 내용을 영문PPT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하였으며, 시카고대학 경제학 연구소 연구원들과의 간담회 및 헤크먼 교수님과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인 학술 교류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가 수준의 최초 신생아 패널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국제화에 기여한다. 둘째,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는 관련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에게 국제적 교류 활성화 기회 제공 및 국외의 종단연구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출신의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에게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국가 비교연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영유아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양육 및 육아지원 정책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가정, 육아지원 등의 제반 환경적 요인들에 관한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곽금주·성현란·장유경·심희옥·이지연·김수정·배기조(2005). **한국영아발달연구**. 서울: 학지사.
- 김지경·안선영·이계오·이미리·김성식·김명희·박일혁(2009).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VII: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울대학교 아동심리발달 및 성장발육 연구사업단. (n.d.) . **서울대학교 아동 심리발달 및 성장발육 사업**. 저자. <http://snuchild.or.kr/>에서 2010년 7월 5일에 인출.
- 이봉주. (2008).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본 빈곤의 영향: 아동기를 중심으로 (pdf). 2010년 6월28일
- 이봉주·김광혁(2007). 가족빈곤과 가족구조가 아동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영향, **아동 권리연구**, 11(3), pp.333-359.
- 장명림·신나리·박수연(2006). **아동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한국 영아발달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발달지표, 보호요인, 위험요인 탐색에 의한 조기발달 중재모델 개발. 저자. http://ckid.snu.ac.kr/sub_01.php 에서 2010년 7월 5일에 인출.
- http://css.snu.ac.kr/bbs/view.php?id=db_col&page=1&sn1=&divpage=1&category=4&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5 에서 인출
- <http://web.wits.ac.za/Academic/Health/Research/BirthTo20/Home.htm>에서 인출
- <http://www.nlsinfo.org/pub/usersvc/Child-Young-Adult/2006ChildYA-DataUsersGuide.pdf> 에서 인출 2010년 6월 28일
- 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2005). Children of the NLSY79. Author. <http://www.bls.gov/nls/handbook/2005/nlshc4.pdf> 에서 2010년 7월 1일에 인출.
- 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n.d.). NLSY79 Children and Young Adults. Author. <http://www.bls.gov/nls/nlsy79ch.htm> 에서 2010년 7월 1일에 인출.
- Barbarin, O. A. , & Richter L. M. (2001). *Mandela's children: Growing up in*

post-apartheid South Africa. N.Y: Routledge.

Birth to twenty (Bt20). 2010년 7월 5일

National Children's Study. (n.d.). The National Children's Study. Author.
<http://www.nationalchildrensstudy.gov/Pages/default.aspx>에서 2010년 7월 6일에 인출.

National Early Intervention Longitudinal Study (NEILS): A national study of infants, toddlers, and their families receiving early intervention services.
<http://www.sri.com/neils/> 에서 2010년 6월 28일에 인출.

부록

부록 1. 한국아동패널 2010 브로슈어

부록 2. 2010년 부가조사 질문지

부록 3. 1차년도 일반조사 도구 프로파일

부록 1. 한국아동패널 2010 브로슈어

초사: 25개월 이전 영어 흥미요~

과학적 자료수집에 근거한 육아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신생아기부터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정밀한 통계자료는 적절한 육아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직접 가정용 방문해서 아이의 발달경사를 해드립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발달경사가 조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모님이 아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소정의 사례와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육아관련 정보를 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사례와 함께 민중세 양육에 필요한 육아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본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10층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TEL_ 02-398-7713, 7709, 7704, 7707
 FAX_ 02-730-3317, 3319
 E-mail_ panel@kicce.re.kr
 Homepage_ www.kicce.re.kr/panel



25개월 이후
 우리아이의
 발달과 지도는?



한국아동패널은 국제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영아기의 건강한 발달과 높은 육아환경 강화를 위하여 신생아기부터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기초연구입니다.

함께 만드는 건강한 육아환경

25개월 이후 우리아이의 발달과 지도는?

육아정책연구소는 취약 전 영유아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아동패널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신생아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전국단위의 기초 연구입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환경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입니다

아이의 언어가 넘쳐요.
이쪽으로 가기가 싫다나, 뭐 들리서 다른 쪽으로 가고, 집중은 더 못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실 새 없이 움직이는 것은 몸이 튼튼해지고 협응력이 발달하는 과정입니다. 아이와 놀아 줄 때는 뛰기, 구르기 등 몸을 많이 움직이는 놀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일 잡담에서 움직이는 아이, 때문에 엄마와 아이가 지치거나 아이가 가구나 벽에 부딪혀 다치는 것보다, 시간을 정해서 아이를 뛰도록 데리고 나가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해주세요.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에 비해 아직 상상 판단력과 신체 통제력은 덜 발달되었으므로, 항상 아이의 안전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아이의 말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게 돼요.
두 돌이 되면 보통 50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하고 두, 세 단어로 된 문장으로 말하다가, 세 돌쯤에는 네, 다섯 단어로 된 문장을 말하지만 여섯 단어로 된 문장을 말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 시기의 언어 발달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개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아이와 비교하진 않던 겁니다. 이 시기에는 오랜 시간 집중하기 어려우므로 짧은 책, 만화지, 가리키기, 짧은 구절 따라 하기 같은 활동책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 수박씨 먹었어? 큰일났다. 너 이제 배 안에서 수박이 자랄 거야."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아이가 수박을 안 먹어요.
어른이 놀리려고 한 말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는 어떤 말을 들으면 불안해합니다. 이 시기에는 여전히 심리와 환경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물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하므로 간단한 차를, 분류하기 게임, 태깅 같은 장난감 등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돌이 지난 우리 아이, 증상을 수가 없어요.
이 시기의 아이는 어떤 때는 반듯방긋 웃고 기뻐서 완전히 전사가 되겠다. 어떤 때는 이유도 없이 토라지고 입을 내밀고 금방이라도 울려고 합니다. 이런 감정기복은 정상적인 발달의 한 부분으로, 이 나이에겐 감정이 분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세상을 탐색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시도합니다. 이 때 아이의 행동을 재치하면 화기 나서 태를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이가 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계와 규칙을 정해 놓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잘 놀지 못 해서 속상해요.
또래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이 시기의 아이들이 모두 비슷하게 다른 아이들과 잘 놀지 못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 2세 아이들은 자기의 요구와 바람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이가 자기 자신에게 제일 관심이 많으면서도, 놀이는 대부분 모방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엄마가 평소엔 아이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안행에게 아주 똑같이 흉내내는 걸 보게 되기도 하는데, 아이는 어떤 놀이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어떠한지 배우게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부모님이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게 중요하고, 두세 명으로 한 놀이집단(Dyads)에서 아이가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록 2. 2010년 부가조사 질문지



ID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조사**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대상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신생아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기초연구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환경 설계를 위한 육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귀하 개인에 대한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으니, 귀하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10층
 『2010년 출생 아동 가구 조사』 연구팀
 (02-730-7713, 730-7766, 730-7739)

출산 예정일	월 일	실제 출산일	월 일
아동 성별	① 남 ② 여	출생시 몸무게	()kg
출생시 키	()cm	출생 머리둘레	()cm
출생 서열 (해당 아기 포함)	()남 ()녀 ①첫째 ②둘째 ③셋째 ④넷째 ⑤다섯째 이상		

육아정책연구소

다음은 귀하(산모)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사람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반응은 모두 다릅니다. 다음은 이번 임신에 대한 느낌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 부부는 이번 임신을 계획하거나 바라셨습니까?
 ① 아기의 어머니인 나만 계획하거나 바람
 ② 아기의 아버지인 배우자(또는 동거자)만 계획하거나 바람
 ③ 나와 배우자(또는 동거자) 모두 계획하거나 바람
 ④ 나와 배우자(또는 동거자) 모두 계획하거나 바라지 않았음
2. 귀하께서는 이번 임신을 위해 보조생식술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① 아니다(자연임신) ② 배란촉진 / 배란유도 후 임신
 ③ 인공수정 및 시험관 수술 등의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임신
3. 귀하의 분만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자연분만 ② 계획된 제왕절개 ③ 계획되지 않았던 응급 제왕절개
4. 분만 과정에서 다음의 의학적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① 해당사항 없음 ② 유도분만(촉진제 사용, 겸자분만 또는 흡입분만) ③ 무통분만 ④ 기타()
5. 귀하께서는 해당아기를 위한 다음의 분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① 해당사항 없음 6번 문항으로 ② 라마즈 분만 ③ 르바이에 ④ 소프롤로지 분만
 ⑤ 그네 분만 ⑥ 수중 분만 ⑦ 기타()
 5-1. 귀하께서는 분만 교육을 배우자(동거자)분과 같이 받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2. 귀하께서는 분만 교육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① 의료기관 ② 문화센터 ③ 인터넷 동영상 강의 ④ 기타()

다음은 귀하(산모)의 태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6. 귀하께서는 일반적으로 태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거의 필요하지 않음 ③ 필요함 ④ 약간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7. 귀하(산모)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태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문항에 ①로 응답한 경우 8번 문항으로

	전혀 하지 않았	거의 하지 않았	가끔 하였다	자주 하였다	항상 하였다
1) 태담태교(책읽기, 태아에게 말하기 등)	①	②	③	④	⑤
2) 음악태교(음악 감상, 동요 듣고 부르기 등)	①	②	③	④	⑤
3) 음식태교(음식조절, 영양제 섭취, 커피 제한 등)	①	②	③	④	⑤
4) 놀이 또는 활동태교(아기 모습 상상하기, 레고놀이, 공작 등)	①	②	③	④	⑤
5) 시각태교(좋은 그림 보기, 전시회 관람 등)	①	②	③	④	⑤
6) 운동태교(요가, 산책 등)	①	②	③	④	⑤
7) 언행태교(좋은 생각, 말하기, 미워하지 않기 등)	①	②	③	④	⑤
8) 학습태교(외국어, 숫자 공부 등) : _____	①	②	③	④	⑤
9) 심리적 안정(기도, 명상 등)	①	②	③	④	⑤
10) 창작(십자수, 퀵트 등)	①	②	③	④	⑤
11) 기타()	①	②	③	④	⑤

7-1. 귀하께서 주로 태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분)은 어디입니까?

- ① 태교에 관한 책이나 강의 ② 인터넷 ③ TV 등 방송 매체 ④ 배우자(또는 동거자) ⑤ 친정부모님
 ⑥ 시부모님 ⑦ 친인척 ⑧ 의료기관 ⑨ 친구나 이웃 ⑩ 기타()

7-2. 태아에게 태교를 실시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모두 √ 표 해주십시오.

- ① 산모 ② 배우자(또는 동거자) ③ 친정부모님 ④ 시부모님 친인척 ⑥ 친구나 이웃
 ⑦ 기타()

7-3. 태아에게 태교를 시작하신 시기는 언제이십니까?

- ① 결혼 직후부터 ② 임신을 준비하면서부터 ③ 임신사실을 알고 난 직후부터 ④ 태동을 느낀 다음부터
 ⑤ 기타()

7-4. 태아에게 태교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 ☞ 9번 문항으로

- ① 태아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② 태아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③ 태아의 두뇌발달을 위해서
 ④ 태교 내용을 출산 후 태아에게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⑤ 주변 사람들이 권해서
 ⑥ 주변 산모들이 모두 하는 것 같아서 ⑦ 기타()

8. 귀하께서 특별히 태교를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정보가 없어서 ②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③ 시간이 없어서 ④ 귀찮아서
 ⑤ 위 아이에게 해 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⑥ 기타()

다음은 귀하(산모)의 임신 중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9. 귀하(산모)의 임신 중 영양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 ① 정상 ② 과다 ③ 실조

10. 다음의 항목은 어떠하십니까? 아래 왼쪽의 보기 중 해당하는 문항의 정도에 √ 표 해주십시오

1) 출혈(정도)	① 전혀 없었다	② 거의 없었다	③ 약간 있었다	④ 많이 있었다	⑤ 매우 많이 있었다
2) 흡연	①안 피운다	②피운다	☞	주당 _번	주당 _개비
3) (아버지 포함) 주위의 흡연	①안 피운다	②피운다	☞	하루 _번	하루 _개비
4) 음주	①안 마신다	②마신다	☞	한달 _번	평균 _컵
5) 약(물) 복용(의사가 허용한 약물 제외)	①안 하였다	②하였다			
6) 질병(당뇨, 혈압 등)	①없었다	②있었다			
7) 본인의 입원(출산을 위한 입원 제외)	①없었다	②있었다	☞	_ 일	
8) 환경오염물질에의 노출(수은, 납, 방사선 등)	①없었다	②있었다			
9) 기타()					

11. 귀하(산모)의 임신 중 겪은 사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귀하께서 느끼신 스트레스의 정도에 √ 표 해주십시오. ※ 경험 여부에 ② 표시할 경우 스트레스 정도는 체크 필요 없음.

	경험 여부	전혀 느끼지 않았다	별로 느끼지 않았다	보통 이다	약간 느꼈다	많이 느꼈다
1) 배우자(또는 동거자)와의 갈등	①네 ②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친정 혹은 시댁과의 갈등	①네 ②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별거나 이혼	①네 ②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가족의 죽음(동거가족이나 직계가족)	①네 ②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사고	①네 ②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본인 또는 남편의 실직	①네 ②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7) 가족의 병	①네 ②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8) 경제적인 어려움	①네 ②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9) 이사	①네 ②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	①네 ②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산모)의 양육 특성 및 가치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귀하(산모)께서는 출산 직전 한 달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전혀 안 느꼈다	별로 안 느꼈다	종종 느꼈다	대체로 느꼈다	항상 느꼈다
1) 불안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무기력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안절부절 못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매사에 힘이 드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3. 이번 임신 중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또는 동거자)께서 바란, 아이의 성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머니 (본인)	☞	① 남자	② 여자	③ 바라는 성별이 없었음
아버지 (남편)	☞	① 남자	② 여자	③ 바라는 성별이 없었음

14. 최근 자녀 성별 선호도가 남아선호에서 여아선호로 바뀌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네(접한 적이 있음) ☞ 14-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접한 적이 없음) ☞ 15번 문항으로

14-1. 이런 보도를 접한 후, 보도의 내용이 귀하의 자녀 성별 선호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14-2. 어떻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① 네 ☞	보도를 접하기 전	보도를 접한 후
	① 선호 성별 없음	① 선호 성별 없음
	② 남아	② 남아
	③ 여아	③ 여아

② 아니오

다음은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른 식구의 도움 없이 어머니께서만 응답해주시시오.

15.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

- ① 낳겠음 ☞ 15-1번 문항으로 ② 낳지 않겠음 ☞ 15-2번 문항으로

③ 잘 모르겠음 ☞ 16번 문항으로

15-1. 더 낳으실 계획인 경우,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몇 명을 더 계획하고 계십니까?

☞ 16번 문항으로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15-2. 더 낳지 않으실 계획인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자녀 양육 비용 때문에 (아기 관련 생필품, 유급 도우미 비용 등)
- ② 자녀 교육 비용 때문에 (유치원/보육시설/학교 이용비용, 사교육 비용 등)
- ③ 직장/학업 때문에
- ④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 ⑤ 이미 계획한 수 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 ⑥ 나이가 많아서
- ⑦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
- ⑧ 기타 _____

16. 일반적으로 자녀는 몇 명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무자녀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⑥ 5명 이상 ⑦ 잘 모르겠음

17. 자녀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는 부모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태아의 건강 및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8. 다음은 귀하(산모)와 관련된 것입니다. 각 란에 체크 혹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생년 월일	2) 신장	3) 임신직전 체중	4) 출산직전 체중	5) 결혼 상태	6) 결혼 시기
()년()월	()cm	()kg	()kg	①유배우 ②별거 ③이혼 ④사별 ⑤미혼	19__년 __월

19. 귀하께서는 향후 1년 내에 직장 또는 학업에 복귀하거나 시작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없음
- ② 시간제(주당 평균 29시간 미만)로 근무 또는 학업
- ③ 전일제(주당 평균 30시간 이상)로 근무 또는 학업

20. 아기가 출생 후 신생아 입원실이나 집중치료실(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거나 받았습니까?

- ① 아니오
- ② 황달, 설사 등으로 입원실에서 치료
- ③ 집중치료실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

21-1. (첫 아이인 경우) 이 아기를 낳기 전에 임신한 적이 있습니까? ____ 번

21-2. (위 형제가 있는 경우) 위 형제와 이 아기 사이에 임신한 적이 있습니까? ____ 번

▣ 마지막으로, 약 4개월 이후에 있을 전화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신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조사 가능 여부	① 네	② 아니오
------------	-----	-------

☞ 전화 조사가 가능하다면 귀하의 연락처 등 아래 사항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휴대전화 :	-	-
집 전화 :	배우자 휴대전화 :	-	-
이메일 :	퇴원 예정일 :	_____	월 _____ 일
집 주소 :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동/읍/면			
산후조리 장소 : ① 자택 ② 산후조리원 ③ 친정 ④ 시댁 ⑤ 기타(_____)			
산후조리 장소 연락처(유선 또는 핸드폰) :	-	-	
산모 희망 답례품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면접원은 설문종료 후 아래 사항을 작성 하십시오		
면접원 이름 :	조사일시 : _____ 월 _____ 일 _____ 시	소요시간 : _____ 분
병원명 :	병원주소 :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동/읍/면	

부록 3. 1차년도 일반조사 도구 프로파일

구 성

No.	도구명	해당변인	페이지
1	아동의 건강특성	체중, 신장, 두위, 출생 후 건강상태, 예방접종, 모유수유	89
2	임신	산모 신장, 산모 체중, 임신방법, 재태기간	94
3	출산	분만형태, 출산 후 접촉	97
4	K-ASQ	아동 발달특성(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99
5	한국형 Denver II	아동 발달특성 (개인-사회성, 미세운동-적응, 언어, 전체운동)	103
6	EAS 기질척도: 부모용	기질	107
7	기본생활습관 (Developmental Profiles-Daily Routines)	수면, 수유, 배변/씻기	110
8	알코올 사용장애 식별검사(AUDIT)	건강특성(음주)	112
9	니코틴 중독 자가 검사(FND)	건강특성(흡연)	115
10	임신/출산관련특성 (Your Pregnancy)	임신 및 출산 관련 느낌, 계획된 임신 여부	117
11	임신/출산 관련 태도 및 부모교육	기대성별, 기대자녀 수/이상자녀 수, 향후 출산 계획, 부모교육 여부, 내용 및 교육기관	119
12	자녀 가치	부모됨의 태도	122
13	양육스타일(PSQ)	양육실제	124
14	양육지식(KIDI)	양육지식	127
15	양육신념	양육신념	130
16	자녀의 미래기대	자녀의 미래기대	132
17	양육스트레스 척도	양육스트레스	134
18	아버지 특성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137
19	Pearlin 자기 효능감 척도	자기 효능감	139
20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142

No.	도구명	해당변인	페이지
21	Kessler 우울 척도(K6)	우울	145
22	어머니의 취업/학업 특성	*공통:어머니의취업/학업상태,어머니의취업/학업계획 *취업모:휴직여부,근로복귀시기,근로중단이유,직업/직무만족도,향후취업계획 *학업모:휴학여부,휴학시기,학업복귀시기,학업중단이유,향후학업계획 *미취학/미취업모:취업·학업경험여부,중단시기,중단이유,향후직업/학업계획	149
23	결혼만족도(RKMSS)	결혼만족도	153
24	부부갈등 척도	부부갈등	155
25	사회적 지원	도구적, 정서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	158
26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구성원 수, 성별, 연령, 국적, 귀화여부, 결혼상태 및 동거여부, 직업, 직위, 학력, 종교, 건강특성	162
27	가계경제요소	소득, 소비, 자산, 부채	167
28	가족생활사건(FILE)	가족생활사건	169
29	주거 환경 특성	주택 소유형태, 주택 유형	171
30	기초생활수급 여부	사회보장지원 수혜여부	173
31	육아지원 정책 수혜	농어민 가정 육아비, 보육료 지원금, 기타 육아지원 정책 수혜	174
32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주양육자,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이유, 최초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육아지원 서비스별 이용 이유	176
33	개인 대리양육자 및 서비스 특성	개인 대리양육자의 인구학적 특성, 관계 및 알게된 경로, 이용기간, 이용시간, 이용비용, 동거여부, 개인 대리양육 이용만족도	178
34	보육시설 및 서비스 특성	보육시설 유형, 보육시설 입지조건, 보육시설 이용기간, 이용시간 및 이용비용, 등하원 시간, 보육시설 이용만족도, 평가인증 통과 여부	180
35	육아지원기관 외 서비스 유형 및 특성	육아지원기관 외 이용 프로그램 유형,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비용	182
36	최초 대리양육 특성	최초 대리양육 유형 및 최초 대리양육 시작 시기	183
37	지역사회특성 (일반적특성,물리적 특성,육아관련특성)	가구 소재지, 거주기간, 지역사회의 입지적 특성, 지역사회 내 가용 육아지원기관, 지역사회의 양육적절성	184
38	육아지원정책 방향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취업모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186

1. 도구명: 아동의 건강특성

2. 해당 변인: 체중, 신장, 두위, 출생 후 건강상태, 예방접종, 모유수유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체중, 신장, 두위: 체중, 신장 및 두위는 영유아기 발달에 있어 기초적 지표로서,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검사임. 각 아동의 상대적인 신체적 특성은 '신체발육표준치'를 참조하여 체중, 신장, 두위의 백분위(percentile)를 알아볼 수 있으며, '신체발육표준치'를 기초로 제작된 '표준성장곡선'을 참고하여 정상적인 발달 수준 내에 위치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음.
- 출생 후 건강상태: 일반적으로 출생 직후 신생아에 대하여 전반적인 신경계 진단을 위해 목기울기와 척추의 이상을 살피고, 심장, 폐 및 장의 이상을 청각적으로 체크 검사하며, 황달 여부 판별을 위하여 피부색을 진단하는 등의 기초적인 검사를 실시함.²⁴⁾
-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사회적으로 전염병의 유행을 막고 개별 아동 측면에서는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983년부터 예방접종대상 전염병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표준 예방접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질병관리본부, 2005). 또한 예방접종은 보건 측면의 순기능뿐만 아니라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필수적 처치 중 하나인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방임에 해당되므로, 아동권리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의 지표가 될 수 있음(Pinheiro, 2006). 예방접종 누락과 관련한 종단자료 결과 건강상의 문제 이외에도 발달 중인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등)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고됨(보건복지부, 2005).
- 모유수유: 일생을 통하여 성장률이 가장 빠른 시기인 영아기의 건강 및 영양 상태는 이후의 성장발달의 기초가 되고, 정신발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음(Blanc, 1981). 특히, 모유 수유는 영아의 건강 및 영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제

24) 출생 직후 신생아의 위험상태를 알아내는 계량화된 도구로 '아프가 검사(Apgar test)'가 널리 이용되는데, 이는 신생아의 피부색(appearance), 심장박동수(pulse), 반사능력(Grimace), 근육상태(activity), 호흡(respiration)에 대한 5개 반사 작용에 대하여 평정을 통해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것임. 신생아는 생후 1분과 5분, 총 2회에 걸쳐 검사를 받게 되고 각 척도마다 0점, 1점, 2점을 주어 최종점수를 합산함. 7~10점은 정상으로 판단하며, 4~6점은 원활한 호흡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3점 이하의 신생아의 생존이 의심스러운 위급한 상태로 판단하여 집중치료를 받게 됨(조성연, 이정희, 천희영, 심미경, 황혜정, 나중혜, 2010).

시되고 있음(Entwistle, 1991).

4. 도구 출처

- 체중, 신장: 한국아동학회, 한솔교육문화연구원. (2001). **아동발달백서**. 서울: 한솔교육.
- 두위, 출생 후 건강상태: 자체제작
- 예방접종: 질병관리본부.(2005). **표준예방접종일정표**. http://www.cdc.go.kr/webcdc/menu05/l_prevention/l_prevention.jsp 에서 2007년 5월 14일에 인출.
- 모유수유: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도세록, 이건우. (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 체중, 신장, 두위: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및 지필식 자기보고
 - 출생 후 건강상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지필식 자기보고
 - 예방접종: 어머니: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지필식 자기보고
 - 모유수유: 어머니: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또는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 체중, 신장, 두위: 병원용 질문지 2-2)번~2-4)번, 어머니대상 질문지 2~4번
 - 출생 후 건강상태: 어머니대상 질문지 1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1번
 - 예방접종: 어머니대상 질문지 5번
 - 모유수유: 면접조사용 질문지 25~27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6~8번
- 응답자
 - 체중, 신장, 두위: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 출생 후 건강상태: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 예방접종: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 모유수유: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6. 비교

- 체중, 신장, 두위
 - 체중, 신장 및 두위 수치 해석의 기준이 되는 '신체발육표준치'는 성장기의 대상 인구 집단의 통계적 분포를 제시한 것으로서, 1960년대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이후 지난 1998년도까지 10년 주기로 발표되어 왔음. 가장 최근에 발표된 표준치는 지난 2007년 10월 18일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소아과학회가 '2007년도 소아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임(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2007).²⁵⁾ 신체발육표준치 이외에 조사 대상 아동의

25) '신체발육표준치'는 흔히 '성장도표'라고 불리며, 성장 곡선(Growth curve)과 표(Growth table)로 제공됨.

체중, 신장, 두위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세계 표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성장 도표가 있는데, 이 경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각국 상황에 맞게 만든 성장 도표와 개발도상국 등을 중심으로 만든 성장 도표 두 가지가 활용 가능함.

- '신체발육표준치'를 기초로 제작된 '표준성장곡선'은 각 아동의 신장과 체중의 증가상태의 기준이 되는 성장곡선의 패턴과 비교하여 비만 또는 저체중 여부, 성장 이상, 영양 장애 여부 등을 가늠해볼 수 있음. 또한 두위 자료는 '신체발육표준치'를 기준으로 소두증 또는 대두증 등의 뇌발달 이상을 선별할 수 있으며(정희정, 2004), 두개골의 융합이 완전히 끝나는 만 2세까지는 정상 발달의 여부를 측정하는 변인이 됨.
- 각 아동의 체중, 신장, 두위 수치는 원점수 이외에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 가능함. 첫 번째는 체중, 신장, 두위의 원점수를 백분위수로 환산하여 각 아동의 발달수준을 중단적으로 비교할 수 있음. 두 번째는 '신체발육표준치'를 기준으로 체중, 신장, 두위의 원점수가 정상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만을 체크하여 이용될 수 있음. '신체발육표준치'상의 정상은 해당 연령 인구집단의 95.4%(±2×표준편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백분위수로 2.3백분위수~97.7백분위수 범위에 해당함. 전통적으로 3백분위수~97백분위수를 질병 진단의 근거로서 활용하나, 새로운 2007년 성장도표는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상을 5백분위수~95백분위수로 규정하고 있음(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 1차년도에의 경우 체중, 신장, 두위는 2회(출생 직후, 출생 후 4개월)에 걸쳐서 조사됨. 이 중 출생 직후와 출생 후 4개월의 자료는 산부인과 기록 또는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육아수첩 등)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측정된 기록을 토대로 수집함. 대부분 출생 직후의 체중, 신장, 두위 기록은 모자보건수첩에 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정기검진 시 두위와 신장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또한 출생 후 4개월 자료의 경우, 조사 당시 4개월 정기검진을 마치지 않은 경우는 관련 자료가 없음.
- 출생 후 4개월의 체중, 신장, 두위 자료는 4개월을 전후하여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정기검진을 받았을 때의 자료에 해당하므로, 실제 만 4개월의 신체측정 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생 후 건강상태
 - 아프가 검사가 출생 후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신뢰로운 도구이나, 신생아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그 자료의 활용이 용이하지 않음.
 - 출생 직후 신생아 입원실 또는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을 조사함으로써 출생 후 건강상태를 가늠함. 입원실 치료는 일반적인 경증 질병 치료를, 중환자실과 인큐베이터를 모두 포함한 집중치료실

치료는 장애 또는 중증 질병 치료를 의미함.

- 1차년도에만 조사되는 문항으로서, 입원실 또는 집중치료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경우 각 실에서 지낸 일수를 추가로 조사하였음.

• 예방접종

-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필수예방접종 종류를 조사 범위로 하고, 2007년도 더 시행되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서 이용되는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의 예방접종 관련 문항을 이용하여 개별 아동의 예방접종 관련 자료를 수집함.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경우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나 고위험군 아동에게만 접종이 권장되므로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에서 제외되었음. 이에 한국 아동패널에서 기준이 되는 표준예방접종 일정표는 다음과 같음(질병관리본부, 2005).

월령	비씨지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 (디피티)	소아마비 (폴리오)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일본 뇌염	조사년도*
0개월	1회	1차						2008
1개월		2차						
2개월			1차	1차				
4개월			2차	2차				
6개월		3차	3차	3차				2009
12개월					1차	1회	1차, 2차	2010
15개월								
18개월			추가4					2011
24개월								
36개월							3차	
만4세			추가5	추가4	추가2			2014
만6세							추가4	
만11세								2019
만12세			추가6				추가5	N/A

* 해당 조사년도에 예방접종 문항이 포함됨을 의미함.

- 대상 패널의 정기검진을 위한 병원방문일정보다 조사가 앞서서 이루어지는 경우 최종예방접종 관련기록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당해 연도 조사 자료를 이용할 때 주의가 요망됨.
- 단, 조사시점에 해당 월령에 요구되는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추후에 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음. 이 때문에 3차년도 조사 시 모자보건 수첩을 바탕으로 이전 예방접종 기록을 추후 조사하였음. 따라서 1차년도 예방접종 항목에 대한 최종 자료는 3차년도 이후의 자료를 확인하여 사용하는 것이 요구됨.

• 모유수유

- 전국적으로 3년 주기로 수행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

사(김승권 외, 2006)'의 모유수유 관련 문항을 기초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음. 가장 큰 차이점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는 인공유와 혼합하여 모유를 수유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은 반면,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모유수유에 성공하지는 못했더라도 조금씩이나마 모유수유를 먹이면서 모유수유를 시도했던 산모는 수유 시도를 그만둘 때까지를 모유수유 기간으로 보았음. 따라서 며칠에 한번 아주 소량이라도 모유를 수유하는 경우 모유수유 중으로 간주하여 조사하였음.

- 1차년도에의 경우 생후 4개월까지의 경험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주단위로 자료를 수합하였음. 이때 출산 후 모유수유를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면 '0'으로 표시하였음.

7. 참고문헌

-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도세록, 이진우. (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05).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 2005**. 서울: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2007년도 영유아 건강검진 지침: 의사지침서**. 서울: 질병관리본부.
- 정희정. (2004). 소아의 발달장애. **소아과**, 47(2), 131-139.
- 조성연, 이정희, 천희영, 심미경, 황혜정, 나중혜. (2010). **아동발달**. 서울: 신정.
- 질병관리본부. (2005). **표준예방접종일정표**. http://www.cdc.go.kr/webcdc/menu05/1_prevention/1_prevention.jsp 에서 2007년 5월 14일에 인출.
- 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2007).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서울: 저자.
- 한국아동학회, 한솔교육문화연구원. (2001). **아동발달백서**. 서울: 한솔교육.
- Blanc, B. (1981). Biochemical aspect of human milk comparison with bovine milk. *World Review of Nutrition Dietetics*, 36, 1-89.
- Entwistle, F. (1991). The most natural function. *Nursing Times*, 87(18), 25-26.
- Pinheiro, P. S. (2006).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보고서**. 이양희(역).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2006년 원저 발간).

도구 프로파일 2

1. 도구명: 임신
2. 해당 변인: 산모 신장, 산모 체중, 임신방법, 재태기간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산모 신장 및 체중
 - 1990년 Institute of Medicine에서는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에 근거한 임신 중 적정수준의 체중증가를 통해 태아를 보호하고 모체의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 권장량을 제시한 바 있음. 1993년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ACOG)에서도 동일한 안을 채택하여 BMI가 정상인 여성의 경우 임신기간 동안 총 11.4~15.9kg의 체중증가를 권유하고 2, 3분기 동안 1.8kg/4week의 체중 증가를 권고함. 이 권고안을 적용한 여러 외국 연구에서 체중증가가 부족한 경우 조산아 또는 저체중아 출생과 관련이 있었고, 체중증가가 과다한 경우 과체중아 출생, 제왕절개술 빈도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신기간 동안의 산모의 체중 증가 또한 제왕절개술의 빈도, 조산의 빈도, 출생체중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임재희, 김화원, 김영신, 나혜영, 강창성, 박성철, 김영제, 박종규, 2002), 결과적으로 과도한 출생체중으로 인해 신생아의 이후 신체질량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임신방법
 - 최근 불임부부가 증가하면서 각종 호르몬 요법과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녀를 갖길 희망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출생하는 부부도 증가하고 있음.
 - 급증하는 보조생식술 등을 통한 임신과 관련한 연구는 임신 성공률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 영향에 관한 연구 또한 산과적 예후 또는 윤리적인 문제 등에 제한되고 있음.
 - 임신 과정의 경험은 임신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녀에 대한 태도 및 실제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재태기간
 - 조산은 영아사망의 주요 원인으로서, 조산 여부는 아동의 성장기간 중 일어나는 주요 변인임.
 - 조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태아의 성별, 인종, 산모의 신장과 임신 전 체중, 임신횟수, 과거력, 질환, 음주와 흡연, 출생 시 체중, 영양상태, 임신 중 체중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신용

덕, 이태용, 이영수, 이동배, 1994).

4. 도구 출처

- 한국아동학회, 한솔교육문화연구원. (2001). **아동발달백서**. 서울: 한솔교육.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 산모 신장 및 체중: 병원용 질문지 13-1)번~13-3)번
 - 임신방법: 병원용 질문지 3번
 - 재태기간: 병원용 질문지 1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6. 비고

- 임신과 관련한 문항들은 1차년도에만 조사되었음.
- 산모 신장 및 체중
 - 산모 신장과 체중은 원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BMI를 산출할 수도 있음. BMI는 체중(kg)을 신장의 제곱(m²)으로 나눈 값으로, 한국아동패널에서 산모의 신장은 cm 단위로 조사되었으므로 BMI 산출 시에는 단위 변환하여 활용하여야 함.
 - 산모를 대상으로 신장은 1회 조사하였으며, 체중은 임신직전과 출산직전을 각각 2회에 걸쳐 조사하였음.
 - WHO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준을 정상인의 BMI가 18.5미만은 저체중, 18.5~22.9는 정상체중, 23.0이상은 과체중으로 분류함. 특히 과체중에 해당되는 경우, 23.0~24.9는 위험체중, 25.0~29.9는 비만 1단계(중등도 위험군), 30.0이상은 비만 2단계(고도 위험군)로 분류하고 있음 (International Diabetes Institute, 2000).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확립된 임신 중 적정 체중 증가량 권고 기준이 없으며, 일본의 경우 임신 전 BMI가 18.0미만인 산모는 10~12kg, 18.0~24.0인 산모는 7~10kg, BMI 24.0초과인 산모는 5~7kg의 체중 증가가 적절하다고 일본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고 있음.
- 임신방법
 -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호르몬 요법과 보조생식술이 활용됨. 호르몬 요법은 배란 문제인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배란을 유도하는 것임. 대표적으로 구연산 클로미펜 요법과 고나도트로핀(성선자극호르몬) 요법 등을 들 수 있음.
 -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iques, ART)은 임신이 되기 위해 난자와 정자를 함께 가져오는데 이용되는 다양한 의학적인 과정들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용어로, 체외에서 수정된 수정란을 착상할 수 있도록 주입하는 시험관 수술과 정자를 직접 주입해서 수정을 유도하는

세포질 내 정자 주입법(인공수정)이 대표적임.

-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임신 방법을 자연임신 이외에 호르몬 요법과 보조생식술로 크게 구분하여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문항을 개발하였음. 단,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호르몬 요법은 ‘배란촉진/배란유도 후 임신’으로, 보조생식술은 ‘인공수정 및 시험관 수술 등의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임신’으로 설명하여 제시하였음.
- 재태기간
 - 1976년 WHO의 발표에 따르면 조산은 임신 37주 이전 또는 259일 이전에 분만한 경우로 정의함. 이것은 마지막 월경주기의 첫날을 기준으로 출산일까지 임신기간에 해당하는 주수를 의미함(구윤희, 김선권, 심재윤, 원혜성, 이필량, 김암, 2006).
 - 한국아동패널 질문지에서는 출산예정일과 실제출산일을 질문하여 재태기간 변수를 새로 생성하였음. 조산여부는 관련 변인을 계산하여 활용하여야 함.

7.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2006년 상반기 분만현황 분석 보고서**.
- 구윤희, 김선권, 심재윤, 원혜성, 이필량, 김암. (2006). 임상연구: 출생신고에 근거한 전국 조산율의 분석 -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대한산부인과학회지**, 49(9), 1855-1865.
- 신용덕, 이태용, 이영수, 이동배. (1994). 모성 직업활동이 조산과 저체중 출생 및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 **대한산업의학회지**, 6(1), 69-84.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만들기 위원회. (2005).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교육지침서**. 서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임재희, 김화원, 김영신, 나혜영, 강창성, 박성철 외. (2002). 임신 개월별 정상 임신부의 체중증가에 관한 연구. **대한주산회지**, 13(2), 135-140.
- 한국아동학회, 한솔교육문화연구원. (2001). **아동발달백서**. 서울: 한솔교육.
- International Diabetes Institute, World Health Organization Collaborating Centre for the Epidemiology of Diabetes Mellitus and Health Promotion for Noncommunicable Diseases. (2000). *The Asia-Pacific perspective: Redefining obesity and its treatment*. Australia: Health Communications.
- Oken, E., & Gillman, M. W. (2003). Fetal origins of obesity. *Obesity Research*, 11(4), 496-506.

1. 도구명: 출산
2. 해당 변인: 분만형태, 출산 후 접촉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분만형태: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은 2005년 현재 37.1%로, 스웨덴 15.4%(2000년), 프랑스 17.5%(1998년), 영국 22%(2003년), 미국 30.2%(2005년) 등 선진국이나 WHO 권고치(5~15%)를 훨씬 상회함. 제왕절개의 경우 산모의 건강회복이 늦으며, 신생아의 흡인성 증후군(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또는 산모의 요로 외상 등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모유수유 실천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애착관계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 출산 후 아기와의 접촉: 어머니와 영아의 초기 애착 형성에 있어 신생아와의 신체적 접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산욕기 처음 24시간 이내의 신생아의 조기접촉 여부가 산모와 신생아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신생아의 발달에 도움을 주고 모성 발달을 촉진시켜 준다고 알려져 있음(성미혜, 김미경, 2005).
4. 도구 출처
 - 한국아동학회, 한솔교육문화연구원. (2001). **아동발달백서**. 서울: 한솔교육.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 해당질문지 및 문항번호
 - 분만형태: 병원용 질문지 4번
 - 출산 후 접촉: 병원용 질문지 5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6. 비고
 - 분만형태
 - 분만형태에 대한 질문은 한국아동학회와 한솔교육문화연구원(2001)의 분만형태 문항을 산부인과 전문가와 함께 검토 후 수정하여, 문항의 보기를 '정상분만', '계획된 제왕절개', '계획되지 않았던 응급 제왕절개'로 구분하였음. 이 중 계획되지 않았던 응급 제왕절개는 분만에서의 응급상황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분만형태를 의미함.

- 출산 후 아기와 의 접촉
 - 한국아동학회와 한솔교육문화연구원(2001)의 연구에서는 분만 직후에 해당하는 모자간 최초 신체적 접촉 시간을 분만 직후를 1시간 이내로 정의한 바 있음. 한편 모유수유지침의 하나로 생후 30분 내에 젖 물리기를 권장하는 유니세프 기준에 근거하여 자연분만과 경막 외 마취에 의한 제왕절개 분만 후 30분 내에, 전신마취에 의한 제왕절개의 경우 각성 후 30분 내에 아기와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만들기 위원회, 2005), 성미혜와 김미경(2005)의 연구에서도 분만 후 신체접촉을 분만 직후 30분으로 정의하고 있음.
 - 2007년 예비조사 결과 많은 병원에서 분만 후 신체접촉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신마취 산모의 경우 그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는 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며, 마취에서 깬 산모들 또한 각성 후 몇 분 만에 신체접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음. 따라서 정확한 시간을 질문하는 대신 분만 또는 의식이 돌아온 직후 아기를 안아보았는지로 질문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음.

7.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2006년 상반기 분만현황 분석 보고서**.
- 성미혜, 김미경. (2005). 분만 직후 어머니의 신생아 접촉이 모아에착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35(5), 842-849.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만들기 위원회. (2005).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교육지침서**. 서울: 저자.
- 한국아동학회, 한솔교육문화연구원. (2001). **아동발달백서**. 서울: 한솔교육.

1. 도구명: Korean-Ages & Stage Questionnaires(K-ASQ)
2. 해당 변인: 아동 발달특성(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1980년대 미국의 Oregon 대학에서 개발된 ASQ는 4개월에서 60개월의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ASQ와 K-ASQ의 질문지는 총 5가지 발달 영역, 즉 의사소통(communication), 대근육운동(gross motor), 소근육운동(fine motor), 문제해결(problem solving), 개인-사회성(personal-social)에 각 6개씩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유아발달의 제 영역에 대한 자료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수합할 수 있음.
 - 부모가 작성하는 유아 모니터링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질문지가 매우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므로 신뢰성 있는 작성이 용이함. 또한 보호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점수화하는 것이 매우 간단명료하므로 특별한 훈련 없이도 적용할 수 있음.
 - K-ASQ는 원문 ASQ 2판을 한국 실정에 맞게 비교적 최근인 2006년에 표준화하였고(허계형, Squires, J., 이소영, 이준식, 2006), 전국의 영유아 3,220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절전점수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도구임.
4. 도구 출처
 - 허계형, Squires, J., 이소영, 이준식. (2006). **K-ASQ(한국형 Ages & Stages Questionnaires) 부모작성형 유아 모니터링 체계**.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발달검사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 점수화 방식
 - K-ASQ의 5개 영역별 문항에 대하여 부모는 '예(유아가 행동을 수행할 때)', '가끔(행동을 보이기 시작할 때)', '아니오(아직 행동을 수행하지 못할 때)' 세 가지 중 하나로 응답하였으며, '예'는 10점, '가끔'은 5점, '아니오'는 0점으로 점수화되었으며, 5개 영역별로 6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총점을 산출하였음. 이에 총 30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0점~60점임.
 - K-ASQ는 발달선별검사로서, 해당 연령의 전체 영유아 가운데 깊이 있

는 발달의 평가가 필요한 소수의 영유아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즉,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발견하고, 발견된 고위험군 집단에 대해서 발달에 대한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임. 따라서 K-ASQ의 결과는 영역별로 원점수와 함께 각 원점수가 선별의 기준이 되는 영역별 기준의 2표준편차 아래인 경우를 '절선점수 미만 여부'로 별도 코딩하였음.

6. 문항 양호도

- K-ASQ에서는 총 3,220명의 영유아와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표집하여 자료 분석한 결과, 신뢰도는 각 영역 점수로 산출되었음. 그 결과 '의사소통' 영역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40\sim.91$ (평균 = .75), '대근육운동' 영역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57\sim.90$ (평균 = .85), '소근육운동' 영역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42\sim.90$ (평균 = .74), '문제해결' 영역의 경우 Cronbach $\alpha = .41\sim.91$ (평균 = .72), '개인-사회성' 영역의 경우 Cronbach $\alpha = .30\sim.88$ (평균 = .65)이었음.
- K-ASQ의 재검사 신뢰도는 36개월과 48개월을 대상으로 3~4주 간격으로 총 80명에게 재검사를 시행한 후 두 검사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음. 개월별 상관관계수를 보면 36개월은 .78~.88이고, 48개월은 .66~.80이었음.
- 부모가 평가한 K-ASQ의 결과는 공인타당 도구의 시행에 의한 분류와 의사의 장애진단 결과와 비교하여 공인타당도를 산출하였음. 36개월 미만은 한국판 Denver II(신희선, 한정자, 오가실, 오진주, 하미나, 2002)를 이용하였고, 36개월 이상에서 60개월까지는 K-DIAL3(전병운, 조광순, 2003)를 이용하였음. 그 결과 27~60개월 사이의 동의율(percent agreement)이 27개월은 97%, 33개월은 81%, 36개월은 93%, 42개월은 85%, 48개월은 83%, 54개월은 98%, 60개월은 93%로 나타났음.

7. 비교

- K-ASQ의 검사 세트는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7, 30, 33, 36, 42, 48, 54, 60개월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년도의 경우 4, 6, 8개월에 해당하는 검사가 사용됨.
 - 검사를 위해 사용된 연령은 실제 연령에 해당하는 생활연령이 아니라 K-ASQ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재태기간을 고려한 교정연령임. 단, K-ASQ의 교정연령 계산 방식은 Denver-II의 교정연령 계산 방식과 다르며, K-ASQ의 검사지는 월별로 제작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상 아동에 따라 검사별 교정연령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교정연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검사지가 없는 관계로 일괄 4개월용 검사를 활용하였음.
 - 5개월 또는 7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4개월 또는 6개월용 검사지를 활용하거나 6개월 또는 8개월용 검사지를 활용할 수 있음. 1차년도의

경우는 생애 초기에 해당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에 의해 보다 선별될 확률이 낮은 검사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이에 5개월 또는 7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4개월 또는 6개월용 검사지를 활용하였음.

- K-ASQ 검사 점수는 영역별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음.
 - 원문 ASQ 지침서에 따르면, 절선점수에 해당하는 -2표준편차는 분할표 조건부 확률과 ROC 곡선을 사용하여 산출한 분석에 기초하여 권고된 것으로, 부가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1표준편차나 -1.5표준편차를 개별 아동에 대한 기타 정보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음.²⁶⁾
 - ASQ의 경우 전체 점수 수준에서는 개별 아동을 해석하지 않으므로, 한국아동패널 자료 또한 K-ASQ 총점은 변인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원문 ASQ의 지침서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절선점수(-2표준편차)보다 낮은 경우 '의뢰'하고, 절선점수와 일치하는 경우는 '추후검사'를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 이에 영역별 점수와 절선점수 대비 결과를 기초로 '양호', '의뢰', '추후검사'로 구분하여 분석 가능함.²⁷⁾ 단, 도구의 특성상 원점수가 5의 배수이므로 영역별 원점수가 절선점수와 일치하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음. 이에 K-ASQ 지침서에서는 특정 영역에서 절선점수에 근접한 점수를 받은 경우 '추후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연령에 따른 영역별 절선점수 및 추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점수는 다음과 같음.

연령	발달영역	평균	표준편차	-2표준편차 (절선점수)	-1.5표준편차	-1표준편차	추후검사 점수
4개월	의사소통	51.9	8.4	35.1	39.3	43.5	40
	대근육운동	51.0	11.1	28.8	34.4	39.9	30
	소근육운동	45.8	14.0	17.8	24.8	31.8	20
	문제해결	52.9	11.0	30.9	36.4	41.9	35
	개인-사회성	48.6	11.2	26.2	31.8	37.4	30

26) 1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기초분석보고서(조복희, 신나리, 안재진, 이정림, 최윤경, 송신영 외, 2009)에서는 K-ASQ 사용 지침서에 제시되어있는 절선점수(-2표준편차)를 이용한 분석 결과 제공과 더불어 부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아동패널자료의 -1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한 바 있음.

27) 각 영역에서 절선점수(-2표준편차)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부모가 종합판에 염려하는 바를 적은 경우 또한 '추후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침서에 제시되어 있음.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경우 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음.

연령	발달영역	평균	표준편차	-2표준편차 (절선점수)	-1.5표준편차	-1표준편차	추후검사 점수
6개월	의사소통	46.7	8.6	29.5	33.8	38.1	30
	대근육운동	46.5	11.2	24.1	29.7	35.3	25
	소근육운동	46.1	14.2	17.7	24.8	31.9	20
	문제해결	46.6	13.5	19.6	26.4	33.1	20
	개인-사회성	47.3	11.9	23.5	29.5	35.4	25
8개월	의사소통	39.8	12.8	14.2	20.6	27.0	15
	대근육운동	49.0	12.7	23.6	30.0	36.3	25
	소근육운동	48.9	13.2	22.5	29.1	35.7	25
	문제해결	48	10.5	27.0	32.3	37.5	30
	개인-사회성	48.3	11.3	25.7	31.4	37.0	30

- 조사대상 부모가 홈페이지에서 K-ASQ 검사 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음. 이는 패널유지 차원에서 발달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는 필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조사가 실시되는 패널설계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매년 보고받는 것이 검사 대상자인 아동으로 하여금 검사 내용을 학습하게 할 뿐 아니라 어머니 또한 검사에 민감해지는 오염 효과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발달검사 결과보고서 조회 여부를 변인으로 포함하였음.

8. 참고문헌

- 신희선, 한경자, 오가실, 오진주, 하미나. (2002). **한국형 Denver II 검사 지침서**. 서울: 현문사.
- 전병운, 조광순. (2003). **한국판 DIAL-III**. 서울: 특수교육.
- 조복희, 신나리, 안재진, 이정림, 최윤경, 송신영 외. (2009). **한국아동패널 2009**.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허계형, Squires, J., 이소영, 이준식. (2006). **K-ASQ(한국형 Ages & Stages Questionnaires) 부모작성형 유아 모니터링 체계**.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 도구명: 한국형 Denver II
2. 해당 변인: 아동 발달특성(개인-사회성, 미세운동-적응, 언어, 전체운동)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1967년에 처음 미국의 Frankenburg에 의해 DDST(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로 개발되었으며, 1990년에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Denver II 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음.
 - 0세부터 만 6세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임. 특히 한국아동패널의 연구 대상이 되는 가장 어린 연령의 영아인 만 4개월 영아도 사용 가능할 뿐 아니라 대상 영아가 조산아로 출생했을 시 조산 연령을 고려한 발달 검사가 가능함. 또한 동일한 도구로 만 6세까지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임.
 - 주양육자가 아닌 제 3자가 아동의 수행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아동-수행평가(child performance-based evaluation)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부모보고에 의한 자료 수집 도구인 K-ASQ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
 - 다른 검사 도구에 비해 비교적 쉬운 훈련과정을 거치므로 검사자가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도구임.
 - 개인-사회성 발달, 미세운동-적응 발달, 언어 발달 및 전체운동 발달 영역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발달 영역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음.
 - 가장 최근판인 Denver II검사가 2002년도에 국내에서 재표준화 되었으므로 한국아동패널 조사 대상의 상대적인 위치를 판단하기에 적절함.
 - 현재 Denver II검사는 12개국 이상에서 표준화되어 사용 중에 있으므로, 국제적인 연구와 비교가 가능함.
4. 도구 출처
 - 신희선, 한경자, 오가실, 오진주, 하미나. (2002). **한국형 Denver II 검사**. 서울: 현문사.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발달검사
 - 응답자: 훈련된 검사자가 아동의 수행 또는 부모에게 질문한 후 획득한 응답을 바탕으로 채점
 - 점수화 방식
 - 각 항목에 대한 검사자의 결과 표시는 '통과(pass)', '실패(fail)', '기회

없음(no opportunity)' 또는 '거부(refusal)'로 구분됨. 그러나 각 항목은 표준집단 중 해당 항목을 통과한 아동의 비율을 기준으로 '정상(normal)', '주의(caution)' 또는 '지연(delayed)'으로 해석되며, 이 결과를 이용하여 총평에 해당하는 검사 전체 결과를 해석함. 이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항목별 결과 표시를 다음과 같은 코딩체계에 맞추어 세 가지 변인으로 구분하여 코딩됨.

- '항목별 실시 결과' 변인과 '항목별 해석 결과'는 개별 아동이 Denver II 검사를 실시할 때 수행하였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자료가 코딩되어 있으며, '아동별 검사 결과'는 Denver II 검사에 대한 전체 결과로서 개별 아동이 단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음.

항목	코딩값	변수값 설명
항목별 실시 결과	1	통과 & 연령선 미만
	2	통과 & 표준집단 75%~90% 해당
	3	통과 & 표준집단 25%~75% 해당
	4	실패 & 연령선 미만
	5	실패 & 표준집단 75%~90% 해당
	6	실패 & 표준집단 25%~75% 해당
	7	거부 & 연령선 미만
	8	거부 & 표준집단 75%~90% 해당
	9	거부 & 표준집단 25%~75% 해당
	10	기회 없음 & 연령선 미만
	11	기회 없음 & 표준집단 75%~90% 해당
	12	기회 없음 & 표준집단 25%~75% 해당
항목별 해석 결과	1	정상 (‘항목별 실시 결과’ 변인에서 1, 2, 3, 6 또는 9로 코딩된 경우)
	2	주의 (‘항목별 실시 결과’ 변인에서 5 또는 8로 코딩된 경우)
	3	지연 (‘항목별 실시 결과’ 변인에서 4 또는 7로 코딩된 경우)
	4	기회 없음 (‘항목별 실시 결과’ 변인에서 10, 11 또는 12로 코딩된 경우)
아동별 검사 결과	1	정상발달 (‘항목별 실시 결과’ 변인들 중 4 또는 7로 코딩된 항목이 없고, 5 또는 8로 코딩된 항목이 1개 이하인 경우)
	2	의심스런 발달 (‘정상발달’로 코딩되지 않은 그 외의 경우)

6. 비교

- Denver II 검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Denver II 검사는 24개월 이하의 월별로, 그 이후는 3개월 단위로 연령이 구분되어 있음.

- Denver II 검사는 개인-사회성 발달, 미세운동-적응 발달, 언어 발달, 전체운동 발달의 4개 영역에 대해 아동의 교정연령별로 연령에 해당하는 문항과 연령 이전 문항, 연령 이후 문항으로 구성됨. 즉, 각각 표준화 작업을 위한 규준집단의 25%만이 통과한 연령을 하한선으로, 90%가 통과한 연령을 상한선으로 하여, 연령에 따라 영역별로 실시하여야 할 문항을 결정함.
- 원 Denver II 검사는 본래 총 1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표준화된 한국형 Denver II 검사는 문화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11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개인-사회성 발달 영역 22문항,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 27문항, 언어발달 영역 34문항, 운동발달영역 27문항으로 구성됨.
- Denver II 검사와 관련된 변인 사용 시 다음의 사항에 주의가 요구됨.
 - ‘항목별 실시 결과’에서 1로 코딩된 경우는 실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즉, Denver II 검사 실시 요강에 따르면 규준집단 90%이상이 통과한 항목인 연령선 아래 항목은 일차적으로 3개만 실시하도록 하며, 3개를 모두 통과한 경우 그보다 더 쉬운 항목은 실시하지 않고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이에 한국아동패널에서 통과한 항목들 중에는 실제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음.
 - ‘아동별 검사 결과’ 변인은 Denver II 검사 실시 요강에 제시된 검사 결과 해석 방법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 원 Denver II 검사 실시 요강에 따르면 ‘정상발달’과 ‘의심스러운 발달’ 이외에 ‘검사 불능’이 있음. 이는 ‘검사 불능’에 해당하는 아동 중 ‘주의’ 및 ‘지연’ 항목의 원인이 ‘실폐’가 아닌 ‘거부’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주로 임상 맥락에서 사용하는 해석에 해당하며, ‘의심스러운 발달’이라는 해석 결과와 상호배타적으로 코딩이 불가능하므로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검사 불능’을 코딩규칙에 포함하지 않았음. 이에 ‘검사 불능’에 대한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Denver II 검사 실시 요강에 따라 ‘항목별 실시 결과’ 변인을 이용하여 별도로 재코딩이 요구됨.²⁸⁾
 - Denver II 검사 실시 요강에 따르면 ‘항목별 실시 결과 변인’에서 ‘기회 없음’으로 코딩된 경우(항목별 실시 결과 변인=10, 11 또는 12)는 전체 검사 해석 시 고려되지 않음. 따라서 ‘아동별 검사 결과’에서 ‘정상’으로 코딩된 경우(아동별 검사 결과=1)에는 항목을 실제 통과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
- 검사를 위해 사용된 연령은 실제 연령에 해당하는 생활연령이 아니라 Denver II 검사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재태기간을 고려한 교정연령임. 단, Denver II 검사의 교정연령 계산 방식은 K-ASQ의 교정연령 계산 방식과

28) 1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기초분석보고서(조복희 외, 2009)에서는 Denver II 검사의 아동별 결과를 ‘정상’, ‘의심스런 발달’, ‘검사 불능’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바 있음.

다르며, K-ASQ의 검사지는 월별로 제작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상 아동에 따라 검사별 교정연령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원 Denver II 검사지침서에 따르면, 각 항목에 대한 수행 능력은 '정상', '주의', '지연' 외에 '월등(advanced)'으로 항목 해석이 가능함. '월등' 항목은 규준아동의 25%미만만이 수행에 성공한 항목, 즉 연령 이후 항목을 통과하는 것으로서, 선별적인 기능보다는 개별 아동의 최대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에 주로 사용함. 그러나 한국아동패널의 경우 검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개별 아동의 최대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별로 해당하는 항목만을 검사하였으므로, '월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은 실시되지 않았음.
- 조사대상 부모가 홈페이지에서 Denver II 검사 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음. 이는 패널유지 차원에서 발달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는 필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조사가 실시되는 패널설계의 경우, 검사결과를 매년 보고받는 것이 검사 대상자인 아동으로 하여금 검사 내용을 학습하게 할 뿐 아니라 어머니 또한 검사에 민감해지는 오염 효과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발달검사 결과보고서 조회 여부를 변인으로 포함하였음.

7. 참고문헌

- 신희선. (2002). 아동발달 사정-Denver II를 중심으로. **대한아동간호학회지**, 8(4), 482-484.
- 신희선, 한경자, 오가실, 오진주, 하미나. (2002). Denver II 발달검사를 이용한 한국과 미국의 아동발달 비교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1), 89-97.
- 신희선, 한경자, 오가실, 오진주, 하미나. (2002). **한국형 Denver II 검사**. 서울: 현문사.
- 조복희, 신나리, 안재진, 이정림, 최윤경, 송신영 외.(2009). **한국아동패널 2009**.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1. 도구명: EAS 기질척도: 부모용(The EAS -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 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
2. 해당 변인: 기질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기질은 각 아동이 타고난 선천적인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인들 중의 하나로서, 영유아 연구에 필수적인 변인임.
 - 영유아의 기질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타고난 유전적인 성향이 다른 환경적 요인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차를 유발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볼 수 있음.
 - Buss와 Plomin(1984)에 의해 제작된 EAS의 경우, 비교적 문항 수가 적으며, 1세 영아부터 성인기까지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임. 이 중, 부모평정형 EAS는 1세~9세까지 사용 가능한 도구이며, 이 외 교사 평정형 EAS와 성인용 자기보고식 EAS가 개발된 바 있음.
 - 부모평정형 EAS는 네덜란드(Boer & Westenberg, 1994), 독일(Spinath & Angleitner, 1997), 노르웨이(Mathiesen & Tambs, 1999) 등에서 타당화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므로 국제비교가 가능함.
4. 도구 출처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박응임. (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어머니대상 질문지 27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4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10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점~50점임. 단, EAS 중 일부 문항은 역코딩 문항이므로, 점수화 시 재코딩이 요구됨.
 - EAS는 정서성, 활동성 및 사회성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로, 영역별 점수의 총합을 산출하여 사용 가능함.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들을 역으로 채점한 후 영역별로 단순 합계하는 경우, 정서성에서 높은 점수는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냄을 의미하며, 활동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아동은 움직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님을 의미하고, 사회성에서의 높은 점수는 아동이 타인과 잘 어울리며 덜 수줍어함을 의미함. 단, 1차년도에는 사회성 영역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정서성과 활동성 영역에 한해 점수화가 가능함.

문항내용	하위영역	역코딩
1) 우리 아이는 잘 운다.	정서성	
2)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활동성	
3)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정서성	
4) 우리 아이는 활동할 때 대개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다.	활동성	○
5)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다.	활동성	
6)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정서성	
7)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활동성	
8)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정서성	
9) 우리 아이는 활동적인 놀이보다는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	활동성	○
10)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정서성	

6. 비교

- 원 EAS는 정서성, 활동성 및 사회성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각각 5개, 5개, 10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사회성 영역의 경우 1세 미만 영아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1차년도에는 제외하였으며, 삭제된 문항은 아래 표와 같음. 이에 1차년도에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하위 영역은 위의 표와 같음.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 아이는 수줍음을 타는 편이다. 2) 우리 아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3) 우리 아이는 혼자 놀기보다 다른 아이들과 놀기를 좋아한다. 4) 우리 아이는 친구(혹은 사람)를 쉽게 사귀다. 5) 우리 아이는 무엇보다 사람들을 좋아한다. 6) 우리 아이는 사교적이다. 7) 우리 아이는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8)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외톨이인 편이다. 9) 우리 아이는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워한다. 10) 우리 아이는 낯선 이와 잘 친해진다. |
|---|

7. 참고문헌

- 박응임. (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최영희. (1993). 기질과 환경 간의 “조화로운 합치” 모델 검증 연구 (1) : 조화로운 합치정도와 양육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17-226.
- Buss, A. H., & Plomin, R. (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Interscience.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oer, F., & Westenberg, P. M. (1994). The factor structure of the Buss and Plomin EAS Temperament Survey (parental ratings) in a Dutch sampl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2(3), 537-551.
- Goldsmith, H. H., Buss, K. A., & Lemery., K. S. (1997). Toddler and childhood temperament: Expanded content, stronger genetic evidence, new evidence for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81-905.
- Mathiesen, K. S., & Tambs, K. (1999). The EAS Temperament Questionnaire-Factor structure, age trends, reliability, and stability in a Norwegian sampl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0, 431-439.
- Spinath, F. M., & Angleitner, A. (1998). Contrast effects in Buss and Plomin’s EAS Questionnaire: A behavioral-genetic study on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assessed through parental rating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947-963.

도구 프로파일 7

1. 도구명: 기본생활습관(Developmental Profiles-Daily Routines)
2. 해당 변인: 수면, 수유, 배변/씻기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습관은 일정한 행동이 반복되어 주위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형성되어지는 행동의 패턴으로서, 영아기의 기본습관은 이 시기에 몸에 익혀야 할 과업의 하나임. 특히 영아기의 기본습관은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고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따를 수 있기 위해서 지녀야 할 기본생활습관의 기초가 되므로, 영아기 기본습관의 형성은 건강을 유지함과 동시에 자립심과 독립심을 기르는데 기본이 됨. 따라서 영유아기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여부는 청년기와 성인기의 사회적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음(김희진, 이승연, 이승화, 1996; 광노의, 최민수, 김규수, 김경철, 유구종, 1997).
4. 도구 출처
 - Allen. K. E. & Martoz. L. R. (2003). *Developmental profiles: Pre-birth through twelve* (4th ed.). Clifton Park, NY: Delmar Learning.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 해당 질문지 및 문항 번호: 면접조사용 질문지 22~24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13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3점~65점임.
6. 비교
 - Allen과 Martoz(2003)의 원도구는 1~4개월 영아가 완수하여야할 기초과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5점 척도의 문항으로 수정하여 개발하였음.
 - 수면 습관에 관련한 문항은 수면 시간뿐 아니라 취침 전 수유, 잠에 들기 전 행동 등으로 문항이 구성됨.
 - 22-1번 문항에서 취침 전 수유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수유를 의미하며, 밤중 수유를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낮 시간에 비해 비교적 많이 자는 취침시간을 응답하도록 하였음.
 - 22-4번 문항에서 손가락을 빨려는 행동은 협응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위안행동(comforting behavior)의 출현에 관한 것임.

- 수유 습관
 - 23-1번 문항에서 1회 먹는 우유의 양은 약 140~160ml 정도로 추정하도록 함.

7. 참고문헌

- 김희진, 이승연, 이은화. (1996). 기본생활습관 평가척도의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16(2), 161-177.
- 광노의, 최민수, 김규수, 김경철, 유구종. (1997). 유아 기본생활습관 평가 도구 개발. **열린유아교육연구**, 2(2), 139-166.
- Allen. K. E. & Martoz. L. R. (2003). *Developmental profiles: Pre-birth through twelve* (4th ed.). Clifton Park, NY: Delmar Learning.

도구 프로파일 8

1. 도구명: 알코올 사용장애 식별검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2. 해당 변인: 건강특성(음주)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산모의 음주는 저체중아 출산 등 신생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UNICEF & WHO, 2004). 건강상의 영향 이외에도 부모의 만성적인 음주는 문제 행동,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미쳐 가족 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Farrell, Barnes, & Banerjee, 1995; Leonard & Eiden, 2007), 결과적으로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광범위하게 작용할 수 있음(Bennett, Wolin, & Reiss, 1988; Green, MacIntyre, West, & Ecob, 1991; Plant, Orford, & Grant, 1989).
 - 음주는 여러 건강 및 생활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생활습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음주율은 83.3%로 세계 최고 수준임(오명주, 송종임, 박상민, 조비룡, 2009).
 - AUDIT는 WHO에서 개발한 음주문제의 정도 평가 도구로서 음주량 3문항, 음주행태 3문항, 정신-사회학적 문제 유무 4문항,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Babor, Higgins-Biddle, Saunders, & Monteiro, 2001). AUDIT는 비교적 문항 수가 적으며, DSM-IV의 기준이 만성적인 형태의 문제 음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건강하지 못한 음주(unhealthy drinking)를 다루는 초기의 위험성 있는 음주 선별 도구이므로 활용 가치가 더 높음.
 - AUDIT는 김종성, 오미경, 박병강, 이민규, 김갑중, 오장균(1999)에 의해 국내 타당도 연구가 수행되어 한국판 AUDIT의 선별 기준이 마련된 바 있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제3기 조사부터 AUDIT가 사용됨에 따라(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국가수준의 실태조사에서 사용되어 오고 있으므로, 한국판 AUDIT 척도의 일부 문항을 사용하였음.
4. 도구 출처
 - Babor, T. F., Higgins-Biddle, J. C., Saunders, J. B., & Monteiro, M. G. (2001). *AUDIT: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Guidelines for use in primary care)* (2nd ed). Geneva, Switzerland: 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Substance Depende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국민건강 영양조사 제3기(2005)-총괄**. 서울: 저자.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어머니대상 질문지 11~13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7~9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리응답 불가)

6. 비고

- 부모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음.
- 원 AUDIT는 총 10개 문항(음주량 3문항, 음주행태 3문항, 정신-사회학적 문제 유무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에서는 음주량에 대한 1, 2번 문항만 발췌하여 사용하였음. 특히 음주량 문항에 해당하는 3번 문항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제3기 조사표에서 원 AUDIT와 상이하게 번역되어 사용되었으므로, 1차년도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제외되었음.
- 원 AUDIT는 음주 여부에 대한 문항이 별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첫 번째 문항의 보기로 음주 경험 여부를 응답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에서는 평소에 음주를 하나 가족주기상 임신, 출산 등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예상되므로, 음주 여부에 대한 문항을 단독 문항으로 수정, 제작하였음.

7. 참고문헌

- 김종성, 오미경, 박병강, 이민규, 김갑중, 오장균. (1999). 한국에서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AUDIT)를 통한 알코올리즘의 선별 기준. *가정의학회지*, 20(9), 1152-1159.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국민건강 영양조사 제3기(2005)-총괄**. 서울: 저자.
- 오명주, 송종임, 박상민, 조비룡. (2009).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가정의학회지*, 30(11), 64-76.
- Babor, T. F., Higgins-Biddle, J. C., Saunders, J. B., & Monteiro, M. G. (2001). *AUDIT: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Guidelines for use in primary care)* (2nd ed). Geneva, Switzerland: 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Substance Depende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 Bennett, L. A., Wolin, S. J., & Reiss, D. (1988). Cognitive,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among school-age children of alcoholic par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 185-190.
- Farrell, M. P., Barnes, G. M., & Banerjee, S. (1995). Family cohesion as a buffer against the effects of problem-drinking fathers on psychological distress behavior and heavy drinking in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377-385.

- Green, G., MacIntyre, S., West, P., & Ecob, R. (1991). Like parent like child? Associations between drinking and smoking behaviour of parents and their children.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6(6), 745-758.
- Leonard, K. E., & Eiden, R. D. (2007). Marital and family processes in the context of alcohol use and alcohol disorders.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3, 285-310.
- Plant, M. A., Orford, J., & Grant, M. (1989). The effects on children and adolescents of parents' excessive drinking: An international review. *Public Health Reports*, 104(5), 433-442.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Low birthweight: Country, regional and global estimates*. New York: Author.

1. 도구명: 니코틴 중독 자가 검사(Fagerstrom's Nicotine Dependence Test, FND)
2. 해당 변인: 건강특성(흡연)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전통적으로 부모의 흡연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임신부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어 왔음. 즉, 흡연을 하는 임신부의 아기는 저체중인 경향이 있으며(Ong, Preece, Emmett, Ahmed, & Dunger, 2002), 심장 손상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김경희, 2003), 태아의 정상적인 뇌 발달을 저해하여 ADHD 등의 장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신현균, 김진숙, 2000; Thapar, Fowler, Rice, Scourfield, van den Bree, Thomas, Harold, & Hay, 2003).
4. 도구 출처
 - Fagerstrom, K. O., Heatherton, T. F., & Kozlowski, L. T. (1991). Nicotine addiction and its assessment. *Ear, Nose and Throat Journal*, 69, 763-765.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어머니대상 질문지 14~20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문항 10~16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를 다음의 괄호 안의 점수로 채점하여 니코틴 의존도 점수를 산출할 수 있음.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하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5분 이내(3) ② 6-30분 이내(2) ③ 31-60분 이내(1) ④ 한 시간 이후(0) 2) 귀하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참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① 예(1) ② 아니오(0) 3) 하루 중 담배가 가장 맛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① 기상 후 첫 담배(1) ② 그 외의 담배(0) 4) 하루에 담배를 몇 개비 정도 피우십니까?
① 10개비 미만(0) ② 11-20개비(1) ③ 21-30개비(2) ④ 31개비 이상(3) |
|---|

- 5)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피우는 담배가 그 외 시간에 피는 담배보다 더 많습니까?
 ① 예(1) ② 아니오(0)
- 6) 몸이 아파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예(1) ② 아니오(0)

- 가능한 점수 범위는 0점~10점임.
- 산출된 총점은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함.

1~2점: 매우 낮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3~4점: 낮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5점: 중간 수준의 니코틴 중독
 6~7점: 높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8~10점: 매우 높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6. 비고

- 부모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음.
- 원검사의 문항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FND 검사에 앞서서 흡연 여부에 대한 문항을 추가시켜 흡연자만 본 도구에 응답하도록 하여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음.

7. 참고문헌

- 김경희. (2003). 아동심리학. 서울: 박영사.
- 신현균, 김진숙. (2000).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서울: 학지사.
- Fagerstrom, K. O., Heatherton, T. F., & Kozlowski, L. T. (1991). Nicotine addiction and its assessment. *Ear, Nose and Throat Journal*, 69, 763-765.
- Ong, K. K. L., Preece, M. A., Emmett, P. M., Ahmed, M. L., & Dunger, D. B. (2002). Size at birth and early childhood growth in relation to maternal smoking, parity and infant breast-feeding: Longitudinal birth cohort study and analysis. *Pediatric Research*, 52(6), 863-867.
- Thapar, A., Fowler, T., Rice, F., Scourfield, J., van den Bree, M., Thomas, H., Harold, G., & Hay, D. (2003). Maternal smoking during pregnancy an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ymptoms in offspring.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60(11), 1985-1989.

1. 도구명: 임신/출산 관련 특성(Your Pregnancy)
2. 해당 변인: 임신 및 출산 관련 느낌, 계획된 임신 여부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임신 및 출산 관련 느낌: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임신에 대한 계획성 여부에 따라 다름. 이로 인해 영아와 부모의 상호작용과 아동의 사회정서발달과 관련된다고 보고됨(NICHHD, 1999).
 - 계획된 임신 여부: 임신의 계획성 여부와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영아와 부모의 상호작용과 아동의 사회정서발달과 관련된다고 보고됨(NICHHD, 1999). 또한 임신관련계획은 임신초기의 약, 방사선, 알코올, 흡연 등의 노출로부터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출산하는 신생아의 건강상태의 중요한 변인이 됨(문명진, 정진훈, 최준식, 안현경, 류현미, 임하정 외, 2003).
4. 도구 출처
 -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1999). *NICHHD Study of Early Child Care: Phase I Instrument Document*. <http://secc.rti.org/instdoc.doc>에서 2007년 2월 4일에 인출.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 임신 및 출산 관련 느낌: 병원용 질문지 6~7번
 - 계획된 임신 여부: 병원용 질문지 8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불가)
6. 비고
 - 임신 및 출산 관련 특성 문항은 1차년도에만 조사되었음.
 - 임신 및 출산 관련 느낌: 원도구의 총 5개의 문항 중 임신 및 출산 관련 느낌은 3개 문항으로 수정되어 구성되었음. 수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원 '임신/출산 관련 특성' 문항 중 임신 및 출산 관련 느낌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당시, 출산 직후, 그리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느낌을 질문함. 이 중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느낌은 임신 및 출산과 시기상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병원용 질문지 실시 시점에도 맞지 않으므로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제외되었음.

- 원 'Your Pregnancy' 문항 중 임신관련계획 문항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응답하도록 되어 총 2개 문항이었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임신 계획을 어머니가 한 번에 응답하도록 하나의 문항으로 수정하였음.

7. 참고문헌

- 문명진, 정진훈, 최준식, 안현경, 류현미, 임하정 외. (2003). 계획임신율과 계획임신에 미치는 관련요인 분석. **대한산부인과학회지**, 46(9), 1741-1745.
-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1999).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Phase I Instrument Document*. <http://secc.rti.org/instdoc.doc>에서 2007년 2월 4일에 인출.

1. 도구명: 임신/출산 관련 태도 및 부모교육
2. 해당 변인: 기대성별, 기대자녀 수/이상자녀 수, 향후 출산 계획, 부모교육 여부, 내용 및 교육기관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기대성별: 남아선호사상은 가문계승과 노후보장이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현대 사회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자녀성별기대에 대한 풍조로 여겨져 왔음(이성용, 2004). 그러나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의미하는 실제 출생 성비는 1998년 110.2명에서 2008년에는 106.4명으로 낮아져, 자연적 출생 성비인 103~107명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남아선호에 기인한 선택적 여아낙태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더욱이 가문계승을 위한 남아선호가 사회규범적인 특성을 지닌 것에 반해, 노후 보장을 위한 남아선호는 개인의 차별적 기대에 근거한다는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자녀의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짐에 따라 정서적인 지원을 위한 여아 선호가 두드러짐. 이로써 남아선호사상이 희석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특히 출산한 자녀의 성별이 기대했던 성별과 차이가 있는 경우 산후관리(김중임, 2007), 어머니 역할수행 등(정은순, 한명은, 1999)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대자녀 수/이상자녀 수, 향후 출산 계획: 기대자녀 수와 이상자녀 수는 자녀가치관 및 출산행태를 예측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표임. 이상자녀 수는 응답자가 몇 명의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 주관적인 자녀규모를 밝히는 가치관임. 기대자녀 수는 지금까지 실제 출생자녀수에다가 향후 출산을 희망하는 자녀수를 합한 개념으로 완결출산력의 의미를 가지며, 이상자녀 수와 달리 미래의 출산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됨(이삼식, 정윤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외, 2005).
 - 부모교육 여부 및 내용: 부모교육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서 사고와 감정 및 행동에 있어서 습관적인 방법을 돌이켜 검토해 보도록 함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임. 특히 부모는 자녀가 접하는 최초의 교육적 환경으로서,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침(이재연, 김경희, 1989).

4. 도구 출처

- 임신/출산 관련태도
 - 기대성별: 한국아동학회, 한솔교육문화연구원. (2001). **아동발달백서**. 서울: 한솔교육.
 - 기대자녀 수, 이상자녀 수, 향후 출산 계획: 이삼식, 정운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외.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부모교육 여부 및 내용, 교육기관: 자체 제작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및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 기대성별: 병원용 질문지 11~12번
 - 기대자녀 수/이상자녀 수: 어머니대상 질문지 9~10번
 - 향후 출산 계획: 어머니대상 질문지 8~8-2)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5~5-1)번
 - 부모교육 여부 및 내용: 면접조사용 질문지 28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불가)

6. 비교

- 기대자녀 수, 이상자녀 수, 향후 출산계획
 - 원칙도는 자녀를 더 낳지 않으려는 이유에 관하여 6개 영역(경제적 이유, 사회적 이유, 가치관, 가족, 건강, 기타)에 관한 24개의 보기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삼식 외(2005)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률이 낮은 문항의 보기(예: 주택마련, 직장차별, 사회활동 지장, 가족수발, 부부불공평 분담 등)를 제외하였음.
 - 원칙도에서 '소득이 적어서'라는 이유를, 자녀를 그만 낳는 이유로 선택한 비율은 높았으나, '자녀 양육비용 때문에',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의 보기와 중복되는 의미로 판단되어 제외하였음.
 - 이상자녀 수를 묻는 문항 중 "(자녀를 둔다면) 딸·아들 구분해서 입니까? 구분없이 입니까?"는 자녀의 성별에 대한 기대를 묻는 문항으로, 자체 제작한 문항임.
- 기대성별
 - 기대성별 문항은 아동발달백서의 '임신 중 원하던 성'의 부분을 발췌하여 대상아동의 성별이 바라던 것이었는지에 대해 어머니와 배우자의 생각을 구분하여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음.
- 부모교육 여부 및 내용, 교육기관
 - 문항의 구성은 부모교육 여부, 부모교육을 받은 내용, 부모교육 실시주체에 대해 나누어 질문하였음.

- 부모교육의 내용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의 전반적 내용과 실제 산모들이 이용하는 각종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되는 내용을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하여 구성하였음.
- 부모교육의 실시 주체는 임신부를 포함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영리, 비영리 기관과 단체를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하여 구성하였음. 이 때 인터넷 또는 서적 등의 기타 자료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것은 부모교육에서 제외하였음.
- 부모교육 내용과 실시 주체 등에 대한 내용은 실제 실시되는 내용을 포괄하지 않을 수도 있어 '기타'의 항목을 넣어 질문하였음.
- 대부분의 부모교육이 임신 및 출산에 관련하므로, 1차년도에 한하여서 조사하였음.

7. 참고문헌

- 김증임. (2007). 출산여성의 산후관리수행의 관련요인. **여성간호학회지**, **13(2)**, 98-104.
- 문명진, 정지훈, 최준식, 안현경, 류현미, 임하정 외. (2003). 계획임신율과 계획임신에 미치는 관련요인 분석. **대한산부회지**, **46(9)**, 1741-1745.
- 이성용. (2004). 성선호 원인에 대한 한국과 자메이카의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38(3)**, 109-141.
- 이재연, 김경희. (1989).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 이삼식, 정윤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외.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은순, 한명은. (1999).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 **5(1)**, 79- 88.
- 한국아동학회, 한솔교육문화연구원. (2001). **아동발달백서**. 서울: 한솔교육.

도구 프로파일 12

1. 도구명: 자녀 가치
2. 해당 변인: 부모됨의 태도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부모됨 동기는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등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유안진, 김연진, 1997), Wollett(1991)은 부모됨에 대한 태도는 부모-자녀관계의 시작과 그 전부터 그 기원을 둘 수 있다고 봄. 따라서 부모가 되고자 하는 동기는 부모역할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임.
4. 도구 출처
 - 이삼식, 정윤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외.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 어머니대상 질문지 21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1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7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7점~35점임.
6. 문항 양호도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사각회전을 적용하여 주축요인추출을 실시한 결과, 총 두개의 요인이 추출됨. 개념적으로 자녀의 가치에 대하여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의 두 요인으로 구분됨.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음.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정서적 가치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구적 가치
5)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7)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 각 요인의 고유치는 정서적 가치 요인이 3.24, 도구적 가치 요인은 1.18이었으며, 전체 변량 중 각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각각 46.33%, 16.81%로, 두 요인이 전체 변량 중 63.14%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80$ 이었음.

7. 비교

- 이삼식, 정운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외(2005)의 원도구는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의 4점 척도로 되어있으나, 한국아동패널에서는 5점 척도로 수정되어 사용되었음.
- 원도구는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 않는다'라는 보기가 포함되어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 문항의 경우 자녀 양육의 부담이 매우 큰 출산 직후의 가정에는 변별력이 없는 문항일 뿐만 아니라 개념상 '도구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에 모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음.

8. 참고문헌

- 유안진, 김연진. (1993).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 이삼식, 정운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외.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Wollett, A. (1991). Having children: Accounts of childless women and women with reproductive problems, In A. Phoenix, A. Wollett, & E. Lloyd (eds.), *Motherhood: Meanings, practices and ideologies (Gender and psychology series)* (pp. 47-65). London, UK: Sage Publications.

도구 프로파일 13

1. 도구명: 양육스타일(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PSQ)
2. 해당 변인: 양육실제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영아기는 생애 최초의 경험들이 누적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어느 발달 단계보다도 중요함. 또한 그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영아와 환경의 끊임 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변화할 수 있는데, 영아기에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이 부모의 양육 스타일임. 영아의 경우 신체적, 지적, 인성발달이 다른 연령 단계와는 발달적 특성이 다르고 그에 따라 부모의 행동도 다르기 때문에 그 연령에 맞는 양육행동의 측정도구를 사용해야함. 이에 PSQ는 영아기가 갖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된 도구로서 가치가 있음. 그러나 PSQ는 20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영역 중 6개월 미만의 신생아에게는 '사회적 양육유형' 관련 문항만이 적절함(아래 '비고' 참조).
4. 도구 출처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어머니대상 질문지 25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6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6점~30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 스타일을 의미함.
6. 문항 양호도
 - Bornstein(1989)의 PSQ 개발 연구에서 20개월 영아를 둔 어머니 222명을 대상으로 PSQ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양육유형'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64$ 였음.

- Bornstein et al.(1996)의 연구에서 20개월 영아를 둔 어머니 102명을 대상으로 PSQ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양육유형'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68$ 이었음.
- 이형민(2006)의 연구에서 5개월 영아를 둔 어머니 31명을 대상으로 PSQ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양육유형'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80$ 이었음.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75$ 였음. 비교적 낮은 신뢰도 점수로 인해 사각회전을 적용하여 주축요인추출을 실시한 결과, 6개의 문항 중 각각 3개의 문항이 요인으로 묶여 총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음. 각 요인의 고유치는 요인 1이 2.74, 요인 2는 1.04였으며, 전체 변량 중 각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각각 46.33%, 16.81%로, 두 요인이 전체 변량 중 62.96%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남. 요인별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문항	요인 1	요인 2
1) 나는 내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10	.72
2) 나는 내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14	.69
3) 나는 내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시켜 준다.	.18	.39
4) 나는 내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50	.07
5) 나는 내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용통성을 가지고 있다.	.79	.08
6) 나는 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71	-.07

위의 2개 요인에 대하여, 요인 1은 자녀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어머니의 온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므로 '온정성', 요인 2는 어머니가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정도를 보여주므로 '반응성'이라고 명명함. 따라서 한국 아동패널에서 사용된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간략형 PSQ는 두 가지 요인으로 척도를 구성함.

7. 비교

- PSQ는 총 17문항으로 '사회적 양육유형(social interaction)' 9문항, '가르치는 양육유형(didactic/material stimulation)' 5문항, '한계설정 양육유형(limit setting)'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회적 양육유형'은 실제로 행하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적인 교환의 정도를 의미하고, '가르치는 양육유형'은 어머니가 영아에게 학습하고 모방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건과 사물의 특성에 대해 자극을 주는 정도를 의미함. '한계설

정 양육유형'은 영아에게 권위와 규칙, 관습을 가르치는 정도를 의미함.

- PSQ는 20개월 영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도구이므로, PSQ의 3개요인 중 신생아 부모에게 해당되는 '사회적 양육유형'만을 발췌하였음. 사회적 양육유형의 9개 문항 중 신생아 부모에게 적절하지 않은 3개 문항을 제외하였음. 1차년도에 제외된 문항은 다음과 같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내 아이가 놀이 집단이나 모임 등을 통하여 같은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다. - 나는 내 아이에게 말을 하거나 대화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낸다. - 나는 내 아이가 관심이나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할 때,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해 준다. |
|---|

- 1차년도 질문지에 제외된 PSQ의 문항은 대상 아동이 20개월이 넘는 3차년도 조사 시 포함될 예정임.

8. 참고문헌

- 이형민 · 박성연 · 서소정. (2008). 어머니의 양육 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2), 97-111.
- Bornstein, M. H. (1989). Between caretakers and their young: Two modes of interaction and their consequences for cognitive growth. In M. J. Bornstein & J. S. Bruner (Eds.), *Interaction in human development: Behavioral and biological perspective* (pp. 147-17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Inc.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1. 도구명: 양육지식(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KIDI)
2. 해당 변인: 양육지식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양육지식의 수준은 자녀의 행동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참조의 틀로서, 자녀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MacPhee, 2002), 자녀의 발달에 대한 정확한 지각과 기대로 부모 자신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됨(Sommer, Whitman, Borokowski, Schellenbach, Maxwell, & Keogh, 1993). 이러한 양육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된 KIDI는 아동의 발달 과정과 발달 기준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되어 표준화된 도구임.
4. 도구 출처
 - MacPhee, D. (2002).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Survey of child care experiences & manual* (2nd ed.). Unpublished manuscript, Colorado State University.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어머니대상 질문지 26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총 문항 중에 정답 수의 비율을 산출함.
6. 비고
 - KIDI는 영아용과 유아용(KIDI-P)으로 구분되는데, '양육행동(parenting)' 8 문항, '발달원리(principles)' 15문항, '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 9문항, '발달 기준 및 지표(norms and milestones)' 26문항의 총 58문항,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KIDI의 58개 문항 중 전반부의 39개 문항(1번~39번)은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후반부의 19개 문항(40번-58번)은 '그렇다', '이전에도 할 수 있다', '이후에 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이 중 후반부의 19개 문항은 '발달 기준 및 지표' 영역 중 발달 지표(milestones)에 해당함.
 - KIDI 매뉴얼에서 MacPhee(2002)는 영역별로 점수화하는 것보다는 총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나, 패널조사에서 사용하기에

는 문항 수가 너무 많은 관계로 '발달원리' 영역의 문항만이 사용됨. 이로써 '발달원리' 영역의 15문항이 1차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Bornstein, Cote와 Park(2002)의 한국을 포함한 비교문화 연구에서 제외된 2개 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질문지에서도 제외하였음. 제외된 문항은 다음과 같음.

- 아기가 부모에게 강하게 애착이 형성되면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심하게 붙어 있으려 하고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 아기는 태어나기 이전에 들었던 음악이나 이야기를 인식한다.

- KIDI에서 infant, newborn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아기'로, child, children, kids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아이'로 해석됨.
- 양육지식에 대한 정답은 다음과 같음.

문항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아이들은 말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줘도 얼마 동안은 종종 틀린 말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	
2) 아기들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단어들만 이해한다.		√
3) 아기가 낯선 상황에서 수줍어하거나 칭얼댄다면 이는 대개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		√
4) 아기가 자라온 양육 방식은 그 아기의 지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5)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아기를 돌보는 방식에 아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6) 동생이 태어나면 어린 아이들은 밤에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빨게 되기도 한다.	√	
7) 대부분의 미숙아들은 결국에는 학대받거나 방치되거나 정신적으로 발달이 지체된다.		√
8) 건강한 아기라 하더라도 새로운 음식을 주면 익숙해 질 때까지 그 음식을 대부분 뱉어낼 수 있다.	√	
9) 아기의 성격 또는 기질은 생후 6개월이면 결정되고, 그 이후에는 잘 변하지 않는다.		√
10) 부모가 아기에게 생후 첫 몇 개월 동안 반응하는 방식은 이후 아기가 행복하고 잘 적응된 아이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우울하고 부적응적인 아이로 성장할 것인가를 결정짓는다.		√
11) 아기들은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 함으로써 모든 언어를 배운다.		√
12) 소음이 심하거나 볼 것이 너무 많으면 아기는 자기 주변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	

문 항 내 용	그렇다	아니다
13) 정상적인 아이 중에서도 몇몇 아이들은 안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V	

7. 참고문헌

- Bornstein, M. H., Cote, L. R., & Park, S. Y. (2002). *Mother-child interaction and early language acquisition*. Unpublished Manuscript.
- MacPhee, D. (2002).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Survey of child care experiences & manual* (2nd ed.). Unpublished manuscript, Colorado State University.
- Sommer, K., Whitman, T., Borokowski, J., Schellenbach, C., Maxwell, S., & Keogh, D. (1993). Cognitive readiness and adolescent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389-398.

도구 프로파일 15

1. 도구명: 양육신념

2. 해당 변인: 양육신념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지니는 양육신념은 부모 행동의 근원으로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은 부모의 신념과 아동행동 사이를 조정하는 중재요인으로 기능을 함. 따라서 부모의 양육신념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임.
- 부모의 신념은 부모가 속한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여 형성되므로 부모들이 속한 지역적, 사회경제적, 기타 준거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양육신념 또한 차이가 있음. 특히 최근의 저출산과 급격한 노년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 구성의 변화를 겪고 있고, 산업화의 시대를 지나 정보화 시대,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 등 급격한 사회 전반의 변화로 인해 부모의 양육신념이 점차 변화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모의 양육신념에 관한 변화를 알 수 있고 이러한 변화가 아동발달의 제반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신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요구됨.
- European Values Systems Study Group(EVSSG)에 의해 총 15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 처음 시작된 European Values Study(EVS)에서는 각국 조사 대상의 여러 가치관과 신념 중 자녀에 대한 양육신념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EVS에서 사용된 양육신념 문항을 활용함으로써 국제적인 연구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

4. 도구 출처

- Halman, L. (2001). *The European Values Study 1999: A third wave - Source book of the 1999/2000 European Values Study Surveys*. <http://www.europeanvalues.nl>에서 2007년 8월 26일 인출.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어머니대상 질문지 22~23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2~3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리응답 불가)

6. 비교

- EVS는 1970년대 말 EVSSG에 의해서 고안된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관에 관한 대규모의 비교국가 종단연구로, 유럽인들의 사회 정치적인 제도와 통치 행동의 기저에 있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1981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총 15개 유럽 국가가 처음으로 연구에 참여한데 이어 1990년 21개국, 1999년 26개국, 그리고 2008년 39개국이 참여하는 연구로 성장하였음.
-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한 양육신념 2개 문항은 EVS 2차년도에 해당하는 1990년부터 포함된 것으로, EVS 1차년도에 해당하는 1981년도에는 상이한 형태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음. 즉, EVS 1차년도에는 양육신념과 관련된 2개 문항 중 첫 번째 문항에 해당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두 번째 문항인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은, 한국 아동패널에서 사용한 11개 특성보다 5개 많은 16개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EVS에서 사용한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의 원문은 다음과 같음.
 - ① 예의바른 생활습관: Good manners
 - ② 독립심: Independence
 - ③ 근면함: Hard work
 - ④ 책임감: Feeling of responsibility
 - ⑤ 상상력: Imagination
 - ⑥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Tolerance and respect for other people
 - ⑦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 Thrift, saving money and things
 - ⑧ 결단력과 끈기: Determination, perseverance
 - ⑨ 종교적 신념: Religious faith
 - ⑩ 이타심: Unselfishness
 - ⑪ 어른 말씀 잘 듣기: Obedience

7. 참고문헌

- Halman, L. (2001). *The European Values Study 1999: A third wave - Source book of the 1999/2000 European Values Study Surveys*. Retrieved from <http://www.europeanvalues.nl>에서 2007년 8월 26일 인출.

도구 프로파일 16

1. 도구명: 자녀의 미래기대(Expectations for a Child's Future)
2. 해당 변인: 자녀의 미래기대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일반적으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부모의 양육 및 훈육방식 등을 기초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왔음. 최근 들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써 부모의 기대를 연구하기 시작함(신건호, 구본용, 2004).
 - 부모의 기대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자녀의 발달, 학습 및 행동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정소영, 권순태, 2008; 한유미, 권희경, 2006), 비교적 현재 또는 단기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다루고 있음.
 -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는 개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부모가 속한 거시적, 미시적 체계의 특성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서 최근 부모-자녀관계를 인간관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인간지향적 부모-자녀관계'와 '지위지향적 부모-자녀관계'로 구분하여 이러한 특성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가치를 예측해보도록 하려는 시도가 생겨남(문연심, 2004; 신건호, 2004; 신건호, 구본용, 2004).
 - 일본의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NWEC)에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교육에 대한 특성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이 중 자녀의 미래에 대한 특성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가 미래에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명성을 얻거나 유명해지는 것을 기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 미국, 프랑스, 스웨덴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이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NWEC에서 사용된 자녀의 미래기대 문항을 활용함으로써 국제적인 연구와 비교가 가능함.
4. 도구 출처
 -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 (2007).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5: Survey on children and the family*. Saitama, Japan: Author.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어머니대상 질문지 24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4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매우 원한다(1점)'부터 '전혀 개의치 않는다(4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6. 비교

- 본 변인의 경우 각 항목 별로 응답자가 원하는 정도를 해석하게 되므로, 본 변인의 총점은 산출하지 않음.
- NWEC의 국제비교연구에서 사용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의 개별 항목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음.
 - ① 돈을 잘 번다: High earnings
 - ② 명성을 얻거나 유명해진다: Fame or celebrity status
 - ③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 High status
 - ④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한다: Willingness to help others
 - ⑤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 A happy home
 - ⑥ 일보다 취미나 여가를 더 중시한다: Put more emphasis on hobbies and leisure than work

7. 참고문헌

- 문연심. (2004). 부모자녀관계 유형이 유아의 공감과 조망수준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4(1), 115-143.
- 신건호. (2004). 인간지향적 부모자녀관계와 지위지향적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공감과 공격성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8(2), 143-159.
- 신건호, 구분용. (2004). 부모자녀관계 유형이 부모의 자녀성적에 대한 반응과 자녀의 자아개념 및 미래기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2(2), 30-41.
- 정소영, 권순태. (2008). 연관규칙과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한 중도탈락자 예측모형 개발.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6(5), 202-210.
- 한유미, 권희경. (2006).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자녀의 성취 및 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 *아동권리연구*, 10(4), 751-769.
- 현정환. (2005). 한국과 일본 부모의 아동관 및 양육태도, 아동의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일본교육학연구*, 9(2), 163-177.
-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 (2007).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5: Survey on children and the family*. Saitama, Japan: Author.

도구 프로파일 17

1. 도구명: 양육스트레스 척도
2. 해당 변인: 양육스트레스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 부모 자신의 심리적인 복지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 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 행동이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아동의 성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대표적인 양육스트레스 척도인 Abidin(1983, 1990, 1995)의 Parenting Stress Index(PSI) 이외에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 과 Thornberg(1987)의 Maternal Guilt Scale(MGS)을 기초로 개발되었음. 자녀 연령 측면에서는 영아가 포함되었으며, 어머니의 특성 측면에서는 취업모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음.
4. 도구 출처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어머니대상 질문지 28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10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점~50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함.
6. 문항 양호도
 -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에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모 2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육스트레스 척도' 총점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88$ 이었으며, 이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79$ 였음. 또한 공인 타당도 검증을 위해 Goldberg(1980)의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와의 상관을 산출한 결과 '양육스트레스 척도' 총점과의 상관은 $.41(p < .001)$ 이었으며, 이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과의 상관은 $.47(p < .001)$ 이었음.

- 조지은(2006)의 연구에서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 153쌍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아내는 Cronbach $\alpha = .90$, 남편의 Cronbach $\alpha = .92$ 였음.
- 편은숙(2004)의 연구에서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모 289명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90$ 이었음.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82$ 였음.

7. 비교

-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 등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함.
 - PSI는 '부모 영역(parent distress)', '아동 영역(difficult child)', '부모-자녀 상호작용 영역(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처음으로 표준화된 1983년도 판(Abidin, 1983)은 총 12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 1990년도 판(Abidin, 1990)에서 총 36개 문항의 간편형이 제작되었으며, 이후 원 PSI 또한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오고 있음(Abidin, 1995).
 -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는 총 32문항으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12문항,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2문항,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상생활 장면에서 직면케 되는 것을 반영하며,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는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움을 반영하고,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은 취업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타인이 양육하는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반영함.
-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발췌하였음. 이 영역에 해당하는 12개 문항 중 2007년도 예비조사에서 문항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1개 문항과 신생아를 둔 어머니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된 1개 문항을 제외하였음. 1차년도에 제외된 문항은 다음과 같음.

-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 아이 때문에 모임에 가면서도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8. 참고문헌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조지은. (2006). **기혼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부모기 전이 부부를 대상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편은숙. (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머니 역할 인식과 자녀 양육스트레스**.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Abidin, R. R. (1983).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3rd ed.).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Goldberg, S., Morris, P., Simmons, R., Fowler, R., & Levinson, H. (1990). Chronic illness in infancy and parenting stres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15, 347-358.
- Mann, M. B., & Thornbe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1. 도구명: 아버지 특성

2. 해당 변인: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핵가족화된 현대사회로 오면서 어머니의 사회적 역할의 증대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이숙희, 고인숙, 최향숙, 2003). 아버지 양육 참여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른 관점에서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이 증명되었고, Gilbert, Hanson과 Davis(1982)에 의해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할 때 유아 발달의 여러 측면이 더 잘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 보고되었음.
- Belsky와 Isabella(1985)에 의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시간은 부부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함. 이정순(2003)은 손이 많이 가는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의 아버지 양육참여는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주는 것으로 드러나 아동의 발달을 넘어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였음. 특히 취업모의 경우 남편의 도구적 지지에 해당하는 자녀양육 참여뿐만 아니라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정서적 지지로서 기능을 하여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Tayler & Spencer, 1989).

4. 도구 출처

- 강희경. (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홍성례. (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어머니대상 질문지 4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총 4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20

점임.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6. 문항 양호도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86$ 이었음.

7. 비교

- 원척도의 문항에서 ‘아이’ 로 표현된 문항을 ‘아기’ 로 표현을 수정하여 질문함.
- 원척도의 문항에서 ‘남편은 아이에게 음식 또는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는 문항은 ‘남편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로,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다’ 는 문항은 본 조사 대상의 발달단계와 맞지 않는다고 여겨져서 ‘남편은 아기와 함께 자주 놀아준다’ 로 1차년도 문항에서는 수정되었음.

8. 참고문헌

- 강희경. (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이숙희, 고인숙, 최향숙. (2003). **현대부모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정순. (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97-106.
- 홍성례. (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Belsky, J. & Isabella, R. A. (1985).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to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hange following the birth of a baby: A retrospective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 342-349.
- Gilbert, G., Hanson, R., & Davis, B. (1982).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Difference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Family Relations*, 31, 261-269.
- Taylor, J. & Spencer, B. (1989). Lifestyle patterns of university women: Implications for family/career decision modeling. In E. Goldsmith (Ed.), *Work and famil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p. 265-277). Newbury Park, CA: Sage.

1. 도구명: Pearlin 자기 효능감 척도(The Pearlin Self-Efficacy Scale)
2. 해당 변인: 자기 효능감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Bandura(1977)는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였음. 즉, 행동은 외적 자극에 의해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효능기대와 같은 인지적 과정을 매개로 일어난다고 강조하였음. 따라서 자기 효능감이 강하면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는 반면, 자기 효능감이 약하면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덜 하고 쉽게 포기해 버린다고 하였음.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된 Pearlin Self-Efficacy Scale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로서 높은 내적합치도와 비교적 작은 수의 문항으로 구성된 관계로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PSID-CDS) (Hofferth, Davis-Kean, Davis & Finkelstein, 1998; Mainieri & Grodsky, 2006)등과 같은 해외의 주요 유관 패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연구와 비교가 가능함.
4. 도구 출처
 - Mainieri, T.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User guide for CDS-II*. http://psidonline.isr.umich.edu/CDS/cdsii_userGd.pdf에서 2007년 2월 11일에 인출.
 - Pearlin, L. I., Lieberman, M. A., Menaghan, E. G.,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어머니대상 질문지 30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4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20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의미함.

6. 문항 양호도

- PSID-CDS 1차년도 조사(Hofferth et. al., 1998)에서 0세~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일차양육자 2,214명을 대상으로 'Pearlin Self-Efficacy Scale'을 실시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신뢰도 Cronbach $\alpha = .76$ 이었음.
- PSID-CDS 2차년도 조사(Mainieri & Grodsky, 2006)에서 5세-18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일차양육자 2,885명을 대상으로 'Pearlin Self-Efficacy Scale'을 실시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신뢰도 Cronbach $\alpha = .79$ 였음.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82$ 였음.

7. 비교

- PSID-CDS는 PSID에 패널로 참여하는 가구 중 가구에 아동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충 조사로서, 2,394가구의 0세-12세 3,5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년도 조사(이하 PSID-CDS I)와 2,017 가구의 5세-18세 아동 2,908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년도 조사(이하 PSID-CDS II)가 있음²⁹⁾. Pearlin Self-Efficacy Scale은 PSID-CDS I과 PSID-CDS II에서 모두 사용되었는데, PSID-CDS I에서는 7개 문항이 이용된 반면, PSID-CDS II에서는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통해 3개 문항이 제외되어 4개 문항이 이용됨. 이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PSID-CDS II에서 이용된 Pearlin Self-Efficacy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함.
- PSID-CDS II에서 사용된 Pearlin Self-Efficacy Scale은 4점 척도였으나, 질문지의 일관성을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질문지에서는 5점 척도로 수정하였음.

8. 참고문헌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Hofferth, S. L., Davis-Kean, P., Davis, J., & Finkelstein, J. (1998).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to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1997: User guide*. <http://www.isr.umich.edu/src/child-development/home.html>에서 2006년 11월 11일에 인출.
- Mainieri, T.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User guide for CDS-II*. http://psidonline.isr.umich.edu/CDS/cdsii_userGd.pdf에서 2007년 2월 11일에 인출.
- Mainieri, T. & Grodsky, M.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User guide supplement for CDS-I*. http://psidonline.isr.umich.edu/CDS/CDS1_UGSupp.pdf에서 2006년 11월 11일에

29) PSID-CDS I은 1997년에, PSID-CDS II는 2002년부터 2003년에 자료가 수집되었음.

인출.

- Pearlman, L. I., Lieberman, M. A., Menaghan, E. G.,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1. 도구명: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 Self-Esteem Scale)
2. 해당 변인: 자아존중감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가치의식을 의미하며, 이는 환경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경험하고 해석하여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됨. 이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관점 및 이해 수준이 달라지며, 이는 양육태도와 양육실제에 영향을 주게 됨.
 -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국내의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NLSY) (Baker, Keck, Mott, & Quinlan, 1993),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PSID-CDS) (Hofferth, Davis-Kean, Davis, & Finkelstein, 1998; Mainieri & Grodsky, 2006) 등과 같은 해외의 주요 유관패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연구와 비교가 가능함.
4. 도구 출처
 - Rosenberg, Morris.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ised edition.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http://www.bsos.umd.edu/soc/research/rosenberg.htm> 에서 2006년 11월 11일에 인출.
 -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어머니대상 질문지 31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원도구는 단일차원의 척도이며(Rosenberg, 1986), 총 10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점~40점임.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중 일부 문항은 역코딩 문항이므로, 점수화 시 재코딩이 요구됨.
 -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들을 역으로 채점한 후 단순 합계하는 경우, 점

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의미함.

문항내용	역코딩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
4)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5)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

6. 문항 양호도

- PSID-CDS 1차년도 조사(Hofferth et al., 1998)에서 0세~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일차양육자 2,202명을 대상으로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를 실시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신뢰도 Cronbach $\alpha = .83$ 이었음.
- PSID-CDS 2차년도 조사(Mainieri, 2006)에서 5세~18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일차양육자 2,889명을 대상으로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를 실시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신뢰도 Cronbach $\alpha = .85$ 였음.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82$ 였음.

7. 비교

- 원도구의 10번 문항의 경우, “At times I am no good at all”로 기술된 원 문항을 이상균(1999)은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의 의미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음. 그러나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원문의 의미가 쓸모없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으며, 원도구 지침서(Rosenberg, 1986)에서도 10개의 문항을 개발한 근거인 Stouffer et al.(1953)의 6개 문항 중 6번째 문항이 본 자아존중감 도구의 9번과 10번 문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9번 문항이 “I certainly feel useless at times”인 것으로 볼 때 10번 문항의 경우 쓸모없다고 해석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

됨. 이에 10번 문항은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로 수정하여 활용하였음.

8. 참고문헌

-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Baker, P. C., Keck, C. K., Mott, F. L., & Quinlan, S. V. (1993). *NLSY child handbook*. Columbus, OH: 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The Ohio State University.
- Hofferth, S. L., Davis-Kean, P., Davis, J., & Finkelstein, J. (1998).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to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1997: User guide. <http://www.isr.umich.edu/src/child-development/home.html>에서 2006년 11월 11일에 인출.
- Mainieri, T. & Grodsky, M.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User guide supplement for CDS-I. http://psidonline.isr.umich.edu/CDS/CDS1_UGSupp.pdf에서 2006년 11월 11일에 인출.
- Rosenberg, M. (1986).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ised edition.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http://www.bsos.umd.edu/socy/research/rosenberg.htm> 에서 2006년 11월 11일에 인출.

1. 도구명: Kessler 우울 척도(K6)

2. 해당 변인: 우울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우울한 사람들의 대인관계 특징은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 사회적 지지의 부족, 부족한 사회적 기술임(Downey & Coyne, 1990). 우울한 사람들의 인지적 왜곡과 부정적 평가와 함께 과대 혹은 과소평가, 감정표현의 부족 등이 부부관계에서는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Hammen, 1992). 이로 인해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두고 더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Field, Healy, Goldstein, & Guthertz, 1990), 자녀와의 관계에서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을 보여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행동 부적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박성연, 도현심, 정승원, 1996; Beardslee, Bemporad, Keller, & Loerman, 1983; Fendrich, Wamer, & Weissman, 1990).
- 산욕기(postpartum period)는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여성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로 전환되는 시기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우울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일반적으로 산후 우울은 산모의 약 50~70% 정도가 경험하며, 발생 시기는 산후 수일 이내인 분만 후 3~5일 사이가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이정균, 1990). 이러한 산후 우울은 모자관계 성립에도 영향을 주어, 분만 후의 우울증은 영아에 대한 낮은 민감성, 부모 효능감의 약화, 향후 1년 만에 나타나는 아기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Cramer, 1993).
-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된 'K6'은 미국 보건면접조사(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Kessler, Andrew, Cople, Hiripi, Mroczek, Normand, Walters와 Zaslavsky(2002)에 의해 간편형으로 제작된 도구임. DSM-IV에 대한 구조화된 임상적 면담(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SCID)을 실시하여 정신장애군과 비장애군을 변별하는 등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도구임.

4. 도구 출처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Walters, E. E., & Zaslavsky, A.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병원용 질문지 9번, 전화조사용 질문지 2번, 어머니대상 질문지 문항 32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안 느낌(1점)'부터 '항상 느낌(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6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6점~30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 특히 6점~13점은 정상수준, 14점~18점은 경도/중등도(mild/moderate) 우울, 19점~30점은 중도(severe) 우울로 분류됨.

6. 문항 양호도

- PSID-CDS(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1차년도 조사(Hofferth, Davis-Kean, Davis, & Finkelstein, 1998)에서 0세-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일차양육자 2,160명을 대상으로 K6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82$ 이었음.
- Kessler et al.(2006)의 연구에서 15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K6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89$ 였음.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89$ 였음.

7. 비교

- 산후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우울 정도를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 방문 시 뿐만 아니라 출산 직후 병원에서도 실시하였음.
- Kessler, et al. (2007)에 따르면 원 K6의 점수화 방식은 '전혀 안 느낌'을 가장 낮은 점수인 0점으로, '항상 느낌'을 가장 높은 점수인 4점으로 코딩하여, 가능한 점수 범위는 0점부터 24점임. 이에 정상수준은 0점~7점, 경도/중등도 우울은 8점~12점, 중도 우울은 13점~24점으로 분류되었음 (Kessler, Galea, Jones, & Parkerd, 2006). 따라서 한국아동패널의 K6 결과의 원점수를 이용하여 국제비교를 할 경우, 원도구와 동일한 방식으로의 재코딩이 요구됨.
- 2007년 예비조사 시에는 K6의 본 문항 6개와 추가 문항 3개를 모두 사용하였음. 추가 문항의 경우 조사 참여자의 응답에 어려움이 많이 보고되었으며, 우울 정도의 점수화에도 포함되지 않는 문항이기 때문에 본조사 시 어머니대상 질문지에서 제외하였음. 제외된 문항은 다음과 같음.

A. 지난 30일 동안 귀하께서 느끼신 위의 느낌들은 평소와 비교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 ① 평소보다 더 느꼈음. ☞ A-1번으로
- ② 평소보다 덜 느꼈음. ☞ A-1번으로
- ③ 평소와 비슷하였음. ☞ B번으로

A-1. 평소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비슷하였습니까?

- ① 평소보다 아주 많이 (더 또는 덜) 느꼈음.
- ② 평소보다 꽤 (더 또는 덜) 느꼈음.
- ③ 평소보다 약간 (더 또는 덜) 느꼈음.

B. 위와 같은 느낌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 ① 많이 지장 받음.
- ② 어느 정도 지장 받음.
- ③ 거의 지장 받지 않음.
- ④ 전혀 지장 받지 않음.

8. 참고문헌

- 박성연, 도현심, 정승원. (1996).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이정균. (1990). **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Cramer, B. (1993). Are postpartum depressions a mother-infant relationship disorder.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4, 283-297.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 Field, T., Healy, B., Goldstein, S., & Gutherts, M. (1990). Behavior-state matching and synchrony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of nondepressed vs. depressed dyad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7-14.
- Fendrich, N., Wamer, B., & Weissman, M. M. (1990). Family risk factors, parental depression, and psychopathology in offsp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6, 40-50.
- Hammen, C. L. (1992). Cognitive, life stress, and interpersonal approaches to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model of de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189-206.
- Hofferth, S. L., Davis-Kean, P., Davis J., & Finkelstein, J. (1998).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to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1997: User guide*. <http://www.isr.umich.edu/src/child-development/home.html>에서 2006년 11월 11일에 인출.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Walters, E. E., & Zaslavsky, A.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Kessler, R. C., Galea, S., Jones, R. T., & Parkerd, H. A. (2006). Mental illness and suicidality after Hurricane Katrina.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84(12), 930-939.
- Kessler, R. C., Barker, P. R., Colpe, L. J., Epstein, J. F., Gfroerer, J. C., Hiripi, E., Howes, M. J., Normand, S.-L. T., Manderscheid, R. W., Walters, E. E., & Zaslavsky, A. M. (2007). Screening for serious mental illness in the general popul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0, 184-189.

1. 도구명: 어머니의 취업/학업 특성

2. 해당 변인:

- 공통: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 어머니의 취업/학업 계획
- 취업모: 근로복귀시기, 직업/직무만족도, 근로시간, 재택시간/출퇴근시간
- 학업모: 휴학시기, 학업복귀시기, 학업시간, 재택시간/등하교시간
- 미취업/미취업모: 취업/학업 경험 여부, 휴직/휴학시기, 근로/학업 중단 이유, 향후 직업/학업계획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을 하는 일반적인 시기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움을 겪는 출산기와 육아기로서(김영옥, 최숙희, 전기택, 이선행, 2007), 어머니의 직업계획을 출산 전과 후, 그리고 육아기에 반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위축되거나 회복되는 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음. 어머니의 직업계획은 출산 및 육아가 경제활동 자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취업 또는 학업으로 인해 대리양육이용과 직결됨으로써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어머니의 취업 또는 학업 여부에 대한 종단적인 조사가 요구됨.
- 자녀 출산은 취업 및 학업과 같은 기혼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주된 원인 이므로, 한국아동패널에 참여하는 대상 아동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취업 및 학업 여부가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어머니의 취업 또는 학업은 전반적인 가구 소득 등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대상 아동을 위한 대리양육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아동과 가족의 양육 특성 전반에 중요한 변인이 됨. 이에 취업 및 학업의 제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요구됨.

4. 도구 출처

-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 어머니의 취업/학업 계획: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NICHHD). (1999). *NICHHD Study of Early Child Care Phase I Manuals*. <http://secc.rti.org/manuals.cfm>에서 2007년 2월 4일에 인출.
- 휴직/휴학여부, 근로/학업복귀시기, 향후 직업/학업계획: 자체 제작.
- 근로/학업중단이유: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직업/직무만족도: 남재량, 성재민, 이상호, 최효미, 신선옥. (2007). **한국노동패널(KLI) 9차년도 설문지-개인공통(취업)**. <http://www.kli.re.kr/>에서 2008년 2월 13일에 인출.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및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 취업/학업 상태: 면접조사용 질문지 1, 4, 10번
 - 취업/학업 계획: 면접조사용 질문지 5, 7, 8, 14, 15, 21번
 - 취업/학업 경험여부: 면접조사용 질문지 16번
 - 근로/학업 복귀시기: 면접조사용 질문지 6, 11번
 - 휴직/휴학 시기: 면접조사용 질문지 13, 18번
 - 근로/학업 중단이유: 면접조사용 질문지 17, 19, 20번
 - 근로/학업시간: 어머니대상 질문지 41-2번, 면접조사용 12번
 - 직업/직무 만족도: 면접조사용 질문지 2, 3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불가)

6. 비고

-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
 -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에서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는 취업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되었음.
 - 면접조사용 질문지 및 거부가구대상 질문지의 취업/학업상태: 주양육자가 어머니로부터 대리양육자로 바뀌는 조건인 '근무 시간'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시간제 또는 무급 가족업 종사자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를 취업 상태로 보았음. 이는 어머니의 육아가능 시간과 이에 따른 대리양육 여부를 고려하기 위한 어머니 취업을 NICHD의 SECCYD에서 30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것과 동일하게 하여 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
 - 어머니대상 질문지에서의 취업/학업 상태: '수입'을 기준으로 각 가족구성원의 취업 유무를 조사한 가구원대상 질문지와 동일하게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는 시간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취업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며, 무급으로 가족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보다 낮은 기준인 주당 '18시간'을 기준으로 소득활동 여부를 판단하였음. 이러한 기준은 한국노동패널을 포함한 국내 주요 패널들과 동일한 것임.
 -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를 묻는 '어머니대상 질문지 40번' 문항은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의 소득활동을 묻는 문항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어머니의 취업/학업 계획
 -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에서 어머니의 직업계획은 병원 조사 당시와 1차년도 면접 당시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되었음. 병원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은 취업모인 응답자의증과표집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수집된 자료임.

- 휴직 여부
 - 기본적으로 상근직 근로자 이외에 프리랜서, 무급 가족업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취업 증으로 간주함. 이는 가구원의 인구학적인 특성 관련 자료에서 18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것과 차이가 있음.
- 재택시간
 - 어머니대상 질문지에 근무시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재택시간은 근무시간 이외에 가정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을 알기 위하여 출퇴근 소요 시간을 포함하여 질문하였음. 그러나 1차년도 조사 결과, 근무시간과 어머니가 대리로 응답한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된 재택시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나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2차년도 조사부터는 제외될 예정임.
- 취업모의 직업/직무 만족도
 - 본 도구는 요인별 직무만족도(facet measure)와 전반적 직무만족도(global measure)로 이루어져 있음.
 - 요인별 직무만족도는 미네소타대학교 직업심리연구소의 미네소타만족지수(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와 Smith, Kendall과 Hulin(1969) 등이 개발한 직무기술지표(Job Description Index, JDI) 등에 근거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목들을 한국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축약형으로 작성한 것임. 문항 2-1번부터 2-7번의 7문항은 임금·비임금 근로자 모두에게 응답하도록 하였고, 2-8번과 2-9번의 2문항은 임금근로자만 응답하도록 하였음.
 - 전반적 직무만족도는 기존에 한국노동패널의 조사과정에서 설문 문항이 '일', '직장', '업무', '직무', '일자리' 등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정확한 직무만족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성하고, 이에 9차년도 조사에서는 직무만족에 대한 전체적인 어휘를 '일(직무)'로 통일하고, 전반적 직무만족도에 한하여 응답자가 '일자리'와 '일'을 이질적인 측정도구로 인식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자리'와 '일'을 구분하여 질문하였음. 본 연구 또한 질문의 목적이 직무만족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노동패널의 조사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음.

7. 참고문헌

- 김영옥, 최숙희, 전기택, 이선행. (2007).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남재량, 성재민, 이상호, 최효미, 신선옥. (2007). **한국노동패널(KLI) 9차년도 설문지-개인공통(취업)**. <http://www.kli.re.kr/>에서 2008년 2월 13일에 인출.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영면. (2006). **노동패널의 직무만족의 측정과 개선에 관한 연구**. http://www.kli.re.kr/_FILE/TECHPANELBOARD/ab288bdee6db5ffe50a68b31a20dc677.pdf에서 2008년 2월 13일에 인출.
- Smith, P. C., Kendall, L. M., & Hulin, C. L. (1969). *The measurement of satisfaction in work and retirement*. Chicago: Rand McNally.
-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1999).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Phase I Manuals**. <http://secc.rti.org/manuals.cfm>에서 2007년 2월 4일에 인출.

1. 도구명: 결혼만족도(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RKMSS)
2. 해당 변인: 결혼만족도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결혼만족도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만족의 정도로써, 부모 자신의 생활뿐 아니라 자녀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자녀의 성장·발달과 성격 형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됨.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Schumm, Nicols, Schectman, & Grigsby, 1983)는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들 중 문항 수가 적어 비교적 실시하기가 용이하며, 단일차원의 척도로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고된 바 있음. 한국아동패널에서는 Chung(2004)이 KMSS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RKMSS를 이용하였음.
4. 도구 출처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어머니대상 질문지 33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5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4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20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6. 문항 양호도
 - 정현숙(1997)의 연구에서 4~5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235쌍을 대상으로 RKMSS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는 아내가 Cronbach $\alpha = .91$, 남편이 Cronbach $\alpha = .90$ 이었음.
 - 정현숙(2001)의 연구에서 289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RKMSS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94$ 이었음.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

뢰도 Cronbach $\alpha = .93$ 이었음.

7. 비교

- RKMSS는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 중에서 평정하는 7점 척도였으나, 질문지의 일관성을 위하여 한국아동패널에서는 5점 척도로 수정하였음.

8. 참고문헌

- 정현숙. (1997). 맞벌이가족의 부모역할 긴장과 부부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5), 151-162.
-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2), 205-224.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Schumm, W., Nicols, C., Schectman, K., & Grigsby, C. (1983).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s*, 53, 567-572.

1. 도구명: 부부갈등 척도

2. 해당 변인: 부부갈등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부부갈등은 결혼관계의 고유한 부분으로 갈등을 잘 다루면 의사소통과 화해를 통해 결혼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자녀에게 대인 간 갈등 책략을 학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그러나 갈등이 잘 다루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때 부부갈등은 부부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으며, 자녀의 행동문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Kitzmann, 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경로가 밝혀져 왔음. 하나는 아동이 부부갈등에 노출되기만 해도 유해한 영향을 받는다는 부부갈등의 직접 효과를 나타내는 경로이며, 다른 하나는 부모가 부부갈등으로 발생한 부부간의 분노를 부모-자녀 관계에 전이함으로써 부모가 바람직한 양육행동이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간접 효과를 나타내는 경로임(Cummings, Davies, & Campbell, 2001; Kitzmann, 2000). 특히 여러 부부갈등 척도 중 Markman, Stanley와 Blumberg(1994)의 부부갈등척도는 문항 수가 적어 비교적 실시하기가 용이하며, 이혼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척도로 보고된 바 있음(Bradbury, Fincham, & Beach, 2000).

4. 도구 출처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어머니대상 질문지 34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6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8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8점~40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6. 문항 양호도

- 정현숙(2004)의 연구에서 이성 파트너가 있는 미혼남녀 163명,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 142명, 결혼 20년 이상 부부 79명을 대상으로 '부부갈등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신뢰도 Cronbach $\alpha = .96$ 이었음.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도 Cronbach $\alpha = .90$ 이었음.

7. 비교

- Markman 등의 부부갈등척도는 부부가 갈등을 잘 다룰 수 있도록 기술을 증진시켜 부부간의 관계악화, 갈등 및 이혼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전에 관계 개선을 돕고자 개발된 프로그램인 '결혼문제예방 및 결혼생활향상 프로그램(Prevention and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이하 PREP)'을 위하여 개발된 도구임(Markman et al., 2001). 원 Markman 등의 부부갈등척도는 프로그램 참여 부부의 디스트레스와 이혼의 수준을 가장 잘 예측하는 8개의 문장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답하도록 문항이 제작되었음.
- 정현숙(2004)은 Markman et al.(2001)의 부부갈등척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항상 그렇다(6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로 수정·번안하였음.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정현숙의 연구에서 수정·번안된 부부갈등척도를 질문지의 일관성을 위하여 5점 척도로 수정하였음.

8. 참고문헌

- 정현숙. (2004). "결혼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 Bradbury, T., Fincham, F., & Beach, S.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964-980.
- Cummings, M., Davies, P. T., & Campbell, S. B. (2001). Understanding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Brown University Child & Adolescent Behavior Letter*, 17(5), 1-4.
- Kitzmann, K. M. (2000).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subsequent triadic family interactions and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1), 3-13.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도구 프로파일 25

1. 도구명: 사회적 지원
2. 해당 변인: 도구적, 정서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은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 안녕감을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음.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 중 하나가 사회적 지원이었음(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사회적 지원은 가족, 친구, 이웃 등 대인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받는 도움으로(Norbeck, Lindsey, & Carrieri, 1981), 안정적인 대인관계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도구적 욕구 충족에 도움을 줌.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박성연, 도현심, 정승원, 1996),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가정의 경우 매우 의미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권소영, 강유진, 옥선화, 최새은, 2004; 이재림, 옥선화, 2001).
4. 도구 출처
 - 이재림과 옥선화(2001)의 사회적 지원 척도와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및 정현숙(1998)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기초로 자체 제작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및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면접조사용 질문지 29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28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12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2점~60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6. 문항양호도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89$ 였음.
 - 개념적으로는 도구적, 정서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됨(이재림, 옥선화, 2001).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사각회전을 적용하여 주축요인추출을 실시한 결과 도구적, 정서적 지원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주로 하나의 요인으로, 사교적, 정보적 지원이 주로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총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음. 각 요인의 고유치는 요인 1이 4.65, 요인 2는 3.92였으며, 전체 변량 중 각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각각 43.48%, 7.65%로, 두 요인이 전체 변량 중 51.13%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남. 단, 사교적 지원에 해당하는 문항 3과 11은 도구적, 정서적 지원과 함께 묶였음.

문항	해당 변인명	요인 1	요인 2
1)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정서적	.55	.07
2) 내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준다.	도구적	.69	.28
3)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사교적	.71	.35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 준다.	정서적	.84	.20
5)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도구적	.56	.35
6) 큰 일(잔치, 김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도구적	.50	.49
7) 중요한 일(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정보적	.40	.45
8)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정보적	.28	.64
9)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정보적	.22	.64
10)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한다.	사교적	.27	.78
11) 집안 길흉사에 서로 방문한다.	사교적	.62	.25
12)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간다.	사교적	.08	.57

7. 비교

- 이재림과 옥선화(2001)의 사회적 지원 척도는 지원을 제공하는 관계망의 구성원을 친척, 친구, 이웃으로 구분하여, 각 사회관계망의 구성요소 중 가장 친밀하고 상호작용이 활발한 사람을 한 명씩 기입한 후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사회적 지원의 정도를 응답하도록 함. 그러나 본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사회관계망에 해당하는 모든 구성요소로부터 받은 도움의 합으로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는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및 정현숙(1998)의 방식과 같이 가족 외 모든 사람과 단체(예: 교회, 복지관 등) 등을 포괄하였음. 즉, 구성원의 유형이나 지원체계에 상관없이, 한 가정이 외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음. 이에 친인척 중 가구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적 지원 제공자로 포함하지 않았음.
- 이재림과 옥선화(2001)의 사회적 지원 척도는 정서적 지원 2개와 사교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보적 지원 각각 4개의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정서적 지원 문항의 경우, 위 논문에서도 원래 4개로 구성되었으나, 문항 간 상관이 높지 않은 문항 2개가 이미 삭제되었으며, 나머지 2개 문항 또한 실제 지원으로 보기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자체 제작한 문항으로 대체되었음. 또한 사교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 문항들 중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 경조사가 많고, 모임 및 여행 등이 어려운 신생아가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문항은 문항이 제외되거나 통합·수정되었음. 수정, 제외된 문항은 다음과 같음.

원 문항	해당 변인명	비고
나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준다.	정서적	1)번 문항으로 대체
내가 상심에 빠졌을 때 위로해준다.	정서적	4)번 문항 대체
우리 집의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준다	도구적	문항 제외
여가 활동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정보적	9)번 문항으로 통합
살림살이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정보적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정보적	8)번 문항으로 수정
휴가나 여가 때 같이 놀러간다.	사교적	12)번 문항으로 수정

8. 참고문헌

-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원 및 질병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143-181.
- 권소영, 강유진, 옥선화, 최새은. (2004).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사회관계망 지원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81-191.
- 박성연, 도현심, 정승원. (1996).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이재림, 옥선화.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3.
-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정현숙. (1998). 편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자원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1), 13-21.
- Norbeck, J. S., Lindsey, A. M., & Carrieri, V. L. (1981).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social support. *Nursing Research*, 30, 264-269.

도구 프로파일 26

1. 도구명: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2. 해당 변인: 가구구성원 수, 성별, 연령, 국적, 귀화여부, 결혼상태 및 동거여부, 직업, 직위, 학력, 종교, 건강특성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일반적으로 일차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모 이외의 가구원은 아동을 돌보는 인력이 되거나 또는 부모의 돌봄을 받는 이가 되어 부모의 양육 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조용학, 2000). 즉,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한 가구원은 아동을 돌보는 추가 인력으로 기능하여 부모의 아동 양육 부담을 더는 요인이 되며, 반대로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연령이 너무 낮거나 높은 가구원은 오히려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추가적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 특히 가구원이 중증 장애인 또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경제적 부담과 함께 가족들은 우울감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김금순, 최희정, 서문자, 김인자, 조남옥, 2000; 이익섭, 정소연, 1997). 따라서 가구원의 성별과 연령, 건강특성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가구원의 직업 유무와 직업의 종류 등 직업과 관련된 변인은 이들의 가용 시간, 즉 아동 양육을 도울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들이 사회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변인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음. 한편, 가구원은 부모에게 육체적 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동 양육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력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의 학력은 가구원의 지적 특성으로서 부모에게 아동 양육 관련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을 추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며, 아동에게 상호작용을 통해 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으므로 변인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해 국적 및 귀화여부는 각 가정에 속한 아동의 언어적 발달 및 문화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정은희, 2004).
 - 종교는 개인의 세계관과 가치관 등 내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원이 어떠한 종교를 믿고 있는가에 대한 것 또한 아동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가구원의 종교 유무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4. 도구 출처

- 직업
 - 이경상, 김기현, 조주연, 김현희, 박영실. (2006). **한국 청소년패널조사 (KYPS) IV-조사개요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유한구, 김양분, 현주, 김일혁, 강상진, 김현철 외. (2005). **한국교육종단 연구 2005(I)-예비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학력
 - 유한구, 김양분, 현주, 김일혁, 강상진, 김현철 외. (2005). **한국교육종단 연구 2005(I)-예비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삼식, 정운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외.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결혼상태
 - 이삼식, 정운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외.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동거여부
 - 통계청. (2007). **2007년 사회통계조사**. 대전: 저자.
 - 유한구, 김안국, 민주홍, 류지영, 신동준, 손희전 외. (2006). **한국 교육 고용 패널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종교
 - 통계청. (2005). **2005 인구주택총조사**. <http://meta.nso.go.kr/img/metafile/josa/주택총조사/주택총조사200501Y/2005%20인구주택총조사%20표본조사표.pdf>에서 2006년 5월 14일에 인출.³⁰⁾
- 건강특성
 - 김미곤, 여유진, 이봉주, 손창균, 김계연, 김문길 외. (2006). **2006 한국 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 가구구성원: 가구원대상 질문지 1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1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68~69번, 71-1번~71-2번

30) Site 변경. <http://kosis.kr> 2010년 6월 21일.

- 연령: 어머니대상 질문지 37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17번, 가구원대상 질문지 3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3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56번, 62번
- 성별: 가구원대상 질문지 2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2번
- 최종학력: 어머니대상 질문지 43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23번, 가구원대상 질문지 9~10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9~10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61번, 67번
- 건강상태: 어머니대상 질문지 44~45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25~26번, 가구원대상 질문지 12~13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12~13번
- 수입활동여부: 어머니대상 질문지 40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20번, 가구원대상 질문지 6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6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58번, 64번
- 결혼상태: 어머니대상 질문지 6~7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24번, 가구원대상 질문지 11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11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2~3번
- 동거여부: 어머니대상 질문지 39번, 39-1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19번, 19-1번, 가구원대상 질문지 5번, 5-1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5번, 5-1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57번, 57-1번, 63번, 63-1번, 70번
- 직업/종사상 지위: 어머니대상 질문지 41~42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21번, 21-1번, 22번, 가구원대상 질문지 7번, 7-1번, 8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7번, 7-1번, 8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59번, 59-1번, 59-2번, 65번, 65-1번
- 취업/학업 상태: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60번
- 국적/귀화여부: 어머니대상 질문지 38번, 38-1번~38-2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18번~18-2번, 가구원대상 질문지 4번~4-1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4번~4-1번
- 종교: 어머니대상 질문지 46-1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27번~27-1번, 가구원대상 질문지 14번~14-1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14번~14-1번
- 아버지 근로/학업시간, 재택시간, 출퇴근/등하교시간: 아버지대상 질문지 21-1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65-2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아버지(대리응답 가능)

6. 비고

- 가구원은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 전원으로 정의되었음. 즉, 대상 아동의 부모, 형제, 조부모, 기타 친척(삼촌, 고모/이모 등) 및 인척(고모부/이모부, 숙부 등)을 가구원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생계,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위탁 등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식구까지 포함되었음. 또한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목적에 따라 가구원이 아닌 따로 사는 아기의 생부 또는 생모 또한 가구원 조사에 포함되었음. 이에 입주 도우미, 운전사 등의 비혈연 고용인과 하숙생 등 비혈연 동거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되었으며,

미혼자녀 중 생계,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위탁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독립한 경우 또한 가구원에서 제외되었음.

- 대상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구원에 해당하지만, 조사 수합의 편의성을 위하여 가구원대상 질문지 및 위탁가구대상 질문지를 통해 수합하는 대신, 어머니대상 질문지와 아버지대상 질문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합하였음.
- 가구원의 동거여부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 1년 중 6개월 이상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은 제외하고 응답하도록 하였음. 단, 대상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런 경우에도 가구원에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였음.
- 가구원의 소득활동 분류에 있어서 평소 소득 활동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지난 6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음. 취업 및 실업의 기준은 주당 18시간으로 하였음. 가구원의 소득활동 분류에 있어서 입시 및 취업학원생은 학생이 아닌 것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주부이면서 정규학교(초중고대 및 대학원)를 다니는 경우는 학생에 포함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음.
- 가구원의 직업을 조사하기 위하여, 직업의 종류와 직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직업분류표'를 참조하여 사후 코딩하였음. 직업에 대한 설문작성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2005)의 진술방식을 따르고, 직업의 유형분류는 통계청의 직업분류체계를 활용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 분류하여 코딩하였음.
- 미취학 가구원의 기관/시설 이용 여부에 있어서 정규 기관인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외의 유사육아지원기관(각종학원, 영어유치원 등)도 기관/시설 이용자로 분류하였음.

7. 참고문헌

- 김금순, 최희정, 서문자, 김인자, 조남욱. (2000). 뇌졸중 환자 가족 간호자의 우울 및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0(6), 1531-1542.
- 김미곤, 여유진, 이봉주, 손창균, 김계연, 김문길 외. (2006). **2006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한구, 김양분, 현주, 김일혁, 강상진, 김현철 외. (2005).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I)-예비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유한구, 김안국, 민주홍, 류지영, 신동준, 손희전 외. (2006). **한국 교육고용 패널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경상, 김기현, 조주연, 김현희, 박영실. (2006). **한국 청소년패널조사(KYPS) IV-조사개요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삼식, 정윤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외.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익섭, 정소연. (1997). 소득보장정책의 근거를 위한 장애아동가정의 추가 비용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1), 112-142.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13(3),33-52.
- 조용학. (2000). 정신지체아 가족의 양육부담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산정논총**, 1, 277-297.
- 통계청(2005). **2005 인구주택총조사**. <http://meta.nso.go.kr/img/metafile/josa/주택총조사/주택총조사200501Y/2005%20인구주택총조사%20표본조사표.pdf> 에서 2006년 5월 14일에 인출.
- 통계청. (2007). **2007년 사회통계조사**. 대전: 저자.

1. 도구명: 가계경제요소
2. 해당 변인: 소득, 소비, 자산, 부채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가구의 소득 수준은 일반적으로 가구의 경제적 지위를 가늠하는 지표로써, 소득 수준을 통해 물질적 가용 자원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음. 소득이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소비 수준 및 형태가 소득 수준과는 별개로 가구 경제 활동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함께 요구됨. 특히 다양한 가구 유형 및 자녀 유무에 따라서 소비성향 및 지출이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사가 요구됨(여윤경, 양세정, 1999).
 - 소득 및 소비지출뿐 아니라 가구 소득 대비 저축, 자산 및 부채 규모를 통해 가정 경제가 얼마나 짜임새 있게 경영되고 있는지와 가구의 미래 경제적 지위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양세정, 1997), 아동이 속한 경제 환경의 안정성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변인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음.
4. 도구 출처
 - 소득
 - 유한구, 김안국, 민주홍, 류지영, 신동준, 손희전, 최기산. (2006). **한국 교육고용 패널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소비
 - 통계청.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 대전: 저자.
 - 자산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대전: 저자.
 - 부채: 자체 제작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면접조사용 질문지 71~78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51~55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6. 비고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소득관련 문항은 소득의 5개 유형인 근로소득, 사업

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별로 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5개 문항에 대해 각각 응답하도록 제작되었음. 그러나 예비조사 결과 응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소득 관련 응답에 대한 저항이 심하였으므로, 2008년 본조사 질문지에는 '한국 교육고용패널(2006)'의 가구설문지 소득 문항에 기초하여 평균 소득을 응답하도록 문항을 수정함.

- 소득 및 자산의 경우 응답에 대한 저항이 심할 수 있으므로, 관련 3개 문항에 무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객관식 첨부 문항을 추가하였음.
- 지출관련 문항에 '아기'만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작성하도록 하여, 가구의 지출내역 중 조사 대상이 되는 신생아만을 위한 실제 비용을 산출하도록 함.
- 통계청(2000)의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은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에 포함시켜 분석한 바 있음.

7. 참고문헌

- 양세정. (1997). 가계저축의 영향요인에 대한 시계열 분석. **가정문화연구**, 11, 3-15.
- 여운경, 양세정. (1999). 가구유형과 가계소비지출구조. 한국소비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사이버마케팅시대의 소비문화**, 81-98. 5월 22일, 부산: 경성대학교.
- 유한구, 김안국, 민주홍, 류지영, 신동준, 손희전, 최기산. (2006). **한국 교육고용 패널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통계청.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 대전: 저자.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대전: 저자.

1. 도구명: 가족생활사건(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FILE)
2. 해당 변인: 가족생활사건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일반적으로 생활사건의 불예측성의 정도 및 생활사건에 대한 개인의 통제 가능 정도, 사건의 내용 등에 따라 생활사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차이가 남(강혜원, 한경혜, 2005). 가족생활사건은 가족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으로서,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의해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적으며, 유발되는 상황이나 정서가 부정적임. 따라서 가족생활사건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생활사건의 경험이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낮은 생활만족도와 높은 우울로 연결되게 되므로, 생활만족도의 중요한 예측변수임(Ensel & Lin, 1991).
 - 가족생활사건 중 규범적 사건은 사회통념상 수용 가능한 사건을 뜻하며, 비규범적 사건은 규범적으로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부정적인 사건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는 비규범적 사건이 규범적 사건에 비해서 더 높음.
4. 도구 출처
 - McCubbin, H., Patterson, J., & Wilson, L. (1982).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In D.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pp. 69-89).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최연실(1996).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어머니대상 질문지 35~36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 점수화 방식
 - '지난 1년간' 대상 가족이 경험해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가족생활사건별로 '경험함'에 응답하였을 경우 1점으로 하여 채점함.
 - 가족생활사건은 규범적 사건과 비규범적 사건을 구분하여 조사함. 규범적 사건 16문항, 비규범적 사건 11문항, 총 27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

위는 규범적 사건 0~16점, 비규범적 사건 0~11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지난해 동안 가정의 스트레스 유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을 의미함.

6. 비교

- 규범적 사건의 원척도는 총 17개 문항으로, 본 연구의 대상과 맞지 않는 1개 문항(예: '자녀가 고3이나 재수생이 되었다')을 제외하여 총 1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음. 또한 원척도의 문항내용 중 '경제적인 부담을 주었다'라는 문구내용은 '가계에 부담이 되었다'로 수정하고, '부인'으로 되어 있던 내용은 '나 또는 배우자'로 일부 수정하여 질문하였음.
- 비규범적 사건의 원척도는 총 12개 문항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신생아가구와 맞지 않는 1개 문항(예: '식구 중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을 제외한 총 11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음.
- 2007년 예비조사에서는 면접조사용 질문지를 이용하여 가구조사 시 조사원이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응답자의 응답 시 저항이 심한 것으로 보고되어 한국아동패널 본조사에서는 어머니대상 질문지에 포함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확정함.
- 질문에 대한 응답은 '예/아니오'가 아닌 '경험함'에 응답하도록 하여 경험의 유무를 알아보는 것으로 하였음.

7. 참고문헌

- 강혜원, 한경혜. (2005). 부정적 가족 생활사건, 배우자 지지와 정신건강. *대한가정학회지*, 43(8), 55-68.
- 최연실. (1996).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Ensel, W., & Lin, N. (1991). The life stress paradigm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321-341.
- McCubbin, H., Patterson, J., & Wilson, L. (1982).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In D.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pp. 69-89).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 도구명: 주거 환경 특성

2. 해당 변인: 주택 소유형태, 주택 유형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아동권리 국제협약에 의하면 아동의 생존권은 단순한 보호차원을 넘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조건인 생활수준, 주거, 영양, 보건 등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보건복지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를 포괄함(김광혁, 2010; 박향아, 2002; 이용교, 천정웅, 안경순, 2006;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1995)
- 특히 아동의 생존권 중 주거환경은 아동의 생존 및 일상생활, 그리고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침. 아동은 주거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가족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게 됨. 따라서 주거환경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이봉주, 임세희, 2008)
- 주택 소유형태: 아동이 속한 가구가 주택을 소유 혹은 임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거주 공간의 안정성과 아동에게 쓸 수 있는 가용 소득의 감소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 볼 수 있으며, 특히 주택 소유를 위해 부채가 발생되었을 때의 경제적 압박은 가구의 다른 소비 지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주택 유형뿐 아니라 소유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주택 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에 따라 놀이 공간, 안전성, 소음도 등 물리적 환경의 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의 성장·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또한 시대 및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주택유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각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아동과 가족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특성일 뿐 아니라 경제적 수준 및 문화적 취향 등의 가구의 특성을 드러내는 변인으로 볼 수 있음.

4. 도구 출처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 주택 소유형태: 면접조사용 질문지 33~34번
 - 주택 유형: 면접조사용 질문지 35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6. 비교
- 주택 유형 및 주택 소유형태는 대리양육을 위해 다른 가구에 위탁된 경우에도 원 가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음.
7. 참고문헌
- 김광혁. (2010). 한국 아동의 생존권: 빈곤 및 가족, 주거 환경, 안전, 건강 및 의료의 실태 및 변화 추이. *아동과 권리*, 14(1), 1-39.
 - 박향아. (200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유형화와 아동을 위한 내용의 재구성. *교육이론과 실천*, 12(2), 103-120.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봉주, 임세희. (2008). 아동의 주거상태와 아동발달. *보건복지포럼*, 11, 43-50.
 - 이용교, 천정웅, 안경순. (2006).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1995). *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An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Training Kit*. London: SCF.

1. 도구명: 기초생활수급 여부
2. 해당 변인: 사회보장지원 수혜 여부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아동이 속한 가구가 빈곤 가구인지의 여부는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는 가정 내 자원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가족 관계상의 문제, 부모의 실직이나 유병, 문화적 경험의 결핍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음. 이에 가구의 빈곤여부는 아동의 성장·발달, 학업 성취, 비행 행동의 예측 등에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음(정익중, 2002).
 - 기초생활수급 여부는 가구의 빈곤 여부를 살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가구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선정되므로, 절대적 빈곤상태에 있는 가구를 선별해낼 수 있는 변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여부를 선정함.
4. 도구 출처: 자체 제작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및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면접조사용 질문지 30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29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6. 참고문헌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익중. (2002). Developmental predictors of divergent offending trajectories among poor and non-poor children. **사회복지연구**, 19, 173-199.

도구 프로파일 31

1. 도구명: 육아지원 정책 수혜
2. 해당 변인: 농어민 가정 육아비, 보육료 지원금, 기타 육아지원 정책 수혜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육아지원기관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가정 내 가용 경제적 자원을 증가시키는 연쇄적이고 다양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국아동패널의 3차년도까지는 해당 연령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육아지원기관 서비스는 보육시설만이 해당되므로, 보육료 지원을 우선적으로 살펴봄.
 - 농어민 가정 육아비는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는 농어촌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지원 서비스이므로, 보육료와 상응하는 육아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수혜여부를 조사함.
 - 양육과 관련한 재정지원 정책 이외에 중앙정부에서 육아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를 추가로 조사함.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관련 서비스로 조사되었음.
4. 도구 출처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면접조사용 질문지 31~32번 및 68~69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48~49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6. 비고
 - 육아지원 정책의 경우 수혜 여부만 확인하였으며, 수혜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에 포함하지 않았음.
 - 보육료 지원금과 농어민 가정 육아비의 경우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나, 예비조사 시 일부 응답자가 중복수혜를 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이 경우 실제 중복수혜 증인지 혹은 잘못 응답된 것인지를 추가 조사하는 것이 요구되나, 한국아동패널 본조사 시 탈락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행하지 않음.

기로 함. 이에 농어민 가정 육아비와 보육료 지원금 자료 간의 불일치가 가능함.

7. 참고문헌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도구 프로파일 32

1. 도구명: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2. 해당 변인: 주양육자,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이유, 최초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육아지원 서비스별 이용 이유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영아기 자녀를 부모 자신이 직접 양육하지 않고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물음으로써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와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간의 차이를 조사해볼 수 있음. 보육시설과 같은 육아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와 시설보육이 아닌 개인 대리양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서로 다른 특성 및 요구를 조사해 볼 수 있음.
4. 도구 출처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및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면접조사용 질문지 50~51-3)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31~32-3)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6. 비고
 - 육아지원은 일반적이지 않은 용어이므로 본 변인의 조사에서는 대리양육이란 용어를 이용하였음. 대리양육자는 부모보다 아동을 가장 많은 시간 돌보는 주된 양육자로 정의하였으며, 조부모, 친인척, 유급·무급 도우미, 보육시설의 교사 등을 모두 포함하였음.
 - 대리양육자 유형은 조부모, 친척, 도우미와 같은 개인 대리양육자, 어린이집 및 놀이방 등의 보육시설, 그리고 개인 대리양육자와 보육시설을 모두 이용하는 유형의 세 가지로 구분되었음.
 -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는 대상 아동이 만 4개월의 시점에서 실시하게 되므로, 조사 당시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에 한하여 최초대리양육을 시작한 시기와 서비스를 제공한 대리양육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음.
 -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조사됨. 첫째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녀를 돌보는 주요한 이유이며, 둘째는 대리양육자 유형(개인 대리양육자 이용, 보육시설 이용, 두 가지 함께 이용)에 따른 이용 이유를 각각 조사함.

7. 참고문헌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도구 프로파일 33

1. 도구명: 개인 대리양육자 및 서비스 특성
2. 해당 변인: 개인 대리양육자의 인구학적 특성, 관계 및 알게 된 경로, 이용기간, 이용시간, 이용비용, 동거여부, 개인 대리양육 이용만족도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개인 대리양육자의 인구학적 특성, 관계, 알게 된 경로: 대리양육의 특성은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대리양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쳐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에 차이를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구대회, 1998; 정문숙, 1996). 따라서 대리양육을 담당하는 양육자의 인구학적인 특성, 혈연여부 등 아동과의 관계, 혈연이 아닌 경우 알게 된 경로 등 대리양육자의 특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이용기간, 이용시간, 이용비용 및 동거여부: 영유아기의 대리양육에 있어서 대리양육 서비스를 하루 중 이용하는 시간, 이용해온 기간, 대리양육자의 동거여부에 따라 부모-자녀간의 애착 형성, 정서적 교류, 부모-자녀간의 서로에 대한 인지 등에 있어 차이가 날 수 있음. 또한 이용비용에 따라 대리양육 서비스 이용의 다른 특성, 즉 이용시간이나 동거여부, 이용해온 기간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용비용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므로 대리양육 서비스 이용에 관한 세부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용만족도: 대리양육자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의 정서적 안정, 취업의지, 업무에의 집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이수연, 이정원, 김영미, 2003). 또한 대리양육자에 대한 만족 정도는 이후의 대리양육자 교체 여부 등 주양육자의 안정성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4. 도구 출처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및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면접조사용 질문지 52~59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33~40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6. 비교

- 본 도구에서 개인 대리양육과 보육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음.
- 대상 아동과 개인 대리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친인척은 혈연 및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의미함.
- 개인 대리양육 이용시간의 경우, 신생아의 밤중수유시간은 이용시간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대상 아동이 밤중에 수면을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경우는 이용시간에 포함시킴.
- 개인 대리양육과 보육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본 도구 응답자에 포함됨.

7. 참고문헌

- 구대회. (1998). 유아기 정서·행동 및 애착기능 발달의 유해환경 요인 분석. **정서·학습장애 연구**, 14(2), 157-174.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수연, 이정원, 김영미. (2003). 아동양육 문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성의 근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연구**, 22, 201-227.
- 정문숙. (1996). 취업모의 자녀양육 실태, 대리양육자에 대한 태도 및 스트레스 경험정도. **경북의대지**. 37(4), 517-533.

도구 프로파일 34

1. 도구명: 보육시설 및 서비스 특성
2. 해당 변인: 보육시설 유형, 보육시설 입지조건, 보육시설 이용기간, 이용시간 및 이용비용, 등하원 시간, 보육시설 이용만족도, 평가인증 통과 여부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보육시설 유형: 국공립, 민간, 가정 등 보육시설의 설립 유형별로 인적, 물리적 보육환경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유희정, 1998; 원영미, 2000), 이러한 설립 유형별 차이는 이용 보육시설 선택 시 부모의 선호도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최지현, 박혜원, 2000).
 - 보육시설 입지조건 및 접근성: 육아지원기관의 입지조건 및 집에서 이동 거리는 부모가 육아지원기관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며, 아동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Taylor, 2001). 특히 육아지원기관의 입지조건과 접근성은 이용 대상인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됨. 영아를 가진 취업모의 경우 보육시설 접근성의 문제가 보육시설 대신 개인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주요 이유로 보고되고 있음(서문희, 최혜선, 2007).
 - 보육시설 이용기간, 이용시간 및 이용비용, 등하원 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이용기간, 보육시설 이용 전의 다른 대리양육 형태 이용 여부, 이용 정도(하루 이용시간 등), 비용은 아동의 성장·발달뿐 아니라 부모의 만족도, 이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 보육시설 이용만족도: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부모의 연령, 취업여부, 보육상황 등 여러 가지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며(현온강, 최혜란, 1996),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의 정서적 안정감과 직장에서의 업무 집중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수연, 이정원, 김영미, 2003).
4. 도구 출처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및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면접조사용 질문지 60~67번 및 70번, 거부가구 대상 질문지 41~47번 및 50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6. 비고

- 본 도구에서 개인 대리양육과 보육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음.
- 보육시설의 설립 유형 및 서비스 대상 유형의 경우, 대부분의 부모가 보육시설의 유형을 알기 어려우므로 실제 보육시설의 이름과 주소를 응답하도록 한 후 추후 코딩함.
- 질문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보육시설의 경우 평가인증 통과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 코딩하였음. 단, 코딩은 2009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평가인증 여부를 확인한 것이므로, 한국아동패널의 응답자가 응답 당시의 실제 평가인증 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7. 참고문헌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 최혜선. (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대책방안**.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유희정. (1998).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에 따른 질적 수준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13, 287-314
- 원영미. (2000). 보육시설 유형별 인적, 물리적 보육환경의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1, 307-334.
- 이수연, 이정원, 김영미. (2003). 아동양육 문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성의 근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연구**, 22, 201-227.
- 최지현, 박혜원. (2000). 보육환경이 영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논문집**, 2(1), 73-87.
- 현온강, 최혜란. (1996). 유아기 자녀의 보육상황에 대한 부모의 보육인지도와 보육만족도. **한국영유아보육학**, 8, 145-172.
- Tayler, B. J. (2001). *Early childhood program management: people and procedures* (4th ed.). Columbus, OH: Merrill/Prentice Hall.

도구 프로파일 35

1. 도구명: 육아지원기관 외 서비스 유형 및 특성
2. 해당 변인: 육아지원기관 외 이용 프로그램 유형,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비용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교과목으로 분리되어 구조화된 경험보다는 통합된 생활주제를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영유아기의 활동 경험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통합된 놀이 경험은 발달 특성상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이영, 김온기, 2000; 이영자, 이종숙, 신은수, 곽향림, 이정옥, 2001). 현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이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특정 교구 또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프로그램의 대상 연령 또한 유아에서 영아로 하향하고 있는 추세임(이미화, 김은영, 2007).
 - 현재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 각종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은 기존 육아지원기관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대체하거나 육아지원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교육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유형별 차이 및 효과 범주에 포함되어 조사될 필요가 있음.
4. 도구 출처: 자체 제작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면접조사용 질문지 49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6. 참고문헌
 - 이미화, 김은영. (2007).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영, 김온기. (2000). 엄마와 함께 하는 영아 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0(3), 67-84.
 - 이영자, 이종숙, 신은수, 곽향림, 이정옥. (2001). 탐색 및 놀이 활동 중심의 1,2세 영아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1(2), 133-154.

1. 도구명: 최초 대리양육 특성
2. 해당 변인: 최초 대리양육 유형 및 최초 대리양육 시작 시기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생후 4개월에 실시되는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 조사시점의 특성상 현재 대리양육자가 최초의 대리양육자가 아닐 수 있음. 이에 최초로 대리양육자에 의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시기가 언제이며, 이때 서비스를 제공한 대리양육자는 어떤 유형이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요구됨.
4. 도구 출처: 자체 제작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및 지필식 자기보고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면접조사용 질문지 50-2-1 및 50-2-2번, 거부가 구대상 질문지 31-2-1 및 31-2-2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6. 비고
 - 1차년도에만 조사된 변인임.
 - 변인과 도구의 특성상 1차년도 조사 이전에 대리양육이 이루어진 경우만 본 문항에 응답하였음.

도구 프로파일 37

1. 도구명: 지역사회특성(일반적 특성, 물리적 특성, 육아관련 특성)
2. 해당 변인: 가구 소재지, 거주기간, 지역사회의 입지적 특성, 지역사회 내 가용 육아지원기관, 지역사회의 양육적절성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현 거주지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평가하는지는 향후 이사 여부 등 자녀 양육의 물리적 환경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부모가 평가하는 현 거주지의 특성이 실제로 아동의 성장·발달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변인으로 선정함.
 - 2007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가족친화 직장환경’, ‘가족친화제도’ 시행,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법제화 하였음. 특히 이 법을 통해 정부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 조성과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 조성을 구축하고자 함(법제처, 2007).³¹⁾
4. 도구 출처
 - 가구 소재지, 지역사회의 입지적 특성, 지역사회 내 가용 육아지원기관: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거주기간, 지역사회의 양육적절성: 자체 제작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및 지필식 자기보고

31) 박성신, 이원아, 김혜란, 류전희(2009)의 연구에서는 가족친화환경에 대한 이해를 인문사회적 환경과 건축도시적 환경으로 구분하였음. 인문사회적 환경 측면에서는 가족친화문화, 가족친화경영, 가족친화사회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이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물리적 공간을 다루는 건축도시적 측면에서는 가족친화시설, 가족친화적 공간, 가족친화마을환경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삶의 질과 함께 물리적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음. 즉 가족친화환경은 이용자인 가족의 다양한 요구가 존중되고, 가족들의 활동을 촉진하며,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면접조사용 질문지 36~45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15~24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6. 비교

- 지역사회 내 가용 육아지원기관
 - 각 문항에서 육아지원기관을 보육시설, 유치원, 사교육기관으로 구분하고 각 기관의 정의 및 특성을 문항 아래에 서술하여 각각 질문함.
 -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일명 영어유치원과 놀이학교, 기타 유사육아지원기관을 유치원으로, 선교원을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들 시설이 학원에 포함됨을 강조하기 위해 서문희 외(2005)의 원 문항을 수정함.
- 지역사회 양육적절성 문항 중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의 편이성' 관련 문항은 농·어가지역에서는 문항 적합성이 떨어지므로 해석상 주의가 요구됨.

7. 참고문헌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성신, 이원아, 김혜란, 류전희. (2009).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가로 연구. **가족과 문화**, 21(1), 151-174.
- 법제처. (200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 에서 2008년 2월 13일 인출.

도구 프로파일 38

1. 도구명: 육아지원정책 방향
2. 해당 변인: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취업모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지난 20년간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600만명(1985년)에서 1,000만명(2006년)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업모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결혼·출산·육아기가 집중되는 연령대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김혜원, 옥우석, 정미애, 2007).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한 현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낮출 뿐 아니라 가임여성의 출산력을 낮추는 요인이기 때문으로, 출산·육아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해 어머니가 직장과 병행하여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모성을 보호하고 탄력적인 근무 조건을 보장하는 것(예: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과 어머니를 대신하는 육아지원 서비스(예: 육아도우미, 어린이집 등)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질 높고 비싸지 않은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됨. 이에 이들 제도를 강화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요구됨.
 - 더욱이 최근 급격한 저출산 및 노령화 현상과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가족 내 자녀양육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양육환경의 변화로 공보육 구현에 대한 정책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일하는 여성의 가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육아지원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필수적임.
4. 도구 출처
 -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서문희, 최혜선. (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대책 방안**.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취업모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자체 제작
5.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면접조사용 질문지 9번, 46~48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30번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불가)
6. 비고

- 직장보육시설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응답자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시행 여부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시행 여부는 각 직장의 근로 장소를 기준으로 응답하는 것을 요구하였음.
- 문항의 내용 중 예비조사에서 정확한 의미 전달이 요구되었던 문항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차출근제에 대해서는 그 정의를 질문지에 포함하였음.
 - 출산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는 것으로 45일 이상은 반드시 산후에 이용하여야 하며, 출산휴가의 급여는 60일 간, 나머지는 고용보험에서 최고 135만원까지 지급됨.
 -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것으로 출산휴가 포함, 총 1년 사용이 가능함. 육아휴직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월 50만원 지급함. 단,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하고 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사용가능함. 육아휴직은 2008년부터 아동의 연령이 3세로 바뀔 예정임.³²⁾
 - 유급수유시간은 현재 30분씩 1일 2회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시차출근제는 근로자가 사정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임.

7. 참고문헌

- 김혜원, 옥우석, 정미애. (2007). 제4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안.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서문희, 최혜선. (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대책 방안.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32)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2008. 1. 1 이후 출생한 영유아는 만6세까지)를 가진 남성 또는 여성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것(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육아휴직)’ 으로 변경됨.

연구보고 2010-07

한국아동패널 2010 사업보고서

발행일 2010년 12월

발행인 조복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61-5 93330